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www.snuaa.org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54호 2015년 6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952 Gallows Rd., #206

Vienna, VA 22182, USA

Tel. 703-462-9083 Fax. 703-462-9083

e-mail: snuaausa12@gmail.c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제12대 미주 동창회

제24차 평의원회 준비

▶제4회 Brain Network Symposium

= 우선 Brain Network Symposium을 매 평의원회의 때마다 하기로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이 해방 70주년을 맞이함에 있어 인문사회계열에서 미국내 한인사회 (유익영·사회학 56), 한미 경제관계의 역사와 현황(이상협·경제 82), 한국의 민주화와 미국의 역할(하용출·외교 67), 미국내 한국역사 연구의 현주소(문유미·외교 85)에 대한 조명을 합니다.

한편 의학계열에서는 미주 한인들의 높은 위암 사망율과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안 (박찬형·의학 56)을 제시합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산하 한국학 연구소 건립으로 한 발짝 다가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SNUAA Medical Campaign Committee 설립신청 = 후자인 의학

계열에서는 이번 발표와 건의안을 제24차 전국 평의원회의에 보고하고 SNUAA Medical Campaign Committee를 설치해 미국 의학과 정부기관을 설득해 한인(더 나아가 아시아인들)들이 위장질환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의료 캠페인을 벌일 수 있게 상설 위원회 설립을 신청하고 인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SNUAA Korean Studies Institute 설립계획 발표 = 한편 지난 제23차 전국 평의원회의에서 결의한 한국학 연구활동 지원과 연구소 설립에 대해 Brain Network Symposium팀(이채진 담당 부회장), 한국학 연구그룹(하용출 Team Leader), 그리고 오인환 회장은 지난 1년간 연구한 구체적

↑ 지난 2014년 버지니아 Tysons Corner에서 열린 제23차 미주평의원회의에서 평의원의 질의 장면.

인 플랜을 평의원회의에 보고하고 인준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보를 통해 보고와 홍보를 했으며 서울-총동창회와 모교에도 알려 협조를 구했다. 현재 기초연구 SEED MONEY를 위해 창립멤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12대 회장단 선거공약과 업무보고 및 토의 = 지난 2년간 (2013.7~2015.6) 제12대 회장단에서 실천한 8개 선거공약 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본 회보 2면 별표 참조). 중요한 보고 항목 중에는 제1~2차년도 재정보고와 인준을 받는 것이며 제23차 평의원회 회의록 검토와 인준을 받게 됩니다. 이어 보고할 선거공약 8개 실천항목은 (1)좀더 능률적인 동창회 운영을 도모하고, (2)지역동창회와 미주동창회의 TWO-WAY 소통과 지역동창회간 형적 유대를 장려해 서로 발전하는 전통을 만들고, (3)미주동창회와 지역동창회가 한인사회는 물론

일리노이대 어배너삼페인 하택집(자연대 86)교수

세계 최고권위 ‘미국립과학원’ 입성



‘세계 생물 물리학계의 선두 그룹’ 형성, 1년에 걸친 투표

생물물리학계의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일리노이 대학 어바나 삼페인의 하택집(자연대 86·사진) 교수가 세계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학술단체 ‘미국립과학원(NAS)’과 유서 깊은 정책연구기관 ‘미국예술과학원(AAAS)’의 회원에 잇따라 선출됐다.

미국립과학원은 1863년 미국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수많은 노벨상 수상

자들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기존 회원의 추천과 1년에 걸친 투표를 통해 신규회원을 선출하는데 2015 연차 총회에서 발표된 신규 정회원은 84명이며 외국인 준회원은 21명이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독립 정책연구기관 중 하나인 미국예술과학원은 독립전쟁 중인 1780년 학문과 예술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 교수는 서울대와 UC버클리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스탠포드대 연구원을 거쳐 2000년부터 일리노이대학 공대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5년 하워드 휴즈 의학재단(HHMI)으로부터 올해의 생명의학 과학자에 선정돼 매년 100만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

2007년에는 미국 생물물리학회에서 수여하는 바라니 젊은 연구자상을 받았고, 2008년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연구지원 대상이 됐으며, 2011년 호암상 과학상을 수상했다. 하 교수의 부인은 역시 일리노이 대학 생명공학과 명수아(44) 교수다.***

<연하뉴스>

미 주류사회와 교류하며 기여하면서 서울대를 알리며 (4)미주동창회는 물론 지역동창회에 젊은 동문들을 영입해 leadership을 함양하는 기회로 만들며 (5)미 유수대학 동창회와 교류, 선의의 경쟁을 하며 (6)전문직 미주 동문들의 지식과 경험을 모교 재학생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Mentor-

ing Program 개발, (7) Brain Network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미주동창회의 전문인력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며 (8)미주동창회, 서울-총동창회, 그리고 모교가 협력, synergy를 개발하면서 Brookings Institution과 같은 영향력 있는 Think Tank설립을 건의한 것이었습니다. <3면에 계속>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QS 2015년 세계대학 평가

모교 약학·화공·치의학 17~27위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지난 4월 발표한 ‘2015 QS 세계 대학 평가 학과별 순위’에서 모교는 약학(17위)·화학공학(19위)·치의학(27위)·전자공학(31위)·물리천문학(41위)·의학(48위) 등에서 강세를 보였다.

모교는 특히 약학과 화학공학을 비롯한 IT 등 이공계 분야에서 강세를 이어갔다. QS가 매년 9월 발표하는 ‘세계대학 평가’가 종합 순위라면, 상반기에 발표하는 ‘학과별 순위’는 학과별로 뛰어난 대학들을 보여주는 세부 평가다. 올해는 총 36개 학과별로 대학 순위를 매겼다.

모교 외에도 한국의 대학들은 특히 공학분야에서 성적이 좋았다. 가장 경쟁력이 높은 학과는 화학공학으로 10개 대학이 세계 톱 200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 19위 외에도 포스텍 43위, 성균관대가 49위를 차지했다.

전기·전자공학 분야에서도 카이스트(22위)를 포함해 8개 한국 대학이 200위 안에 들었고, 컴퓨터공학·정보시스템 분야에서는 한국 대학 7곳이 세계 200위 안에 올랐다. 카이스트(39위)·서울대(42위)·고려대·성균관대·포스텍(51~100위) 등이다.

QS의 마틴 잉스(Ince) 학문자문위원장은 “이번 순위 결과는 한

	약학		화학공학		치의학
1	하버드	1	MIT	1	카롤린스카(스웨덴)
2	UC	2	UC 버클리	2	홍콩대
3	옥스포드	3	스탠포드	3	고텐버그(스웨덴)
4	케임브리지	4	케임브리지	4	미시간
5	UCL	5	싱가포르	5	루벤가톨릭(벨기에)
17	서울대	17	KAIST	27	서울대
45	성균관대	19	서울대	41	연세대
51	연세·고려대	43	POSTECH		

국이 ‘기술 초강대국(technology superpower)’으로 부상하게 된 데 한국 대학들이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학과별 평가 최상위권은 미국과 영국 대학들이 압도했다. 1위를 가장 많이 차지한 대학은 미국의 MIT(11개 학과), 하버드대(10개 학과) 순이었다.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고 ‘톱 10’에 가장 많은 학과가 올라 있는대학은 싱가포르 국립대(NUS·11개 학과), 스위스 취리히공대(10개 학과), 일본 도쿄대(6개 학과), 호주 국립대·홍콩대(4개 학과), 난양공대(싱가포르)·스웨덴 카롤린스카대(3개 학과) 순이었다.***

<조선일보>

알림

동창회보는 7월호부터 필라델피아 손재옥 제13대 미주동창회장단 관할하에 발행됩니다. 따라서 회보기사, 기고, 동문동정, 지부 소식, 사진파일 등을 news@snuaa.org로 보내주시십시오. 종이에 쓰신 원고는 다음 주소 혹은 Fax로 보내주시십시오. 또한 제13대 회기 (2015.7~2017.6)의 모든 회비, 후원금, 광고후원금 등 일체를 다음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문의 : 제13대 손재옥 회장, 김정현 편집위원장 Tel : 484-344-5500, Fax : 484-342-0222.**

NON-PROFIT
US POSTAGE PAID
DULLES, VA
PERMIT No. 645

제12대 회장단(2013.7~2015.6)의 공약사업과 2년간의 성과

1)동창회의 좀더 능율적인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운영의 내실화와 흑자재정을 실현. 각 회장단이 장기적으로 조금씩 저축하여 모으면 새 회장단이 전국 평의원회를 개최하고 2개월 운영할 수 있는 Initial Operating Cost 를 마련.	2)지역동창회간 횡적 Networking을 장려해 서로 장단점을 상의,장점을 선택 장려해 지역동창회 운영 상향 표준화 실시. 지역회장단 회의 개최-경험과 교훈을 교환하는 기회 마련. 동창회 모든 서류를 한글/영어로 병기. IRS Audit에 준하는 자체감사 실시.	3)미주 총동창회는 물론 각 지역동창회가 거주 지역사회(한인사회 및 미 주류사회)에 참여 봉사하면서 접목시키도록 하겠음.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미국사회에 서울대를 알리는 기회로 만들도록 하겠음. 서울음대 학생들의 미주 순회공연을 주선했 보겠음.	4)총동창회장으로는 역사상 제일 젊은 기수(63학번)로서 동창회를 좀더 젊게 하기 위해 Bridge 역할. 70~00 학번대 동창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전국 평의원회와 동시에 관악연대 혹은 Acropolis Convention 개최.
연간 재정자립을 위해 회비 30% 모금 캠페인을 벌였으나 17% 정도로 예년의 14% 를 약간 웃돌았다. 2014년을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언, 30만불 모금운동을 벌이고 현재까지 26명 \$57,227을 모금하였으며 8개 공약 사업에 활용하였는데 많은 효과를 보았다. 최근 몇년간 보면 신입회장이 일을 시작할 때 약 \$60,000(평의원회 비용 \$30,000과 7-8월 2개월간 회보발간 및 사무실 운영비 각 \$15,000)는 매 회장단 마다 흑자를 모아 적립해야 할 것이다.	제22~23차 평의원회의 때 지역회장단회의를 개최했으며 e-mail을 이용해 상호교류를 증진하였음. 동창회보에 지역동창회 활동보고를 게재, 좋은 경험을 공유. 회원 주소록 표준 Spreadsheet Template 을 만들어 공급했으며 전문인력 자료를 수집해 300명 정도의 자료를 확보. 감사위원회(위원장 배규영)를 구성하였고 2014년 1월 - 2015년 4월까지 Internal Audit을 실시 하였으며 2015년 5월 회보에 보고(응답율 73%) - 세금보고의 중요성 고취.	미 주류사회 담당·한인사회 담당 부회장을 임명해 관목할 효과(MD Howard County노인회 설립 및 봉사. The Korea Society, JBLI Inc. 등과 Partnership 맺음). 지역동창회에서 지역사회(한인사회 및 미 주류사회)에 참여 봉사하는 뉴스를 동창회보에 보고. 동창회보를 미 주요 대학과 Library of Congress에 보내고 있음. 미 사회에 서울대와 동창회를 알리는 기회창출. 서울음대 학생 미주 순회공연은 후원단체 찾지 못해 미성취.	관악세대 담당 부회장 임명(이원영, 정치 81, 1년 후 사임) 제23차 평의원 회의 중 별도 Acropolis conference를 열어 젊은 동문 동창회를 위한 토론과 panel discussion. 많은 경우 여러 지역동창회에서 관악 캠퍼스에 입학한 젊은 동문들이 회장, 부회장 등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 매우 고무되었음. 미주 동창회에서도 젊은 동문들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 전국적 관악연대 혹은 Acropolis 연대는 결성치 못했음 - 현실성이 부족했음.
5)미주 총동창회는 물론 각 지역 동창회가 각 거주지역의 Harvard 대 등 미 명문대 동창회와 친선교류 장려. Harvard 대 등 명문대 동창회와 교류해 선의의 경쟁. Internship, mentoring, employment 알선 사업 등을 배우고 동시에 그들에게 서울대를 알리는 기회.	6)미 대학, 연구소, 정 부기관, 혹은 대기업체에 근무하는 동문들과 전공 분야가 같은 모교 재학생을 위한 Mentor-Mentee Program 장려. 미주 동문들에게 홍보하여 소장한 전문분야 학술지를 서울대 도서관에 기증하는 방법도 모색.	7)Brain Network 사업을 계승 강화해 미주 서울대 동창회의 최대자산(the greatest Asset)인 동문들 전문지식과 기술을 조직적으로 결집, 모교와 교류하면서 SNU와 SNUAA-USA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기회. 뜻있는 동문들과 독지가 동문들의 도움을 얻어 기증 동문의 이름을 따 ‘홍길동 Lecture Series’ 같은 것을 구상.	8)미주 동창회가 지역동창회는 물론 재미 서울대 재단, 모교, LA 사무소, 서울의 총동창회 등과 연계 Synergy 효과를 창출하는데 Brookings Institution, Rand Corporation 같은 정책연구소를 미국 Boston 혹은 DC에 설치하고 권위 있는 학술지를 발행하는 것을 건의. 서울대를 세계 대학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
Utah 동창회는 서울대 동문의 Harvard 출신 아들이 다리 역할을 자원해 교류 중. 서울대 동창회와 미 대학동창회의 관심분야, 운영방법, 문화 등의 다른 점을 감안해 교류 항목과 방법을 연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공통 관심사 부족이 큰 원인. 2015년 6월 회보에 첫 케이스로 Harvard대 동창회 소개 기사를 게재, 앞으로 계속할 것을 추천. 미국 대학 동창회와 같이 지역 동창회 차원에서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문 우수문학 작품을 공모해 선정, 시상했음.	모교 재학생을 위한 Mentor-Mentee Program을 만들었으며 7명의 mentor volunteers 가 sign up, 1명의 의대생이 1개월 현지인턴십을 받고 귀국(2월, 6월 회보 참조). 현재 재학생 2명이 mentor와 연락 중. 모교 국제협력분부와 연락을 취해 재학생들에게 도움되게 노력하고 있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담당 부회장을 임명해 전문적 approach가 요구된다. 미주 동문들에게 홍보해 소장한 전문분야 학술지를 서울대도서관 혹은 학과 도서관에 기증하고 있음.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을 임명, 제23~ 24차 평의원 회의 첫날 행사로 Symposium을 개최해 각 8편과 5편의 주제를 발표. 한국의 전통과 문화, 생명 과학 분야와 해방 70주년 기념 주제로 미주 한인동향, 한미 경제협력, 한국의 민주화와 미국의 기여, 미국에서의 한국 역사학의 현주소에 대해 발표. Brain Network Database 구축을 위해 전문분야 회원자료를 수집(현재 300 명 정도 접수). 차기 회장단에서 계속 해주기를 바램. 이 database는 학술교류, Mentoring, 회보기고 동문 pool로서 가치가 다양.	Brain Network하용출 부회장 대리가 진행한 제23차 Symposium에서 문유미 동문의 ‘일본식민지 정책의 재검토:북미연구동향’에서 제기된 미국 사회 역사인식 문제점의 시급성 지적. 다음 날 하용출 부회장 대리의 제안에 따라 관련 분야 동문들의 연구 그룹 조성 과 재정지원을 해 주기로 결의. 그 후 미주 동창회 회장단은 담당 부회장팀과 함께 서울 총동창회와 모교에 그 뜻을 진해 격려를 받았음. 이후 ‘SNUAA Korean Studies Institute’라는 이름으로 Think Tank를 DC지역에 만들기로 하고 창립회원 모집과 연구기금 모금 시작.

차례

3.제24회 미주 평의원 회의 일정/게시판
4.<논설위원장 칼럼>미국 일본 대 중국 분쟁시 한국의 선택전략
5.제4회 Brain Network Symposium 강연초록
6~7.<모교소식>해외 유명대학들과 교류확대/학생식당 아침식사 1천원/지진피해 네 팔 대학지원/잇따른 커닝논란에 내부지침/오너 기업가 22% 서울대 출신/관악캠퍼

스 치의학 대학원과 치과병원 개원/세월호 참사 순식간에 정치화/기초학문 분야 후속세대 선정/ 2015 예술주간 Art Space @SNU.
8-11. 6.25한국전쟁 65주년 기획>한국전쟁에 뛰어든 유일한 여기자 Marguerite Higgins/나의 아버지 서승표/평화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6.25 한국전쟁과 나/<동문 시 감상>회열
12-13.미주 동문 동정
14.차차기 미주 동창회장 선거 출마의 변

(윤상래)/미주 동창회 Mentoring Program을 마치고(의대 본과 1년 김신)
15~19.미주 각 지역 동창회 소식
20.미국대학 동창회 시리즈<1>Harvard대
21.<영화이야기>Collateral의 매력/<논설위원경제칼럼>가정에서 갖춰야 할 법적서류
22-23<관악세대 아크로 광장>부시와 클린턴의 짝진 인연/고혈압과 뇌졸중/Smart시대의 Dumb & Dumber/혈압약 그 불편한 진실/숙아내야할 게 잡목 뿐인가/마음에도 용량이 있습니다

24.<문화기행>Holocaust 박물관
25.이주갑인상(二周甲引上) 일본 역사서의 오류/달과 지구/어처구니
26.<생활의 수상>하산길의 단상/짧은 노래
27~32.동창회비/후원금/업소록/미주 동창회 및 지역동창회 회장단 명부/광고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것은 본 회보가 Copy Right를 갖습니다.

6.25 한국전쟁 65주년 편집위원 시 감상

寶文山(보문산)의 봄

서윤석(의대 62) VA
한국 현대시인협회 회원
미주 동창회보 편집위원



보문산 오르막 황톳길엔
선마위 아직 의젓하고
야무진 소나무들 손 흔들며
아직도 나를 알아보네

구슬픈 서편제 판소리
IMF 실직자들의 한탄소리
사변 때 혼령들의 비명소리
다들 어디에 숨었나요

산 허리 여승당에
바람에 흔들리는 초파일 연등
사람들의 마을에
십자가를 엮은 뽕죽지붕들
아, 소중한 봄 다시 오셨네

덩그렁거리던 철마들 사라지고
KTX가 달리는 신도시에
낮 선 수 많은 빌딩과 얼굴
여러분들, 어디서, 언제 오셨나요

지평선 끝까지 한발의 기적
그래도 변함 없으신 보문산의 봄
손꼽아 기다리던 계절이여
이제는 피 문은 진달래는 말고
노란 개나리만 활짝 피면 좋겠네 ***

* 보문산 ;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동남 쪽에 위치한 산



미주 동창회 임원회의

미주 동창회 임원들이 지난 5월 17일(일) 버지니아의 비엔나에 있는 동창회 사무실에 모여 정기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회의의 주 내용은 지난 4월 11일 실시한 제12대 미주 동창회의 지난 2년간 업무에 관한 간담회 평가를 비롯한 제반 안건이었다. 제반 안건의 주요 항목으로는 임원 매뉴얼 제출, 각 지역 동창

회 분담금 접수, 6월 필라델피아 미주 평의원 회의시 포상자 후보 선정, 평의원 회의 평의원 참가자 확인, Brain Network Symposium 준비상황, 인수인계 리스트 작성 등이다. 사진 왼쪽부터 차임경(가정대 77) 동문, 이우진 섭외국장, 장경태 편집위원장, 오인환 회장, 권기현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정평희 현 사무총장. ***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제24차 전국 평의원회 일정

The 24th Pyung-Eui-Won Hoe for the SNUAA-USA

DoubleTree Suites by Hilton Hotel Philadelphia West

(아래 Red Color는 비평의원, 가족, 필라델피아 동문도 참가하는 행사)

Time / Date	Thursday June 18	Friday June 19	Saturday June 20	Sunday June 21
07:00 ~ 08:30	Arrival and Registration	Breakfast	Breakfast, Registration	Breakfast
08:30 ~ 09:00		Brain Network Symposium AM Session (Korea Study)	Pyung-Eui-Won Hoe(평의원 회의)	Departure & Free Time
09:00 ~ 10:00				Move by Bus to GC
10:00 ~ 11:00				
11:00 ~ 12:00				
12:00 ~ 01:00	Lunch	Lunch	Lunch and Photo Session	Lunch and Photo Session
01:30 ~ 02:00	Arrival and Registration	Brain Network Symposium PM Ses-sion(Life Science)	Pyung-Eui-Won Hoe(평의원 회의)	Golf Game(Lederach GC) 필라델피아 동문도 환영 (1인당 \$100. 10:30 접수)
02:00 ~ 03:00				
03:00 ~ 04:00		서재필 기념관 방문 (Jaisohn Memorial Center)	Free Time	
04:00 ~ 05:00			Registration and Social Mix	
:00 ~ 06:000				
06:00 ~ 07:00	Dinner	Pyung-Eui-Won Hoe Eve(전야제) 필라델피아 동문도 환영(1인당 \$60)	Main Banquet(모교 총장 축하 동영상, Keynote Speaker 미국무성 성김 대사) 필라델피아 동문도 환영(1인당 \$100)	Dinner and Winner's Presentation
07:00 ~ 08:00				Move to Hotel by Bus
08:00 ~ 09:00				
09:00 ~ 10:00				
10:00 ~ 11:00				

<1면에서 계속>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가능했던 것은 미주 동창회 역사상 최초로 인선위원회를 통한 회장 후보추천 과정을 거치면서 동창회보에 선거공약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년간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에 집중했기 때문에 3면 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결실을 보았다고 사료되며 그 때 그 때 회보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IRS Audit에 대비, 내부감사 실시, Mentoring Program으로 의대 재학생(김신 학생) 인턴십 수료, 경영대 재학생 연구방문 지원, 국제협력본부 하계학교 홍보팀 지원, 모교 중앙 도서관 열람 의자 기증, 도서 기증, 미주 동문들의 서울-충동창회 Homecoming Day 참석, 지역 동창회 순방, 남가주 Acropolis 활동소개, 동문들의 우수 문학작품 시상이 있습니다.

또 2회의 Brain Network Symposium 개최, 한국학 연구 지원 및 연구소 설립지원, 미주 한인을 위한 Medical Campaign 준비, 미주동창회 본부 운영 매뉴얼 제작, 주소관리와 전문인력 Database template 구축 등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한 미주 동창회 대도약 후원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주신 결과였습니다.

▶회비 납부 17% 달성 = 아쉬웠던 점은 회비 납부 30% 목표에서 17% 정도에 그쳤던 점이며, 대도약 기금 30만 달러 목표 가운데 6만 달러 정도에 머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회장단을 위한 Initial Operating Budget(평의원회의 비용과 2개월 본부 운영비)을 마련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주소록 정비와 전문인력 Database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흡족하지 못하여 차기 회장단에서 계

속해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빠르게 진행될 IT와 ON-LINE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INTERNET HOMEPAGE를 대폭 수정 개발하였으며 동창회보에 게재되는 내용을 분류하여 올려 놓고 있습니다.

김원영(미대 82·미주동창회 WEBMASTER·뉴욕 거주)이 수고해주고 있는데 동문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동문들이 적극 참여하여 카페에 글, 사진, 그림, 동영상을 올려 주셔야 계속 발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 예산과 별도로 자체 재정 지원을 위하여 STRIP 광고를 넣어 광고비를 받아 운영합니다. 따라서 심한 변동이나 중단 없이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앞으로 15년 전후면 ANA-LOG 세대는 가고 ONLINE 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보며 그 전에 ON-LINE 으로의 전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회장 선출 = 제24차 전국 평의원회의는 매2년마다 실시하는 차차기 회장 선출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14대 회장을 선출하는 해로 마침 뉴잉글랜드의 윤상래 동문(수의대 62· 뉴잉글랜드 동창회 전 회장, 현 미주 동창회 회칙위원)이 인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출마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이번 미주 평의원회의에서 차차기(제14대) 미주 동창회장을 선출을 하는데 만일에 Floor Nomination이 있으면 경선을 하게 됩니다. 윤상래 후보의 출마의 변은 본 회보 14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제24차 평의원회 저녁만찬과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 = 6월 20일(토) 평의원회의가 끝나면 저녁에 제24차 평의원회 저녁 만찬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Keynote Speaker로

전 주한 미국대사로 우리 고국 한국에서 3년간 근무한 김성 대사가 기조연설을 합니다.

현재 북한 비핵화 6자 회담 미국측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한데 급변하는 현재의 한반도 주변 환경을 볼 때 서울대 미주 동문들이 유익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날의 만찬에서는 오인환 회장 환영사, 손재옥 차기회장 환영사, Philadelphia 지역 동창회장 환영사, 서울 - 충동창회 서정화 회장님 축하(동영상), 성낙인 서울대 총장님 축하(동영상)가 있습니다.

이어 지난 2년간 미주 동창회와 모교를 빛낸 동문들을 위한 공로패 증정(학술·봉사·참여), 지역 동창회 전·현직 회장님들에게 주는 공로패, 그리고 제12대 미주 동창회 임원들에게 주는 감사패 증정이 있습니다.

저녁 만찬에서는 손재옥 차기 회장단이 준비한 작은 음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전국평의원 친선 골프대회 - 서정화 충동창회장배 = 마지막 날인 6월 21일(일)에는 Philadelphia 동창회가 주관하는 평의원 친선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이 골프대회는 등록 선착순 40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평의원 분들의 신청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매 평의원 회의에서 실시하며 서정화 서울 충동창회장님의 순회배를 놓고 경쟁을 벌입니다.

승자는 REPLICA를 받고 ORIGINAL은 회장단이 보관하며 승자 이름을 TROPHY에 새겨 놓습니다.

이번에는 임광수 전 충동창회장님의 순회배도 있는데 승자는 아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평희 사무총장>

게시판

서울대 미주 동창회 한국학연구소(SNUAA-USA Korean Studies Institute)창립회원 모집공고

미주 동창회가 제23차 평의원회의(2014.6.28)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서울대 미주동창회 한국학 연구그룹’ 지원에 이어 ‘서울대 미주동창회 한국학연구소(SNUAA Korean Studies Institute)’라는 이름으로 Think Tank를 건립토록 하고 창립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창립멤버는 미국내 동문들 가운데 50명, 한국거주 동문 중 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연구하며 미국 유수의 Think Tank들과 교류하면서 그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에 유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Think Tank의 Forum, Briefing, Policy research reports등을 통해 미국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며 서구학계의 편향된 학문적 시각을 극복해 한국과 한민족의 시각에서 보는 정체성 있는 새로운 학문적 토대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미국과 서구학계에서는 21세기인 현재도 동양의 장구한 역사 속에 독립된 뿌리가 있음에도 한국하면 일본의 식민지 혹은 중국의 변방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현실에 <서울대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창립 멤버와 그 후에 참여하는 동문들은 특기에 따라 연구위원, 재정위원, 행정위원으로 분류합니다. 연구소 멤버로 참여하면 연구발표회 등 각종 관련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보고서도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미주동창회 산하 한국학 연구소 활동을 통하여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대표되는 일본주도의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극복 ▶기존의 장학사업을 초월해 한국은 물론 미주 및 전 세계에 한국의 이해를 돕게 되는 새로운 동창회 사업의 유형 개발 ▶서울대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학문 후계자 양성 등 모교와 연계 강화가능 ▶미주 한인 후속 세대에 정확한 역사인식과 후속 학문세대 개발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각, 혹은 중국의 시각으로 편향돼 온 미국 등 서구에서 한국학 연구 관행을 바로 잡는 이번 사업에 우리 동문들이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5년 1월부터 5개년 계획으로 연구소 건립을 추진하며 가시적인 연구결과를 내면서 2019년까지 \$10 Million의 예산을 갖춘 Think Tank를 만드는 데 장정입니다. 오는 5년간 연구지원금으로 2015년 \$50,000, 2016-2019년은 각 \$100,000 씩을 책정하고 5년 이내에 가시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적인 연구결과 \$10 Million모금에 기록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소 설립에 대한 것을 서울-충동창회와 모교에도 알렸으며 서울-충동창회 회보에도 동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학 연구프로젝트 팀 리더: 하용출 교수(외교 67)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이채진 교수(문리대 정치 55)

▶미주동창회 회장: 오인환 (문63) <연락처 : 서울대 미주동창회 사무처 703-462-9083 / 오인환 회장 : 301-775-3919, e-mail : ioh0858@comcast.net / snuaausa12@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 부설 한국학 연구소(SNUAA-USA Korean Studies Institute) 창립멤버 지원서

(미국과 한국거주 동문, 동문단체, 비동문 독지가 혹은 단체포함 - \$10 Million 목표)

▶SNUAA-USA President's Honor Club(\$100,000 or more)

▶SNUAA-USA Gold Club (\$ 50,000 - \$ 99,999)

▶SNUAA-USA Silver Club (\$ 30,000 - \$ 49,999)

▶SNUAA-USA Bronze Club (\$ 10,000 - \$ 29,999)

▶SNUAA-USA Patron (\$ 1000 - \$ 9999)

본인/단체는 위 금액을 서울대 미주동창회 발전을 위해 기증(혹은 약속)합니다. (Write a check payable to SNUAA-USA and send it to SNUAA-USA, 1952 Gallows Rd., Suite 206, Vienna, VA 22182.) - Tax deduction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영수증을 해드립니다.

(이름/학과/학번) _____

(날짜)_____ (서명)_____

5월까지 접수된 창립 멤버 ▶방은호(약대 43) ▶임종식(의대 51) ▶김해암(의대 52) ▶이병준(상대 55) ▶이채진(문리대 55) ▶박찬형(의대 56) ▶이항열(문리대 57) ▶이영목(공대 59) ▶오인환(문리대 63) ▶하용출(외교 67) ▶안창호(약대 72) ▶손재옥(가정대 77) ▶문유미(외교 85) ***

미 주류사회에 동창회보 제공

미주 동창회는 다음과 같이 미 국회도서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본 동창회보를 보내고 있다.

▶Library of Congress ▶Georgetown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Dartmouth University ▶Cornell University ▶Brown University ▶Yale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U. Penn ▶Princeton University Library ▶USC ▶CalTech ▶Stanford University ▶UC Berkeley ▶UCLA ▶The Korea Society ▶JGBLI ***

논설위원장 칼럼

미국·일본 대 중국 분쟁시
한국의 선택전략

이향열(법대 57)
Shepherd대 국제정치학 석좌교수
동창회보 논설위원장

근대 한반도의 평화와 모든 중요한 문제는 우리 선택의 여지없이 주변국가 특히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이해와 협력없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았다.

세계 2차대전 후 한반도의 분단은 미국·러시아가 Yalta와 Postam 회의에서 결정했으며 1945년부터 한뎃힌 3.8선이 그어진 것이다.

▶주변 4강국 관계가 중요 =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오래 전부터 한반도에서 국제분쟁이 시작됐다.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일본·중국·러시아가 모두 한반도를 점령, 힘의 균형을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다. 현재도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는 주변 4강국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한반도의 이익과 평화문제를 다루는데 미국·중국·일본의 정세변화와 연결시켜 분석해야 하며 특히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 한일·한중관계를 중요시 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은 핵을 가진 강성대국으로 발전시켜 “우리식대로 한다”고 큰 소리치지만 중국의 후원이 없으면 체제가 벌써 붕괴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은 현재 이런 상황에서 현명한 대외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주변 강대국 중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가, 어느 쪽을 우선시해야 하는가를 국내의 개인적, 당파적 정치목적과 연결시켜 결정한다면 외교정책에 큰 비극과 실수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 운명과 민족의 미래를 결정할 외교정책을 한 지도자나 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을 때의 파멸적 결과는 이미 16세기와 19세기 후반 조선왕조의 경험에 보여준다. 한국의 인기 드라마 ‘징비록’에서 보여준 것처럼 일본의 한반도 침략 가능성을 동인과 서인 파벌로 자기 파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결국 방위준비도 못하고 임진왜란을 당한 것이다. 19세기 후반에도 갑신정변의 참극을 경험한 것도 마찬가지로 당파싸움의 결과였다.

현재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국회에서 싸움질만 해대니 인간의 역사 지식은 짧은 것 같다. 북한은 물론 경제나 재래식 전투력에서는 남한에 훨씬 뒤떨어져 있으나 핵과 미사일, 잠수함의 핵탄두 장치 등을 위시해 남한을 불바다와 아비규환을 만들 수 있

다. 이런 위험상황에서도 한국의 정치 판도는 보수파와 진보파로 나누어져 대북정책과 국제화의 외교노선에서도 서로 정반대의 정책들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진보파로 자칭하는 정치가들은 자주외교를 주장하며 종속적인 한미동맹 관계를 탈피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21세기 가장 큰 대국이 될 중국과 더 친밀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런 정책을 택했으며 소위 ‘등거리 외교’로 중국과 미국관계에 있어 우리가 조정자가 돼야 하며 미국을 멀리 하고 중국과 더 친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민족주의 정서는 어떻게 보면 애국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극단으로 나가게 되면 폐쇄주의와 현실을 파악 못하는 실 패 외교정책을 형성할 수 있다.

미국이 패권주의를 정책으로 사용함으로써 중국과 더 많은 외교통상을 증진시키는 것이 자주외교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물론 중국과 외교통상을 증진시켜야 하며 그곳으로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공부하러 가는 것은 환영하나 중국을 미래의 후원국으로 추정해서는 안된다.

중국은 등소평 이후 경제면에서

“한국은 중국 정치와 경제에 배울 것이 많지 않다. 단 한가지 모택동의 교훈은 ‘인접한 국가(중국은 소련)는 친해져도 멀리 있는 적보다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실천하고 있으나 정치면에서는 아직 비민주적 공산당에 의한 독재통치 체제다. 현재 중국은 세계 두번째 경제대국이 됐지만 아직도 미 국가 총생산의 2분의 1밖에 지나지 못한 다. 시진핑 주석도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보다는 더욱 확실한 경제분배와 많은 은행들의 투명성없는 과도한 채무가 중국경제에 큰 문제라고 인정했다. 중국의 만연한 부패는 중국의 지도자들까지도 걱정하고 있는 상태다.

▶중국을 미래 후원국으로 추정하는 것은 위험 = 물론 미국과 중국사이에 막연히 미국을 후원국으로 추종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크게 성공적은 아니지만 아직도 많은 세계국가가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치구조를 모방해 민주정치 체제를 정립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미국 민주주의의 모방은 친미정책이 아니고 미국역사에서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위대한 워싱턴·제퍼슨·링컨·루즈벨트 같은 지도자들의 민주정신을 존경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독립과 자유, 인류의 평등을 주장했다.

중국이 아무리 제일의 경제국이 되더라도 정치적 민주화가 없이는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없다. 홍콩의 많은 중국인, 대만의 중국인도 민주주의를 위해 현



↑워싱턴에서 가진 모임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총리에 대해 중재를 해보려고 했으나(왼쪽 사진) 나중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외면하자 멋적어 하고 있다.

재도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미국과 동맹강화는 필수불가결 = 실리면에서도 미국이 6.25 때 참전해 한국의 존속을 위해 3만8천여 명의 미군이 전사했으며 막대한 원조를 퍼붓지 않았으면 현재 경제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물론 미국이 참전한 것은 공산주의와 소련의 영향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렇더라도 결국 한국이 민주 시민경제를 기반으로 이만큼 살게 됐다는 데 우리는 미국에 credit을 줘야 한다. 또한 북핵위험을 제지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으며 미국의 일본 오키나와와 괌의 군사기지는 한국 안보에 절대중요하다. 따라서 민주발전과 안보, 체제 존속을 위해서도 한국은 민주국가들 특히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하며 또한 민주독립국으로 자주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

자기네 영토였으므로 지배해야 한다고 할지 모른다. 사실 현재 중국은 북한의 거의 80% 정도의 광산 채굴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가까운 이웃을 경계해야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게도 이런 중국의 야망을 일깨워줘야 한다.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 =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보와 전쟁재발을 막는 것인데 위협자는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북한 김정은 체제다. 북한은 현재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핵폭탄 소유국가로 지금도 심심치 않게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다. 또 핵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2천톤 급 잠수함을 2017년까지 제조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러한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뿐인데 중국은 이를 그렇게 위급하게 생각지 않고 미국도 현재 시리아·이라크·이란·우크라이나·ISIS 문제 등으로 북

핵을 급선무로 취급치 않고 있다. 사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폭탄이 미 본토에 쏟아질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보다는 테러리스트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데 더욱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 같고 이제는 핵확산에 더 신경쓰는 것 같다. 결국 핵폭탄은 한국과 일본의 미 군사기지를 겨냥하고 있으며 한국을 불모로 삼아 미국과 협상을 벌이자는 것이다.

미국은 너무 많은 지역에 직접 관여돼 있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동맹국인 한국, 특히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협력과 공조가 미국에 각별히 중요하다. 그러나 북핵 위협을 직접 받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서로 공조보다는 독도와 정신대 문제 등으로 외교관계가 악화일로로 달리고 있다.

▶아베가 일본 전부를 대변치는 않아 = 한일 관계가 악화된 이유는 아베 총리의 책임이 크다. 그는 보수파로 일본 애국심을 고취시켜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신대 강제동원, 한국의 독도 영토권 등을 부인함으로써 일본 보수파 지지를 받고 있다.

극우파 기시 전 총리 외손자로 외할아버지 영향을 받아 청년시절부터 극우파 이념을 가진 것 같다. 기시는 2차대전후 전범자로 국제재판까지 받았다. 아베는

한국인의 60%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는 독도를 일본영토라 주장하며 위안부 강제동원도 사과는 커녕 인정치 않으려고 한다.

이런 일본의 외교정책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미국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됐다. 해방 70년 일본과 국교정상화 50년이 지났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일본 때문에 반일감정이 극도로 고조됐다. 또한 한국인 대다수가 반대했던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박정희 대통령이 성사시켜 야당은 박정희를 일본군에 복무한 친일파로 비난하고 있다. 이런 국면에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과 화해할 수 없으며 한일 양국관계가 개선되려면 일본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제공해야 할 것 같다.

일본은 한국과 영토분쟁 뿐 아니라 중국과 센카쿠 섬, 러시아와 쿠릴열도 분쟁에 싸여 있어 사면초가 상태다. 중국도 주변국가로부터 경계를 받고 있지만 일본도 특히 중국과 센카쿠 문제로 국지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작년 소치 올림픽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에 접근했으나 거절당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센카쿠 문제와 우크라이나 분쟁 때문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5월 7일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2차대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수백조원의 ‘서부노선 가스’ 공급계약을 맺었고 두 사람은 같이 미국을 견제하는데 일치를 보았을 것이다.

일본도 중국 견제를 위해 동아시아의 베트남·캄보디아·말레이시아·태국 등에 경제원조와 무역관계를 증진하고 있으나 그들은 중국의 경제와 군사위협 때문에 감히 적대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현재 군사나 경제적으로 중국견제에 도움될 수 있는 나라는 65만 대군을 가지고 세계에서 국가 총생산력이 14번째인 한국 밖에 없다. 아베는 이 사실을 간파해 한국과 화해해야 한다. 사실 한일관계가 악화돼 있어도 양국이 화해할 수 있는 공동이익과 공통점이 많이 있다.

첫째 양국은 민주주의 체제이며 둘째,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눈부신 경제기적을 일으킨 나라들이다. 셋째, 북핵 위협으로 직접 북한 핵폭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비대칭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북한에 대해 미국처럼 공동방위체제를 구성해야 한다. 항간에서는 김정은이 자신도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북한이 멸망하면 그는 중국이나 러시아로 망명해 일생을 안전하게 살 것이다. <5면에 계속>



제24차 미주 평의원 회의(2015.6.19)

제4회 Brain Network Symposium강연초록

6월 18일부터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미주 평의원회의 중 19일 오전 8시 반부터 제4회 Brain Network Symposium이 열린다. 다음은 이날 강연 내용 초록이다.

미국의 한인사회

유의영(Professor of Emeritus, California State Univ. LA.)

1950년 까지 미국의 한인 인구는 10만을 넘지 못했고 대부분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에 집중돼 있었다. 한인 수는 1970년 6만 9천에서 2013년 180만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가족관계와 기술, 전문학력에 우선권을 주는 1965년부터 시행된 이민개혁법의 결과다.

한인들은 미 전체인구의 0.6%를 차지하고, 아시아계 중 중국인(440만), 필리핀인(360만), 인도인(340만), 베트남인(190만)에 이어 다섯번째로 큰 민족집단이다. 한인들의 학력은 미국의 여러 인종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대도시권의 중심부와 교외지역에 집단주거지역, 쇼핑몰들을 세워 미국의 전형적 도시형태에 참신한 변화를 가하고 있다.

젊은 한인세대 인재들이 정부, 기업, 학계, 과학기술 분야 등 주요직에서 일하는 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고, 빈곤율은 타 민족에 비해 상당히 높다. 한인 사회에 단체들이 많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커뮤니티 구성개인과 단체 사이에는 고도의 다양성과 이질성 그리고 갈등이 존재한다. 한인 커뮤니티에는 대체로 대화와 토론이 부재하며 방향이 뚜렷하지 못하다.

이 글은 커뮤니티 형태와 실체 그리고 그 동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본자료는 미 정부의 이민통계, 센서스,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자료, 로스앤젤레스에서의 필자의 연구경험과 관찰로 구성된다.***

이 글은 커뮤니티 형태와 실체 그리고 그 동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본자료는 미 정부의 이민통계, 센서스,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자료, 로스앤젤레스에서의 필자의 연구경험과 관찰로 구성된다.***

한미 경제관계

이상협(Professor of Hawaii)

이 글은 해방 후 미 군정기부터 시작된 한미 경제관계가 한국의 경제발전과 어떻게 연관됐는가를 살펴본다. 미 군정하에서 귀속농지와 귀속기업체가 처리된데 이어 미 점령지역 행정구호 원조 프로그램이 실시된 이후 70년 동안 한국과 미국의 경제관계는 시대별로 변해 왔다. 미국이 한국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시기는 미 군정기하의 원조시기부터 한국정부가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한 60년대 초기라는 데 이견이 없는 듯 하다.

물론 한국과 미국의 무역은 그 이후 크게 성장하고 현재로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이 한국경제에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미국의 원조정책의 방향변화, 그리고 한국이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와 맞물려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한 60년대 초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를 보는 시각 중 미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을 중시하는 측면과 국내정책 선택을 더 중시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리고 이 시기 한미 경제관계를 협력관계 또는 갈등관계의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한미 경제관계가 한미 정치 및 군사 관계와 특수하게 맞물려서 전개된데 일부 기인한다.

이 글에서는 미국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정책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다. 즉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과 맞물려 원조정책이 군사원조에서 경제원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무상원조가 줄어들면서 국내에서는 대규모 외자조달을 필요로 한 산업화가 필요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수출을 위주로 한 외향적 산업화의 요구가 대두된 것이 현재의 한국 경제에 미국이 직간접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시기라고 본다.

실제로 경제개발 계획의 초기단계에서 미국과 한국은 많은 정책

현안에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경제개발이 진행되면서 한국의 실제 거시경제 운용은 대부분 미국의 정책운용 원리를 따라 진행되었고, 여기에는 미국에서 공부한 경제학자와 관료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미국은 8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최대 무역시장으로 대두되었고, 이로 인해 한미 경제관계는 정부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에서 크게 진전되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미국의 역할: 해방 70년의 회고

하용출(Professor of Washington)

미국이 한국 민주화에 끼친 영향이 지대했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미국은 건국 초부터 한국의 생존과 안정을 위해 경제·군사·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국 후 1960년까지 미국은 한국을 경제·정치·군사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한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편입으로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민주주의 제도와 이념을 수용했다. 국민 대다수와 경제적 현실이 민주주의의 실천과 멀리 떨어진 상황과 달리 한국내 지성인과 엘리트들은 민주주의를 이상화하고 실현돼야 할 궁극적 목표로 하면서 절대적 가치를 부여했다. 이로써 한국의 현실과 민주주의 이상간 끊임없는 갈등이 시작됐다.

1960-8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권위주의 정권 주도로 한국적 경제개발을 추진하며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유보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원칙 그룹과의 대치와 갈등이 불가피했다. 미국의 딜레마는 경제개발과 이것이 초래하는 궁극적 안정과 민주세력과의 충돌이 가져올 남한의 정치적 불안과 민주세력 지원 사이에서 갈등을 보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국의 관심은 안정에 두어졌다.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화 이행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체제 건설이 보여준 험난한 과정이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이전보다 상당히 축소된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한국식 경제개발이 초래한 한국적 사회의 비민주주의적 과 반민주주의적 유산 속에서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수립하려 노력해 왔다. 미국에 의해

영향받은 초기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이상화는 한국적 현실 속에서 시험을 받게 됐다.

미국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은 물질적 지원보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상에 대한 열정적 신봉을 가져왔으나 결국 구체적인 실행은 한국적 맥락에서 창조해가야 하는 한국인의 몫이 됐다. 한국과 미국은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민주적 체제하에서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안게 됐다. 한국 민주주의는 미국 영향력 하에 이론 세계적 성공사례가 됐고 아시아는 물론 여타 세계 지역에 큰 함의를 던져 주고 있다.***

미국내 한국역사 연구의 현주소

문유미(Professor of Stanford)

북미에서 한국사 연구는 초기에 중국사와 일본사에 부속된 미미한 분야로 시작했으나 지난 30여년간 경제발전, 북핵위기 등의 이슈와 한국정부의 경제적 지원에 힘입어 한국사 전담 교수 및 대학원 프로그램의 숫자 등 양적인 면에서 성장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한국사 연구의 내용과 질, 교수진 충원 및 재충원, 그리고 한국학이 역사학 및 다른 인접 학문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의 면이라는 면에서 분야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진단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단적으로 현재 북미에서 한국 근현대사 전담 교수가 있는 대학은 Harvard Univ., Stanford Univ., Indiana Univ., Univ. of Chicago, Columbia Univ., Univ. of Wisconsin in Madison, UCLA, Univ. of Washington, Rutgers Univ., Univ. of Michigan, UCSD, Univ. of Southern California, Univ. of Hawaii, Univ. of Toronto, Pomona College 등이다.

이 14개 대학 중 8개 대학 교수가 ‘한국전쟁의 기원’을 저술한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학파로 그중 6명이 전후 한국 특히 북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나머지 2명은 식민지사 연구). 이중 식민지사를 연구중인 학자는 필자를 포함, 7개 대학인데 그중 6개 대학 연구자가 ‘식민지 근대성론’의 패러다임 창시자거나 그에 영향받은 연구를 하고 있다. 일제시대를 ‘식민지 근대성론’의 패러다임을 통해 연구하는 학

자들은 현재 한국사 뿐 아니라 일본근대사 연구자 중 다수가 배출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사의 학문적 경향이 미국 사회 내부와 동포자녀들의 교육에 장단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동문들의 검토와 토론을 촉구한다.***

한인동포의 높은 위암 사망률, 우리들이 협력, 해결

박찬형(Professor of Emeritus Sungkyunkwan Univ.)

2014~2015년 발표된 위암진단 5년후 생존률은 미국 29%, 한국은 71.5%다. 다시 말해 위암 환자의 대부분이 미국에서는 사망하고 한국에서는 일본도 그렇듯 살아 남는다. 미국에서는 위암이 희귀병이지만 한국에서는 가장 흔한 치명적 암 중 하나다.

우리 미주동포의 직면 문제는 위암에 걸릴 확률은 한국거주 한국인처럼 높고, 위암에 일단 걸리면 사망률이 한국거주 한국인처럼 낮지 않고 미국 보통 사람같이 높다. 한국거주 한국인의 높은 위암생존율의 원인에 대해 명백한 이유는 대부분이 매년 한 번씩 아무 증세가 없어도 예방차원에서 위내시경을 받는다는 것이다(저소득층에서는 정부의 독촉과 보조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2년에 한번씩 받음).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도 이런 예방차원의 위내시경을 받지 않는다. 이 위내시경으로 대부분의 위암이 근치가능한 초기에 발견된다. 우리도 미국에서 한인동포 모두에게 예방차원의 위내시경이 한국처럼 실시되게 만들어야 한다.

미국에서도 물론 증세가 있으면 진단 위내시경으로 보험이 인정돼 보험에서 비용을 지불하나 이때는 벌써 대부분 암이 진행된 상태라 생존 가능성이 떨어진다. 증세가 없는 상태의 예방 위내시경은 보험인정이 안되므로 현재 평균 \$3,500을 내야 한다. 이는 마치 아무 증세가 없어도 유방 X-ray 검사를 매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최근(2014)에는 흡연자에 한해서만, 폐암의 고위험군이므로, 폐CT촬영을 인정했으므로, 이렇게 고위험군에 한한 보험인정의 선례가 확립됐다. 그리고, 한국인은 위암의 고위험군이다.***

<4면에서 계속>

몇천명이 모인 경기장에서 장성택이나 현영철을 기관포로 총살시키는 자가 자신의 정치생명이 위험하면 핵폭탄도 쓸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과 일본의 가장 가깝고 필요한 동맹자가 미국이라는 것이다. 이런 동아시아 정치여건에서 한국과 일본은 제2의 국교 정상화를 성립시켜야 하며 시진핑은 일본을 고립시키고 한국을 중립으로 하기 위해 ‘Love Call’을 보내고 있다. 일본은 2차대전 때 동맹국이었던 독일의 전후정책을 타산지적으로 배워야 한다. 대전 후 서독 정치

가들은 자신들 과오를 깨달았으며 유대인 학살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도 했다.

2차대전에서 서로 싸웠던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체(European Union)를 성립시켰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은 공립학교에서 같은 역사교과서를 쓰며 2차대전의 참상을 겪지 않도록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반대로 아베는 한국과 중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나 아베가 일본의 전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지금도 많은 지식인들이 아베 정권의 9.3개정안(일본 정규군 설립)을 반대하며 전 수상들 중 고노와 무라야마는

일본의 2차대전 침략,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하였다.

▶한태평양 경제동반자 구성 필요 =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미국·일본의 3국 동맹이 평화와 경제번영을 전제로 더욱 결속 강화돼야 할 것이다. 물론 중국도 미래 중국의 복지향상을 우선해 군사력 증강보다 평화공존과 경제질서를 우선시한다면 동아시아에서 유럽연합과 같은 정치 공동체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이상적 정치 발전은 현재 기대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한국·미국·중국·일본의 장래 4국정립 평화론만이

경제적 번창과 안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신념을 굳혀야 한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시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경제적 야심작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한태평양 경제동반자)설립을 설명하며 한국가입을 권유할 것이다. 한국은 이런 경제공동체에 참여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바란다.

한국·미국·캐나다·베트남·멕시코·일본 등의 12개국이 참가하는 ‘한태평양 경제동반자’가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안정을 가져온다면 서로 싸웠던 유럽이 처음 공동시장(Common Market)설립, 유

럽안보동맹(NATO)을 거쳐 European Union을 성립시킨 것처럼 아시아에서도 Asian연합국이 생겨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현재상태로 동아시아에서의 영토적 분쟁, 패권다툼이 확대되면 결국 강대국간 특히 중국대 일본, 미국의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동아시아에서 두개의 한국, 두개의 중국, 일본과 중국, 일본과 한국,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분쟁 등 2차대전이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 같으니 우려가 크며 한국은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비극을 슬기롭게 회피해야 한다.***

모교 소식



↑ 모교 성낙인 총장(왼쪽에서 세번째)이 프랑스 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일행을 접견하고 있다.

모교, 해외 유명대학들과 교류확대

프랑스 국립대·UAE대·중국 칭화대 등

모교가 보다 global화의 박차를 위한 일환으로 해외 유명대학들과 교류를 본격화 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대와 교류협력 강화** = 성낙인 총장은 지난 4월 27일 François WEIL 프랑스 대학총장협의회 회장과 접견을 갖고 프랑스 주요 대학들과의 교류협력, 학생교환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정중호 국제협력본부 본부장 등이 함께했으며, 이를 통해 모교는 파리 국립대들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장을 역임한 François WEIL 회장은 차관급 인사로 파리 국립대(13개) 전체를 대표하는 회장을 맡고 있다.

▶**UAE대와 국제교류 협력방안 추진** = 성낙인 총장은 지난 5월 18일 국립 UAE대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성낙인 총장은 UAE대 Ali Rashid AL-Noami 부총장단과 접견, 간담회를 갖고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원동력과 국제교류 현황, 협력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양 대학 간 교류협력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UAE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과의 다자간 협력 등 산학 협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UAE대는 1976년 설립된 국립대학으로 9개 단과대학에 천여 명의 교수가 있으며 학부생 1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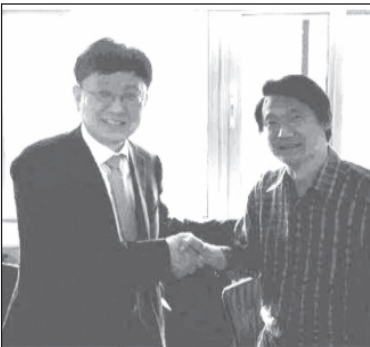
↑ 성낙인 총장이 Ali Rashid AL-Noami 국립 UAE대학 부총장과 기념품을 나누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모교 차상균 빅데이터 연구원장이 필립 유(오른쪽) 칭화대 IDS 원장과

천800여 명, 대학원생 670여 명이 재학 중이다. 고등교육부장관이 총장을 겸직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학 운영은 부총장이 수행하고 있다.

▶**중국 칭화대와 빅데이터 공동 연구·협력** = 모교 빅데이터 연구원은 지난 5월 11일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칭화대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원(IDS)과 빅데이터 분야의 공동 연구, 대학원생 교류, 공동 창업지원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 모두 최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빅데이터 분야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작년 해당 대학의 본부 직할 연구원으로 출범한 바 있다.

이번 MOU를 통해 고성능 플랫폼 분야에 강점을 가진 서울대 빅



협업의 뒤 악수를 나누는 장면.

데이터 연구원과 큰 시장을 기반으로 응용분야에 강점을 가진 칭화대 IDS의 특성을 살린 공동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

또한 미국 빅데이터 분야 선도 대학까지 포함하는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정례화해 궁극적으로 빅데이터 분야에서 공동학위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의 노하우와 미국 실리콘 벨리의 벤처 캐피탈을 연결해 글로벌 창업을 지원하는 협력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모교 빅 데이터 관계인사는 “이번 협약은 한·중 양국 최고 대학의 본부 직속 연구원 사이에 맺어진 협약인 만큼 빅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진흥 분야에서의 정부 차원 협력 창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데일리 뉴스 종합>

학기술사회가 네팔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정수필터를 서울대병원을 통해 긴급 의약품, 의료기 자재와 함께 카트만두 대학병원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는 동계 글로벌 봉사단 활동 등을 통해 네팔 카트만두 대학의 도서관 재건, 연구실 재건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대는 2010년 카트만두 대학과 학생교환 MOU를 체결했으며 현재 13명이 서울대에 재학 중이다. 또한 공과대학 글로벌솔라봉사단을 통해 네팔 산간 오지마을에 에너지 공급을 주도해 왔다. *** <데일리 뉴스>

지진 피해 네팔 대학 재건지원

모교 글로벌사회 공헌단은 지난 4월 말 발생한 네팔 지진과 관련, 서울대 차원의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글로벌사회 공헌단은 일회성 모금운동을 넘어 대학의 사회 책무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활동 방향을 네팔의 대학 재건으로 설정했으며, 초기 긴급구호와 중장기 복구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 30일 오전에는 교수들

이 중심이 된 서울대학교 사회공헌 네트워크 회의를 열었고 오후에는 네팔 유학생회,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외국인학생회, 국제대학원 학생회 등이 모여 활동방안을 협의했다.

총학생회는 네팔 유학생회와 학내 구호물품 수집을 협의하기로 했으며 글로벌사회공헌단과 외국인학생회는 성금 모금을 실시하기로 했다.

초기 긴급구호 1차 활동으로는 글로벌사회공헌단과 국경없는 과



↑ 성낙인 총장(오른쪽)이 주무열 서울대 총학생회장(왼쪽)과 학생회관 식당에서 1천원의 아침식사를 나누고 있다.<사진 모교 제공>

학생식당 아침식사 1,000원

지난 6월 1일 오전 모교 학생회관 식당은 평소와 달리 아침식사를 하려는 학생들로 붐볐다. 1700원이던 아침 식사가 이날부터 1000원으로 할인된다는 소식에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학생이 몰렸기 때문이다. 학생회관 식당에는 하루 평균 280여 명이 아침을 먹는데 이날은 500명 이상이 학생이 식당을 찾아 ‘1000원의 아침식사’를 했다. 모교는 주머니 사정에 아침을 거르는 학생을 줄이겠다며 1700원에 판매하던 학생회관 식당 아침식사를 이날부터 1000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할인 혜택은 서울대 재학생에게만 적용되고, 교수와 교직원 등은 기존대로 1700원, 외부인은 2500원이다.

이날 식단은 평소와 조금 달랐다. 보통 학생회관 아침 식사는 밥과 국, 김치를 포함해 반찬 3종류가 제공되는데 채소 반찬만 나오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이날은 고기 반찬이 등장했다. 국내산 제육볶고기에 상추 썬갓무침, 열무된장국, 국내산 김치와 백반이 식판에 올랐다.

학생회관 식당에서 매일 아침 식사한다는 이은정(공과대학)씨

는 “고시생이라 매일 여기서 아침 먹는데, 오늘은 밥값도 저렴해지고 고기 반찬도 있어 더 맛있다. 아침값을 1000원으로 내려준 학교 배려가 참 고맙다”고 했다. 이지언(경제학부)씨는 “평소 아침을 거르다가 1000원에 먹는다는 소식에 친구와 함께 왔다. 맛은 예전과 다르지는 않은데 후식을 먹을 돈으로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정말 좋다”고 했다. 학생회관 카페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1800원에 팔고 있다.

학생처와 생활협동조합은 올 초부터 ‘1000원의 아침식사’를 추진했다. 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이 높고 특히 생활비가 부족한 학생들이 돈을 아끼려 아침을 거른다는 지적에 의기투합했다. “원가 2100원의 식사를 1700원에 팔며 적자를 감수하고 있지만, 값을 더 내려야 학생들이 아침을 먹으러 온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모교는 이번 할인으로 이용 학생이 두 배 정도 늘어 매년 2억원 정도의 적자가 더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학생처 후생복지 기금으로 메울 예정이다.*** <조선일보>

잇따른 커닝논란에 내부지침

최근 모교에서 중간고사 커닝논란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대학본부가 대책을 내놨다.

모교 대학본부 측은 시험 관리지침을 만들어 현재 강의를 맡고 있는 모든 교수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학 본부 차원에서 커닝과 관련된 지침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침에는 다른 학생의 답안을 대신 작성해주는 것을 막기 위해 답안지를 한 번만 배포하고, 대형 강의 시험을 볼 때는 시험 감독을 복수로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강생 50명당 1명 이상의 조교 또는 대학원생 등 지원 인력을 시험장에 배치해야 한다.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스마트폰·카메라·MP3 등 전자제품도 모두 수거해 별도 보관하도록 했고, 학생들이끼리 커닝을 할 수 없도록 좌석 간 적정 거리를 확보하게 했다.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학생은 즉각 퇴실 조치하고, 교수는 해당 학생을 학칙에 따른 징계 절차에 부쳐야 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험과 성적 부여에 관한 권한은 교수에게 일임해 왔지만, 최근 부정행

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본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교 관계자는 “과거 시험과 관련된 지침은 교수의 재량이었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자 주의사항을 만들어 배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부지침을 마련하게 된 동기는 지난 4월 서울대 철학과 의 한 교양과목 중간고사에선 250명 정원의 강의에서 조교의 감시 소홀로 집단 커닝이 있었다는 의혹을 비롯해 그동안 시험 부정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소문이 제기된 사건의 파장이 원재 컸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학과 전공과목에서 일부 학생이 채점이 끝난 답안지를 고쳐 쓴 뒤 성적을 바꿔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강생 70여 명의 성적이 전부 무효처리됐다. 또 한 교양과목 중간고사에서도 10여 명이 서로 커닝을 하거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강의실 밖으로 나가 스마트폰에 찍어온 교재를 보고 들어와 답안을 작성한 일이 발생해 수강생 250여명의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조선일보>

Owner 기업가 22% 서울대 출신

CXO연구소 239개 그룹 경영자 조사

서울대 총 47명. 상경계열 47% ... 지방대·고졸 출신도 10% 차지

우리나라 owner 기업가 10명 가운데 2명 정도는 서울대를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 전문업체 한국 CXO 연구소(소장 오일선)는 국내 239개 주요 그룹 오너 기업가들의 출신 대학 및 전공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지난 4월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239개 그룹의 총수급 오너 경영자 214명이다. 일부 그룹에는 오너 3~4세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서울대 출신은 총 47명(22.0%)으로 집계됐다. 고려대(27명, 12.6%)와 연세대(26명, 12.1%)가 뒤를 이었다.

서울대 출신 오너 기업인 중 좌장격은 1927년생인 동아쏘시오 강신호 회장이다. 강 회장은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내과학 석사를 거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를 마친 학구파다.

1930년대생 서울대 출신 오너로는 태영 윤세영(행정학·33년생) 회장, 대림 이준용(경제학·38년생) 명예회장 등이고, 1940년대생으로는 일진 허진규(금속공학·40년생) 회장, 대성 김영대(행정학·42년생) 회장, 영원무역 성기하(무역학·47년생) 회장 등이 있다.

1950년대생 중에는 현대중공업



↑ 동아쏘시오 강신호 회장(왼쪽)과



태영 윤세영 회장

정몽준(경제학·51년생) 대주주, 교보생명 신창재(의학·53년생) 회장, 두산 박용만(경영학·55년생) 회장 등이 있다.

1960년대생 이후로는 이수 김상범(경영학·61년생) 회장, 네이버 이해진(컴퓨터공학·67년생) 이사회 의장, 삼성 이재용(동양사학·68년생) 부회장 등이 손꼽히고 있다.

오일선 소장은 “지방대 및 고졸 출신 오너 기업가도 22명으로 조사돼 약 10%를 차지했다”며 “동원 김재철(부산수산대) 회장, 넥센 강병중(동아대) 회장, 하림 김홍국(호원대) 회장, 삼라 마인더스 우오현(광주대) 회장 등은 지방대 출신이면서 직접 회사를 일궈낸 대표적인 창업가”라고 소개했다.

오너 기업인들이 선택한 대학 전공으로는 경영학과 출신이 66명(3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제학(15명)·법학(12명)·행정학(6명) 순으로 조사됐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경영·경제·무역 등 상경계열 출신이 89명으로 46.8%를 차지했고 이공계열이 52명(27.4%), 인문사회(예체능포함) 계열이 49명(25.8%)이다.

전공학과별 현황을 보면 단일 학과로는 고려대 경영학과 출신이 17명(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 경영학과(14명) 출신이 두 번째였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은 서울대 경제학과, 한양대 경영학과와 함께 5명에 그쳤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은 6명이다. ***

<연합뉴스>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선정

지난 3월 13일 관악캠퍼스 호암 교수회관에서 ‘2015학년도 기초

학문 분야 학문 후속세대’ 선정 중서 수여식이 열렸다.



‘2015 예술주간 Art Space@SNU’

모교 서울대가 지난 5월 11일부터 관악 캠퍼스 일대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예술적 역량을 즐겁게 공유하기 위한 ‘2015 예술주간; Art Space@SNU’ 행사를 개최했다.

서울대에서 처음 실시된 이번 예술주간 행사는 학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능기부로 기획됐으며 캠퍼스 곳곳에서 음악 연주와 미술 전시, 연극, 시 낭송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설치·참여미술, 게릴라극, 거리공연 등으로 관객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형 예술행사’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교의 이 행사 관계자는 “5월 봄 축제와 함께 진행돼 학내 문화적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사회는 물론 구성원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일조했을 뿐 아니라,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예술문화 캠퍼스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학내 분위기도 앞으로 더욱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같은 행사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데일리 뉴스>



모교 관악 캠퍼스 안에

치의학대학원 준공, 치과병원 개원

지난 3월 3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치의학 대학원 준공식과 관악 서울대 치과병원 개원식이 열렸다.

치의학 대학원은 지하 2층, 지상 6층에 연면적 1만1570㎡(3506평) 규모로 이번에 동승동 연건

캠퍼스에서 관악캠퍼스로 이전했다.

왼쪽부터 류인철 서울대치과병원장, 유기홍 국회의원, 성낙인 서울대 총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중앙일보>

“세월호 참사 순식간에 정치화”

모교 심포지엄,사고에 대한 성찰없어

지난 5월 7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심포지엄에 참석한 모교 교수들은 “세월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은 이 문제가 정치화됐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놴다. 여러 정치 세력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 쟁점화하는 식으로 이용하면서 정작 참사의 원인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합리적 대안에 대한 고민은 도외시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세월호가 묻고 사회과학이 답하다’는 제목의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자 박종희 교수(정치외교학부)는 “세월호 참사의 정치화 과정은 한국 정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과 파장이 전례없이 컸고 곧이어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가 열리면서 급속히 정치화됐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사고 발생과 구조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정부와 해경이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다이빙벨, 에어포켓, 대통령의 사고 인지시점 등에 대한 음모론이 퍼져나간 것이 참사의 정치화를 부추긴 중요한 사회심리적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원택 교수(정치외교학부)도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 밑에 1년째 있고, 건너편에는 이에 항의하는 보수 단체들이 텐트를 치고 대치하는 모습이 세월호가 얼마나 정치화됐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폐쇄되고 독점화된 정

당정치가 이를 해결하기보다 더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후 두 번의 선거를 분석해봤는데, 세월호가 정치화되었다고 해서 유권자들의 기존 성향이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각 정파가 세월호를 정치 이슈화해 이득을 보려 했지만, 유권자들은 보수·진보가 아닌 국가 전체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는 게 강 교수의 분석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세월호의 ‘탈정치화’를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 대처와 정치체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덕진 교수(사회학과)는 미국 사상 최악의 폭풍 재난으로 불리는 ‘카트리나 사태’를 예로 들며 “미국 의회는 초당적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재난의 정치화를 막았고, 재난 대책법을 제정해 미국의 재난 대처 시스템을 빠르게 개선했다”고 했다.

강원택 교수는 “송진담 문제든 진주의료원 사태든 모든 사건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는 게 우리 정치의 특성”이라면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는 정치를 분권화하고, 독점·폐쇄된 정당정치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규섭 교수(언론정보학과)는 “사고 후 시민사회가 오히려 급속도로 정치화되고 과열되면서 정치화를 촉발시킨 시발점이 됐다”고 본다.***

<조선일보>



6.25 한국전쟁 65주년 기획 <발굴 기사>

한국전쟁에 뛰어든 유일한 여기자 ‘Marguerite Higgins’



조화유(문리대 61) VA
저술가·전 조선일보 기자

또 6월 25일이 돌아왔다. 해마다 이맘 때면 내가 꼭 만나러 가는 여성이 있다. 만나는 장소는 워싱턴의 알링턴 국립묘지(Arlington National Cemetery)로 만나는 여성은 Marguerite Higgins다. 1966년 45세로 이 세상을 떠난 예쁘고 당찬 여자. 그녀는 한국전쟁을 취재한 300여명의 외국 중군기자 중 유일한 여성이었다.

▶**이브닝 드레스보다 전투복이 더 잘 어울리는 여자** = 한국전쟁 발발 64주년을 앞둔 지난 해 6월 21일 나는 Higgins의 비석 앞에서 그녀의 명복을 또 빌었다.

내가 Higgins에게 처음 관심을 가진 것은 1967년 풋내기 조선일보 기자 시절 ‘대사건과 대기자’라는 책을 쓰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을 때였다. 이 책은 언론인들의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풀리처상(Pulitzer Prize)을 받은 기자들과 그들의 대표적 기사들을 모은 것인데, 나는 이 책에서 Higgins의 간단한 약력과 그녀의 대표적 기사인 인천상륙작전 중군기를 번역해 실었다.

Higgins는 북한이 남침하기 나흘 전인 1950년 6월 21일 The New York Herald Tribune의 도쿄 특파원으로 부임했다. 당시 30세였으나 LIFE지 사진기자 칼 마이던스가 찍은 사진은 여대생 정도의 귀여운 금발 아가씨로 보였다. 미군 전투복에 전투모를 눌러쓴 그녀는 과연 ‘이브닝 드레스보다 전투복이 더 어울리는 여자’라는 말을 들을만큼 매력적이었다.

Higgins는 1920년 아일랜드계 미국인 국제무역인파 프랑스 여성을 부모로 홍콩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어머니 모국 프랑스에서 중학생까지 교육받았기에 12세까지는 영어보다 프랑스어를 더 잘했고, 중국어에도 능숙했다.

1930년대 초 그녀는 아버지의 고향 캘리포니아로 건너가 고등학교와 대학(UC버클리)을 다녔다. 대학졸업 후 잠시 캘리포니아의 한 지방도시 신문기자로 일하다 뉴욕으로 옮겨가 컬럼비아 대학의 유명한 저널리즘 대학원 석사과정에 등록했다.

재학 중 당시 뉴욕 타임즈의 경쟁지였던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캠퍼스 통신원으로 일하다 석사학위 취득과 동시에 정식기자로 채용됐다. 그 때가 마침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라 신문사는 1944년 프랑스어에 능통한 그녀를 유럽 특파원으로 보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미군이 프랑스를 해방하고 독일은

항해 진격할 때 중군기자로 처음 따라나서 미군사령부가 브리핑해주는 전황을 받아쓰는 데 만족하지 않고 최전방을 병사들과 함께 뛰면서 기사를 썼다.

▶**독일군 준장 여기자에게 항복 백기** = 1945년 봄 독일이 항복하기 직전 그녀는 미군 신문 The Stars & Stripes의 기자인 미군상사(남자) 한 명과 Jeep를 몰고 독일 남부 다카우 유대인 수용소에 미군보다 먼저 도달했다. 수용소장(독일군 준장)은 그 두 기자를 미군 선발대로 오인해 백기를 들고 나와 항복하려고 했다. 이 일화는 미 언론계의 전설이 됐다.

세계대전이 끝난 후 Higgins는 뉴욕 여기자 클럽으로부터 최우수 해외특파원상을 받았고 1948년 베를린 공수작전(소련이 베를린을 봉쇄하자 미군이 베를린 시민들에게 생필품을 비행기로 공수한 사건)을 취재했다.

1949년 중국에 마오쩌둥(모택동)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신문사는 중국어에 능통한 그녀를 아시아에 파견키로 결정, 1950년 30세로 도쿄 특파원 겸 지국장에

→1950년 10월 2일자 LIFE 지에 실린 Higgins 모습. 지난 해 6월 21일 Higgins의 작은 묘비석 뒤에 서서.

미군들은 후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행히 서울은 아직 적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았다. 기자들은 지프 한 대를 얻어 비가 내리는 김포가도를 달려 서울로 진입했다. 도로는 피난민 물결로 가득찼다. 등에 어린애를 업고 머리에 보파리를 인 아낙네들을 Higgins는 처음 보았다.

서울 시내에 들어가 한국 육군 본부와 미 군사고문단이 함께 쓰고 있는 건물에 도착하니 스티어링 라이트 대령이 초조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았다.

▶**한강다리 폭파 때 NYT와 TIME 기자도 부상** =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본국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군사고문단장 대리 중이었던 라이트 대령도 일본서 휴가 중 전생소식을 듣고 서울로 급히온 직후였다.

Higgins 등 미 기자들은 마침 그들 앞을 지나가던 채병덕 소장(한국 육군참모총장)을 만났다. 채소장은 “사태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장담하



바로 그 트럭 앞에서 다리가 폭파되면서 트럭이 우리를 막아주어 우리는 부상만 당하고 목숨은 건졌다”고 나중에 타임에 썼다.

폭파 당시 인도교에서 약간 떨어져 있던 Higgins 일행은 무사했으나 한강을 건널 수는 없었다. 북한군은 서울로 진격해오는데 퇴로가 차단당한 한국군과 미 군사고문단원들, 피난민들은 어떻게든 한강을 건너려고 백사장으로 몰려갔다.

날이 밝자 한강에 나룻배들이 보여 그들은 나룻배들을 타고 강을 건넜다. Higgins는 라이트 대령 일행을 따라 수원 쪽으로 걸어갔다. 비가 와서 진창이 된 논길과 산길을 몇 시간 걸어 수원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수원비행장에 갔을 때 Higgins는 활주로 끝에서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장군의 전선시찰 기사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 광경을 목격한 장군은 그녀에게 다가가 “도쿄에 갈테면 내 비행기를 타도 좋다”고 호의를 베풀었다. 그렇잖아도 송고를 위해 일본으로 가야 했던 그녀는 너무나 기뻐했다.

비행기에 오르자 장군을 수행해온 AP, UP, INS, Reuters 등 통신사 도쿄 지국장들이 Higgins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맥아더 장군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들 4명의 지국장 뿐이었는데, 젊은 기자, 그것도 여성인 Higgins가 장군 전용기에 오르자 놀랄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그들은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데, 그것은 그녀가 비행기 안에서 장군과 단독 회견한 것이 뉴욕 헤럴드 트리뷴에 특종 보도되었기 때문이었다.

Higgins는 감히 장군과 회견할 생각도 못하고 비행기를 얻어 탄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고 있었는데, 장군의 측근 참모인 휘트니 소장이 그녀에게 먼저 “장군께서 지금 혼자 계시니 인터뷰할 생각이 있으면 들어가 보시오”라고 귀띔해줘서 단독회견이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70세였던 관록의 노장 맥아더도 30세 미모의 여기자 Higgins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었는지 모른다. 이 단독 인터뷰에서 장군은 “도쿄에 도착하는 즉시 트루먼 대통령에게 지상군 파견을 건의할 생각이나 대통령이 내 건의를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도쿄 도착 즉시 Higgins는 단독 회견기사를 뉴욕 본사로 송고, scoop 했다. 동료 특파원 호머 비가트가 그녀를 더욱 시기하게 된 것은 물론이다. 비가트의 끈질긴 불평에도 불구하고 뉴욕 헤럴드 트리뷴은 Higgins의 한국전쟁 중군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두 기사를 경쟁시킴으로써 더 좋은 기사를 얻어 보도하려고 했다.

6월 30일 Higgins는 다시 수원으로 갔는데 탄약 수송기에 편승했다. 수원비행장에 내리자 무뚝뚝하게 생긴 미군 대령 하나가 “아가씨, 일본으로 돌아가시오. 여기는 위험해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Higgins는 “I wouldn’t be here if there were no trouble. Trouble is news, and the gathering of news is my job!” (위험한 사태가 없으면 나는 여기 오지도 않을 것이요. 위험한 사태는 곧 뉴스며, 뉴스 취재는 나의 임무입니다!)라고 대꾸했다. <9면에 계속>

“한강철교 폭파당시 약간 떨어져 있던 Higgins는 무사했으나 강을 건널 수 없었다. 퇴로가 막힌 한국군과 미군사고문단, 피난민들은 백사장으로 몰려갔다”

임명됐다. 그녀가 일본에 도착한 지 나흘 만인 6월 25일 새벽 한국전쟁이 터졌다.

6월 27일 Higgins는 일본 주재 미국 언론사 특파원 3명(뉴욕 타임즈의 버튼 크레인, 시카고 데일리 뉴스의 키즈 비취, 타임(주간지)의 후랭크 기브니 등 모두 남성)과 함께 미군 수송기를 타고 김포비행장에 왔다. 이 비행기는 서울에 사는 미국 민간인들을 일본으로 대피시키기 위한 특별기였다. 남자 기자들은 Higgins에게 한국전선은 위험하니 일본에 남아 있으라고 권했으나 그녀는 듣지 않았다.

▶**여자도 훌륭한 중군기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 = 뉴욕 헤럴드 트리뷴은 여기자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 태평양 전쟁 중군기자로 명성을 떨친 호머 비가트를 추가로 파견했다.

그런데 이 비가트가 Higgins를 몹시 싫어했다. 같은 신문사 기자,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여자와 경쟁해야 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그는 Higgins가 일본에 가 있지 않으면 본사에도 그녀의 파면을 권고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했으나 그녀는 막무가내였다. 그녀는 나중에 출판한 ‘War in Korea’라는 책에서 ‘나는 여자도 훌륭한 중군기자가 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결심했다’고 썼다.

Higgins 등 4명의 미 기자들이 6월 27일 오후 김포비행장에 내렸을 때 미군 수송기가 북한 야크기의 공습을 받아 불타고 있었고

며 급히 사무실로 뛰어들어갔다.

그날 밤 기자들은 군사고문단 본부 건물 안에서 잠을 청했다. 남자 셋은 한 방에서 자고 Higgins만 사무실 구석 군용침대 위에 옷을 입은 채 누웠다. 이 때만 해도 푸른색 스커트와 꽃무늬가 있는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막 잠이 들려는데 미군 장교 한 명이 혈레벌떡 뛰어와 “일어나시오! 후퇴 명령이요!”하고 소리쳤다. Higgins는 군사고문단장 대리 라이트 대령 일행과 함께 한강인도교 쪽으로 지프를 몰았다. 다른 3명의 기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여름비는 추적추적 계속 내리고 있었다. 한강 인도교로 향하는 피난민과 군인들로 도로는 꽉 찼다.

28일 새벽 2시 반쯤 그들이 한강 인도교 바로 앞에 이르렀을 때 고막을 찢는 듯한 폭음과 함께 오렌지색 불길의 하늘로 치솟았다. Higgins 일행은 적기의 폭격이나 간첩에 의한 인도교 폭발로 생각했다.

그러나 적의 남진을 막기 위해 한국군 공병대가 인도교를 예고 없이 폭파해 버린 것이었다. 다리를 건너던 수많은 군인과 피난민이 죽거나 다친 것은 물론이다. Higgins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녀 일행보다 앞서 가던 세 기자 중 두 명 - 뉴욕 타임즈의 버튼 크레인 특파원과 타임의 후랭크 기브니 특파원 - 은 부상을 당했다. 기브니 기자는 “우리가 탄 지프 바로 앞에 한국군을 잔뜩 태운 트럭이 있었는데,

농대(미군사고문단 임시본부로 쓰고 있었음)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른 세 기자들을 만났다. 두 명은 피묻은 붕대를 머리에 감고 있었는데 한강 인도교 폭파 때 구사일생한 크레인 기자와 기브니 기자였다.

Higgins는 한강 인도교 폭파에 관한 기사를 썼으나 국제전화가 불가능해 뉴욕으로 보낼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뉴욕 타임스의 크레인, 시카고 데일리 뉴스의 키즈 비취 등 두 명의 남자 특파원들과 함께 기사 송고를 위해 미군기를 얻어타고 도쿄로 갔다. 일본에 도착해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운이 좋았음을 알았다. 28일 아침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에게 프랑스의 AFP통신 특파원과 프랑스 대사관, 영국 대사관 직원들이 붙잡힌 사실을 들었던 것이다. 뉴욕 헤럴드 트리뷴 본사로 첫 기사를 보낸 Higgins는 다음 날 29일 다시 한국으로 갔다.

▶**맥아더 장군과 단독회견** = 같은 날 태평양 지역 미군 총사령관인 5성 장군 Douglas MacArthur 원수도 도쿄로부터 수원으로 날아왔다. 맥아더 장군은 수원에서 지프를 타고 흑석동 고갯마루까지 다가가 한강과 서울을 내려다 보며 반격 구상을 했다.

수원으로 되돌아간 장군은 임시수도 대전에서 온 이승만 대통령과 만나 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수원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도중 북한 야크기의 추격을 받고 하마터면 추락할 뻔했다.

29일 오후 늦게 맥아더 장군이

6.25 한국전쟁 65주년 기획 <사부곡(思父曲)>

나의 아버지 ‘서승표’



서안희(간호대 63) AL

6.25 한국전쟁 당시 나는 6살의 막내딸이었다. 저녁이면 “안자(집에서 부르던 이름)야. 자니? 안 자니?” 하고 험관 밖이 떠들썩하게 아버지와 친구분들이 내 이름을 부르시며 집으로 오시곤 하였다. 방에 앉으신 후에는 의례 아버지가 막내딸인 나를 친구분들이 계신 방으로 불러들이신다. “와서 아버지 친구분들한테 인사해라” 고 하셨다.

▶40에 든 막내딸 사랑 = 엄마가 때로는 곱게 한복을 입혀주시기도 했는데 나는 의례 아버지와 친구분들이 계신 방으로 가서 절을 하곤 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친구분들한테 “남의 귀한 딸한테 절 받았으면 돈을 내야지” 하셨다. 그러면 친구분들은 주머니를 뒤져거려 돈을 꺼내 내 손에 쥐어 주셨다. 돌아가며 돈을 주시니 두 손 가득 돈을 안고는 엄마와 언니가 음식준비에 분주한 부엌으로 간다.

엄마가, 어느 때는 언니가 돈을 가득 안고 들어서는 나에게 놀란 얼굴로 다가와 “너 엄마한테 이 돈 맡겨. 나중에 크면 줄게” 하거나 “언니가 맡았다가 너 크면 줄게” 하며 받아갔다.

세월이 흘러 6살 여아는 머리가 센 모습이 됐어도 기억하고 있으

나 6.25 후 얼마나 언니나 나 또한 누구도 그에 대해 언급해본 적이 없다. 6.25로 순식간에 집안의 기둥인 아버지가 납치돼 북으로 끌려가셨고 서울대 2년생이던 큰 오빠가 징집되어 전사한 우리 집이 ‘Upside down’ 되는 엄청난 참변을 겪었으니...

40에 든 막내 딸이어서인지 아버지는 나를 유별리 사랑하셨다. 일요일 아침이면 엄마 방에서 자고 난 나를 부르서 이불 속에서도 나를 껴안고 불을 부비셨다. 수염이 자란 아버지 뺨이 거칠어 이리저리 뺨을 돌리곤 했다. 아버지는 누우신 채 나를 무릎에 앉히고 “뜨들쿵, 뜨들쿵” 하고 무릎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며 다

“6.25 그해 8월 16일 장충동 집으로 총을 멘 인민군 3명이 찾아와 아버지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며 3일 후면 돌아오신다고 말한 후 아버지를 모시고 가버렸다”

리 목마를 태워주셨다. 그리고는 “우리 안자 학교 들어가면 무얼 해줄까? 빨간 란드셀(가방)에, 빨간 구두, 빨간 오바 해줄게” 하고 말씀하시곤 했다. 내가 피난지 대전에서 자양국민학교에 입학하자 엄마는 몇 번이나 “학교 들어가면 빨간 가방, 빨간 구두 해주신다고 그렇게나 말씀하시더니...” 하고 말을 잊지 못하셨다. 피난 가서 결혼해 부산 사는 언니가 친절을 때 내게 선물로 당시 미군이 쓰던 담요를 자주색으로 염색해 만든 뽕빵 달린 빨간 바지를 사 왔다. 그 바지가 예뻐 나는 자랑스럽게 입고 국민학교에 입학했다.

아버지는 나를 “우리 낙랑공주” 하고 부르셨다. 아버지에게는 낙랑공주가 가장 예쁜 공주였던 듯 하다. 어린 내가 너무 귀여웠는지 “자라지 말고 그냥 이대로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기도 했다.

엄마 말씀이 다른 형제들한테는 안하시던 언행도 내게는 하셨다 한다. 밥상서 굴비도 내 입에 넣어 주셨고 친구들과 술좌석에서 맛있는 안주를 주머니에 넣고 오셔서 나 주라고 하시어 엄마가 놀라기도 하셨다. 밥상에서 작은 나의 뺨 밥그릇에 물을 부어 마시라 하셨는데 내가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자 “왜 그러니?” 하시기에 “밥그릇 속이 깜깜해서 무섭다” 고 하니 바로 납작한 국그릇을 밥그릇으로 바꿔 주셨다.

내가 무서움을 많이 타는 것이 염려되었는지 무서움 털 타라고 이조시대 은으로 칠보장식 호랑이 발톱으로 만든 노리개를 내 목에 걸어 주셨다. 살면서 미지



장충동 주택서 살던 당시 나(왼쪽), 오른쪽은 부친 모습이다.

상을 보시고 아버지가 보석반지, 팔찌, 목걸이를 사주시겠다고 하셨다. 엄마가 어린애한테 비싼 것을 사주는데 극구 반대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못 사주시게 어린 마음에도 꽤 섭섭했는지 60여년이 넘어도 여전한 마음인 듯



보냈다. 아버지는 장남으로 할머니가 마침 셋째 아들 집에 가서 어머니께 인사도 안하고 떠날 수 없고 또 어린 우리들을 엄마한테만 맡기고 갈 수 없다고 차를 돌려 보냈다.

정부가 한 달이면 다시 수복된다며 안심하라고 한 방송으로 사태를 가볍게 여기셨는지 그 결정이 우리 식구들에게 천추의 한이 될 줄 꿈에도 상상했으랴. 아버지는 약해 보이는 어린 막내딸이 영양부족이 될까 염려돼 젖염소 한 마리를 갖고 오셨다. 빌치근한 염소 젖을 마신 기억이 있다.

6.25 그 해 8월 16일 피난 안간 장충동 우리 집으로 총을 멘 인민군 3명이 찾아왔다. 인민군 사무실 가서 아버지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며 3일 후면 돌아오신다고 엄마에게 말한 후 가족앨범을 모두 갖고 아버지를 모시고 가버렸다. 나는 집 앞 모래더미에서 두꺼비 집을 지으며 총을 멘 인민군이 아버지를 호위해 장충동 신작로 길을 내려가 왼쪽으로 꺾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다. <10면에 계속>

<8면에서 계속>
▶워커 장군이 싫어해 전선서 쫓겨나기도 = 미8군 사령관 Walton Walker 중장은 미군이 여성용 화장실과 침실을 따로 만들어줄 만큼 여유가 없으므로 여성 중군기자는 사양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히긴스는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대우를 해달라고 요청한 일도 없고 요청할 생각도 없다. 나는 옷을 입은 채 아무데서나 자며, 개천에서 목욕을 하고 덩불 숲 뒤에서 불 일을 본다. 다행히 한국에는 덩불숲이 많아 좋다” 고 응수했다.

그러나 그녀는 대구의 8군 사령부로 워커 장군을 만나러 갔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강제로 미군수송기에 실려 일본으로 추방되었다. 히긴스와 그녀의 소속 신문사는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강력하게 항의했고, 그녀와 개인적으로 친해진 장군은 그녀의 한국전선 중군을 허락했다.

워커 장군이 히긴스를 한 때나마 추방했던 진짜 이유는 그녀가 7월 5일의 오산 죽미령 전투(미군 선발대 400여 명이 북한군과 가진 최초의 접전)에 직접 참가, 미군의 참담한 패배 모습을 생생하게 보도했기 때문이다.

워커 장군은 ‘히긴스의 지나치게 상세한 보도가 일종의 이적행

위이며, 미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 라며 그녀를 싫어했다.

그는 또 히긴스가 여성이므로 혹시 전투 중 포로가 되거나 죽으면, 그녀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미군이 뒤집어쓸까봐 염려했다. 그러나 히긴스의 중군 취재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죽미령 전투 때부터 여성복장을 벗어 던지고 미군 사병과 똑같은 복장을 했다(신발만은 군화 대신 운동화를 신었다). 그녀는 어깨까지 덮였던 긴 금발머리를 짧게 깎아 전투모 속으로 밀어넣었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 그녀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화장도 거의 하지 않고 립스틱만 입술에 살짝 발랐다. 립스틱을 잃어버릴 때는 그나마 바르지 못했다. 전선의 먼지와 연기, 그리고 장마철 한국의 진흙이 된 그녀의 얼굴은 그래도 매력적이었다. 한 미군 일선 지휘관은 “히긴스는 화장품보다 먼지와 진흙이 더 어울리는 매력적인 여자” 라고 말했다.

히긴스는 최전방 미군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미모도 미모지만 남자 뺨치는 그녀의 담력에 GI(미군)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당시 서른 살이던 그녀는 스무 살 전후의 사병들에겐 누나

같은 존재였다. 사병들은 전선에서 아름다운 들꽃을 보면 그것을 꺾어 그녀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8월 초 대구 근방 낙동강 전선에서 미27 보병연대가 북한군과 4시간 동안 혈투를 벌인 일이 있었다. 이 때 히긴스는 날아오는 총탄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생병 역할을 자청, 부상병들에게 수혈을 해주었다. 그녀는 이 전투를 보도하면서 “위생병들이 많은 부상병들을 들것에 실어 날랐다. 한 중군기자는 수혈하는 방법을 즉석에서 배워 위생병들을 도왔다” 고 썼다.

그러자 27연대장 마이켈리스 대령(나중에 주한 미군사령관 취임)은 뉴욕 헤랄드 트리뷴 신문에 보낸 독자투고에서 “우리 연대 전투를 보도한 히긴스 기자의 기사에는 중요한 게 하나 빠졌다. 그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상병들에게 수혈을 해주었다.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으면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히긴스 기자의 그날 행동은 가히 영웅적이었다” 고 썼다.

▶인천상륙, 장진호 후퇴에도 중군...폴리처상 받아 = 히긴스는 9월 15일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가했다. 그녀는 해병들과 함께 상륙정을 타고 인천 해안에

상륙했다. 이 때의 체험을 그대로 써서 보도한 것이 이듬해(1951년) 그녀가 국제보도 부문 폴리처상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해병 30명과 기자 2명이 탄 우리의 상륙정이 방파제에 부딪혔다. 적의 소총 탄환은 계속해서 날아와 우리 주위에 물을 뿜겼다. 우리는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배를 방파제 삼아 한동안 엎드려 있다가 방파제에 뚫린 큰 구멍으로 들어갔다” 라고 썼다. 이 와중에 한 해병이 실수로 그녀를 군화발로 밟고 넘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 해병이 내가 여자임을 알아보고 당혹해하던 모습이란...” 이라고 썼다.

히긴스는 함경남도 장진호 지역으로부터 중공군에 밀려 후퇴하는 미 해병들도 중군 취재하는 등 항상 최전방 전선을 누볐다. 그리고 그녀가 써보낸 생생한 기사들은 당시 뉴욕 타임즈의 경쟁지였던 뉴욕 헤랄드 트리뷴 지면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그녀는 1951년 폴리처상을 받았고, 같은 해 앞서 인용한 ‘War in Korea’란 책도 출판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히긴스는 미국으로 돌아가 10년 더 뉴욕 헤랄드 트리뷴 기자로 활약했다. 이혼난인 공군 장성과 결혼

도 했다.

그녀는 1963년 뉴욕의 일간 신문 Newsday로 자리를 옮기고 베트남 전쟁이 시작될 무렵인 1965년 초 인도차이나 반도 취재를 떠난다. 월남에서 그녀는 고든디엔 월남 대통령 암살 배후에 미국 CIA가 있다고 폭로하는 기사를 써서 미국 정부의 미움을 사기도 했다.

그녀는 1965년 말 라오스에서 취재 중 급성 풍토병(기생충에 의해 발병)에 걸려 귀국,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1966년 1월, 45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녀의 유해는 워싱턴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혔다. 군인이 아니었지만 중군기자로 활약한 업적을 고려해 국립묘지 안장이 허용된 것 같다.

월센 나중에 죽은 남편(윌리엄 호울 공군 중장)도 먼저 간 아내와 함께 한 평도 될까 말까한 작은 땅에 합장되어 있다. 작은 묘비 한쪽에는 남편의 계급, 생년월일과 사망 연월일이 새겨져 있고, 다른 쪽에는 히긴스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 연월일 그리고 His Wife라는 글 외에 그녀의 화려한 언론인 경력은 한 마디도 없다. 미국에서는 사회적 평판이 높은 사람일수록 비석은 더 검소한 것 같다. ***

<9면에서 계속>

왜 나는 바라보고만 있었지? 아버지! 하며 아버지 팔에 왜 매달리지 못했을까, 하는 회한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질책케 한다.

언니가 뜨개질 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하겠다고 열심히 뜨개질로 4cm 가량 높이의 허리띠를 짜다 마음에 안 들어 풀고 다시 짜기를 몇 번 반복하다 드디어 처음으로 내가 긴 허리띠를 짰다. 아버지가 보시고 한복 바지 허리띠로 하셨다. 아버지는 내가 처음 짠 뜨개질 허리띠를 하시고 끌려가셨다. 여름철 집에서 입고 계시던 한복차림 그대로였다.

아버지가 납치되고 며칠 뒤 아버지 꿈을 꾸었는데 엄마와 언니가 들고 절박한 얼굴로 다가와 “그래, 무슨 꿈을 꾸었니? 아버지가 언제 돌아 오시겠다고 하디?” 하고 묻고 또 물으셨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오시겠다고 꿈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3일 후인지, 석달 후인지, 3년 후인지 기억이 아리송 했다. 그런 내가 답답해서 “3일이니? 아니면 3주 후라고 하셨니? 석달 후라고 하시던?” 하고 절박하게 묻던 엄마와 언니를 보며 또렷치 못한 기억을 안타까워 했다. 친진한 시절 아버지가 유달리 예뻐하시던 때라 내게 알려주셨을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프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듯 하다.

▶**만석 집안의 아들** = 아버지는 논산 만석꾼 집안서 태어나셨다. 남양 홍씨인 할머니는 서울서 높은 벼슬 대갓집 딸로 19세 때 논산 부농의 아들인 14세의 우리 할아버지와 혼인하셨다.

결혼 후 장남인 아버지를 두셨고 서울 대갓집서 자란 할머니는 음식이며 각종 솜씨가 좋고 예의범절이 발라 시아버지인 증조 할아버지가 무척 아끼셨다 한다.

충청시하 대가족에서 아버지 형제가 자라니 훈장님을 들어 공부하는 데 모셔오는 훈장마다 열마안 가르치고 떠나고 하여 이유를 물으니 아버지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친다” 하며 더 가르칠 것이 없다고 떠났다는 것이다 서울로 와서 아버지는 배재학당에 다니셨는데 17세에 동갑 처녀인 엄마와 결혼하셨다. 엄마는 이조 말기 벼슬하다 당쟁에 지쳐 정감록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한 대전서 유성으로 가고 유성서 더 들어간 학하리로 낙향한 선비 집안으로 논산의 육곡리에 사는 신랑감인 아버지와 관상가를 대동해서 선을 보았다 한다.

배재학당 다니시던 아버지는 일본의 히메지 고등학교로 유학하셨다. 그리고는 번잡한 도시 동경대보다 고도인 교토(京都)가 더 마음에 든다고 교토대(당시 경도 제국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셨다. 당시 고등고시의 사법과 행정 양 과에 모두 합격해 주위서 보기도문 천재로 알려졌다.

장충공원 부근의 집을 수리할 때 대한중석 회사 돈을 조금 쓰셨다는 이유로 청렴하신 아버지는 대한중석 사택으로 만드셨다고 한다. 몇년 전 한국방문시 외사촌 오빠가 우리가 살던 장충동집 동네가 당시 서울서 제일 잘사는 재무장관 그런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다고 일러주었다.

정전 후 아버지가 그 집을 사택으로 하셨다고 해서 엄마는 확인

도 않고 살던 살림이 가득한 그 집으로 우리는 돌아가지 않았다. 한국 살 때 나는 그 집이 그리워 반드시 찾아 다시 그 집에서 살아야지, 하고 마음먹었다.

아버지 친구분들도 납치돼 북으로 끌려가던 중 탈출해 돌아오셔서 엄마에게 아버지 소식을 알려주신 분도 있었다. 그 분 말씀이 북으로 끌려가던 중 인민군 사무실서 아버지를 얼핏 보았는데 책상 앞에 인민군과 마주 앉아 계셨고 인민군이 아버지 앞에 종이를 놓고 서명하라고 재촉하는 데 아버지는 두 눈을 꼭 감고 묵묵부답으로 앉아 계셨다 한다. 혹시 아버지가 눈을 뜨셔서 바라보면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눈짓을 하려는데 요지부동 꼼짝 않고 계셔서 안타깝게도 기회를 못 잡았다고 했다.

아버지는 납치되시고 큰 오빠는 전사하니 엄마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에 세상을 끝내고 싶은 생각도 여러 번 들었으나 어린 우리, 특히 내가 천애의 고아가 될 것을 생각해 참으셨다고 한다.

아버지 친구분들은 당시 한국의 저명인사들이었다. 기억에 남는 분들 중 금광을 하시며 내가 신의주서 태어났다고 평안도서 얻은 딸이라 나만 돌림 자에 무관하게 이름을 ‘안희’라고 지어주셨다는 계광순씨, 주석군씨, 국방부 장관을 하셨던 현석호씨, 문화방송 사장하셨고 나의 결혼에 주례 서주셨던 이흥배 변호사, 이서구 이해구씨 형제, 우리 주치의였던 이민구씨 등이다.

둘째 후식 오빠 결혼식에 아버지 친구 주석군씨가 축사를 하시던 중 친구생각에 감정이 북받쳐 울먹이시며 우리 아버지가 계셨으면 지금 한국이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 하시며 눈물을 닦으시는 데 후식 오빠도 눈물을 닦으며 사진에 찍힌 것도 있다.

▶**엄마의 평생 소원과 한** = 항상 엄마 옆에서 자던 나는 어느 날 밤중 잠이 깨 보니 엄마가 돌아누워 소리죽여 울고 계셨다. 이런 모습을 처음 본 나는 깜짝 놀라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하고 당황해 물었다. 엄마는 진정하시며 “아냐. 괜찮아” 하셨다. 얼마나 아버지와 큰 오빠를 가슴 아프게 보고 싶어 하시는지 깨닫고 마음이 무척 아팠다.

양복을 맞춰놓고 아버지가 납치돼 가신 후 엄마는 찾아놓은 새 양복을 피난 통에도 어떻게든 잘 보관하셨다. 아버지 오시면 바로 입으실수 있게 봄, 가을 밖에 내다 걸고 하셨다. 그러다 어느 때인가 후식 오빠에게 주셨다. 얇은 모직의 새 내복은 간직하셨다가 내가 결혼하니 막내 사위에게 주셔서 눈 오는 테네시주에서 살 때 잘 입었다. 간자 은수저도 잘 닦아놓고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준비해놓고 돌아오실 날만 고대하셨다.

엄마는 한 여자로, 아내로서 더 없는 사랑과 존경으로 아버지를 대하셨다. 아버지에 대한 애정은 아버지 옷 바느질 하실 때 사용하는 실도 중간에 끊어 쓰지 않고 항상 긴 실을 사용해 끊어짐 없이 함으로 아버지의 장수를 기원하셨다.

아버지가 일본유학 시절 방학에 집에 오실 때 엄마의 빨간 내복을 사오시기도 했다. 그 충충시하의 대가족 집안서 빨랫줄에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



제영혜(가정대 71) CA
남가주 동창회 전 회장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한 마디 ‘통일은 대박이다’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 한 걸음 성큼 다가간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통일에 대해 생각하게 된 건 사실이다.

대한민국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화 된 세계 속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동참하려면 통일은 필수조건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정부가 추구하는 비핵화 원칙 아래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발표한 이 시점에 과연 통일을 하기 위한 우리 여성의 역할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유사이래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 놓긴 했지만 정부의 핵심 인력이나 국회의원 중에 뛰어난 여성 인재를 찾아 볼수가 없음이 아쉽다.

더우기 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온지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렇다할만한 여

성위원을 찾아 볼 수 없는 형편이다.

21세기 여성시대를 사는 우리 여성들의 자질 향상은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고 발전시켜가야만 할 과제인 것이다. 막연하게 ‘통일이 언젠가는 오겠지’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하고 남북 상황을 이해하고, ‘통일의 주체는 바로 나’라고 인지하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는 여성 지도자를 많이 발굴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치게 해야 한다. 관련위원회에도 여성 전문가와 여성 단체가 통일 준비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정부가 내세우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펴 나가기 위한 우리 여성들의 역할인데, 적극적인 대북정책이란 바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통일기반을 다지는 것이므로, 이런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통일 이후 남북화합의 과정에서 우리 여성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가 않을 것 같다.

여성단체 끼리의 남북교류를 시작으로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한껏 포용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궂줄이고 남북 함께 한반도의 발전을 위한다는 같은 목표를 향한다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속에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분단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자매를 위하여 통일을 향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우리 여성들의 헌신, 노력,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 준비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자원인 탈북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우리 여성들의 힘이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약 2만 8천여 명의 탈북민이 남한에 거주하고 있고 이는 북한 전체 인구의 0.1% 정도로 탈북인들의 이해는 곧 북한주민의 이해하는 첩경이다. 탈북민 지원 정책의 성공은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개혁과 북한주민을 이해하기 위한 예행 연습임에 틀림없다.

최근 입국하는 탈북인들의 70%가 여성이고, 아동 청소년 비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탈북 여성들의 취업 및 자산형성 지원, 육아문제 해결 및 아동 청소년의 진로, 진학 문제등 우리 여성들의 가족관리 능력을 십분 발휘해야 할 분야다.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넉넉한 품으로 이들을 지원하여 안정되게 우리 사회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여성의 몫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위해 우리 여성들은 살림만 잘하는 살림꾼에서 벗어나 통일꾼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여성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부정적이다. 21세기 여성시대를 사는 우리 여성들의 역할 책임이 막중하다. 통일의 주역인 여성의식이 깨어나야만 한다. 통일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천해 최선을 다하는 통일꾼이 돼야 한다. 통일 대박론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화 되는 그 날을 향해 우리 여성 모두 통일꾼이 되자. ***

빨간 내복이 걸리면 선망과 질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아버지가 일본유학을 하시니 당시 같은 유학생 여자와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인지 대가족 살림에 용하게도 시집 어른의 허락을 받아 엄마는 지금의 덕성여고를 졸업하셨다.

엄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17세에 아버지 만나서 납치되시던 46세까지 근 30년을 그렇게 뜨겁게, 강하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사셨으니까 그러면 됐어요. 그 길고 긴 세월을 원수같이 여기며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뜨겁게 살아보셨으면 됐어요” 했더니 엄마는 재미있게 들으시며 행복하게 웃으셨다.

엄마가 내게 거듭 말씀하신 아버지에 대한 평생 소원은 “꼭 한 번만이라도 내가 너희 아버지없이 어떻게 살아왔나, 너희 아버지에게 이야기 하면 원이 없겠다”고 하셨다. 만일 아버지가 생존하셔서 이북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셨다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셨다. 자식이나, 친척이나 그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고 힘들게 살아오신 ‘한’이 얼마나 쌓였으면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에 나이가 들수록 더 아프게 마음에 파고든다.

여학교 시절 한 번은 이북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모두 강당에 모여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그가 강연을 끝내며 이북에 관해서나 자기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찾아

오라고 주소를 주어 친구와 같이 안국동의 한 건물에서 만났다. 아버지 성함을 말하고 6.25 때 납치당하셨다. 혹시 소식을 아느냐고 물으니 별 성의없이 우리 아버지 성함을 잘 안다며 아버지가 이북의 큰 출판사 사장으로 잘 계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태도와 분위기에서 진실성이 없어 보여 믿어지지 않았으나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이야기 해드렸다. 미국서 살며 한국 이산가족의 극적인 상봉뉴스와 소식을 듣기도 하였다. 2001년 서울서 남북자 가족회원으로 계시던 후식오빠가 남북자 가족회 웹페이지에 들어가 우연히 자료실에 있는 북한 총람중 남북자 명단을 보았는데 뜻밖에 아버지의 합자를 보고 내게 알려왔다. 1950년 6.25 당시 납치되신 후 1956년 7월까지 평양 교화소(감옥) 분소에 구금돼 계시다가 7월경 평북 수풍발전소 근처로 강제이주한 노동자로 기록돼 있었다.

그렇게도 40년을 하루같이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시던 엄마는 이미 세상에 안계시나 아버지가 그래도 6.25 정전 후 6년까지는 생존하셨다는 소식이었다. 아버지 성품이 강직해 과연 살아서 평양까지 가셨을까 의문스럽게 말하던 어른들의 말씀을 들었다.

이곳에 6.25 때 혼자 남하한 한국인 교수가 있었다. 이북에 있는 식구들이 보고싶어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이북을 왕래했다. 한 번은 그 분이 방북할 때 아버

지 소식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 다녀와서 이야기가 목고 있던 숙소 안내원에게 말했는데 떠날 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 한다.

▶**제발 소식이라도** = 이제는 한국이 부강하고 국력이 강해져 세계 여러 6.25 참전 용사들을 찾아다니며 감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항상 마음 한 편은 먼 곳 남의 나라 사람도 찾아다니며 감사하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할까. 어쩌서 6.25 당시 납치당한 인사들은 반세기가 넘도록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생사라도 알려주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 백성이 잡혀가면 생환을 위해 노력하고 이뤄내는 것을 뉴스로 보고 있지 않은가.

40년을 하루같이 아버지를 그리워 하며 기다리시던 엄마와 언니와 오빠들도 모두 가셨다. 남은 사람은 가장 어렸고 가장 약해 살아 남을까 우려했던 나만이 남아 있다. 나는 아버지가 곁에 없이 자랐어도 비범하셨던 아버지 딸임을 항상 인식하고 자부심을 갖고 자랐다. 지금 미국에서도 내가 사는 날까지 그렇게 살 것이다. 적어도 내 생애만은 아버지가 북으로 끌려가시어 어디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혹시 가정을 다시 이루셨는지, 어느 곳에 묻히셨는지 알고 싶다. 내 생애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적어보았다.***

6.25 한국전쟁 65주년 기획 <참전 체험기>

6.25 한국전쟁과 나



이중희(공대 53) CA

▶공대 1년 때 6.25 =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나는 그때 만 18세의 공대 1학년생이었다. 한국군이 창설된지 3년도 채 안됐고 일요일이라 모든 군인들은 휴가 아니면 외출을 나갔던 때였다. 난데없이 광화문 네거리와 종로 일대 상공에 나타난 인민군의 공습!

인민군 비행기는 거리의 주민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감행했다. 따따따따, 하는 소리, 갑작스러운 인민군 공습에 죽어가는 거리의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그런데도 인민군의 남침이 아니라 한국군의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

당시 광화문 네거리에는 땅콩, 바나나, 봉어빵 등을 파는 리어가 장사가 많았는데, 갑작스런 인민군의 공습 기관총 소리,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리어가 장사 좌판이 넘어가고 공습을 피하느라 길바닥에 엎드리는 사람들을 때문에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도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길바닥에 무조건 엎드렸다.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의 걸어서 피난갔다. 배고픔을 참으며 피난 보따리를 지고 걸어서 도착했는데 ‘칠성방직’이란 회사가 있었다. 부산에 도착한 미군이 전선으로 이동하는 도중 하루 밤을 쉬어가는 장소였다.

우연히 그 사실을 알고 칠성방직을 무작정 찾아갔다. 혹시 미군들이 먹다 버린 음식찌꺼기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다. 몇몇 미군들에게 말을 붙여 영어를 좀 할 줄 안다고 하니까 신기한 듯이 나를 쳐다봤다. 그들은 나를 바로 통역원으로 채용, 부산에서 뽑은 한국인 사병(카투사) 및 노무자들과 의사소통을 위해 내게 통역을 맡겼다.

당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때였다. 내가 다녔던 중학교(6년제)는 특수한 학교로 1년에 단 100명씩만 입학시켰고 저학년 때부터 영어를 가르쳤다.

▶가짜 미군 중위 계급장 = 미군 제7사단 31연대를 따라 최전방에 가니 하루에도 수십 명, 어떤 날은 수백명이 눈앞에서 전사했다. 전쟁터라 민간인 나에게도 무장시켰고, 한국인 카투사와 노무자들을 상대하기 쉽도록 내게 미군 중위 계급장을 달아주며 나를 “루테넌트”라고 불렀다.

나는 어린 나이로 눈앞에 다가오는 적에게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떨리고 무섭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적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되어 갔다. 복직하면서 혹독한 추위로 얼어

죽는 미군이 많았고, 너무 추울 때는 빈 초가집에 불을 질러 몸을 녹이곤 한 적도 있다.

▶다시 한국군 포병장교 = 나는 정식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싫으면 그만 둘 수 있었다. 추위와 공포에 적과 싸우며 3~4개월 지났을 때 미군을 떠나 다시 대구로 돌아왔다. 마침 한국군에서 포병장교를 모집하기에 군에 들어가 간부 후보생 교육을 마치고 포병 소위가 됐다. 장교는 20세가 넘어야 한다는 소문에 나이를 두 살 속여 입대했다.

보병 장교 교육은 갑종간부 19기였고 포병 장교 과정은 23기였다. 전쟁이 격화돼 한국군과 미군이 무더기로 죽어갈 때라 임관 후 휴가도 없이 최전방으로 실려 갔다. 수도사단 제10 야전포병대 전방 관측장교가 되어 간 곳에서는 인민군과 불과 50~10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매일 계속되었다.

당시 나 같은 군인에 대해 ‘소모품 소위’라 불렀다. 전방에 가면 거의 죽으니까 붙인 이름이었다. 쌓안경 속에 들어오는 적을 섬멸하기 위해 “사격준비! 적탱크! 좌로 20, 더하기 50, 대대 10발”이라고 외치면 아군의 105

는 ‘철의 삼각지’라 불리던 ‘금화’라는 산 속에 있었다. 내가 있던 참호 속에는 보병 중대장인 권 대위와 그의 연락병 그리고 나와 관측병인 권 하사 이렇게 4명이 있었다.

적의 포탄이 우박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 발이 참호를 부수고 ‘캉’ 소리를 내며 터졌다. 권 대위와 연락병은 즉사하고 권 하사는 파편에 피를 흘리며 나를 향해 “이 소위님! 나 좀...” 하며 신음했다. 참호 밖에서 이북말의 적군 목소리가 들려왔다.

얼마 후 조용해진 것으로 보아 아군은 전멸한 것 같았다. 권 하사는 나보다 몇 살 위로 몸집도 컸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배가 너무 고파 죽은 중대장 근처를 더듬어 보았으나 아무 것도 없었다. 시체들 속에서 죽은 적 하마도망칠 궁리를 했다. 짙은 안개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손목에 찬 나침반을 보며 불쌍한 권 하사를 둔 채 포복으로 빠져 나왔다. 찢어진 군복으로 포복했으니 몸에서 피가 흘렀다.

일어서서 남쪽으로 마구 달리다 어느 골짜기에서 미끄러 떨어졌다. 정신을 차려 보니 우리 군 소위 한 명이 다리에 부상을 당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나 좀...” 하며 눈을 감았다.

▶간호장교와 약속 = 죽어가는 권 하사를 참호 속에 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렸다. 사경을 벗어난 처지에서 그 소위를 그냥 두

“적탄에 맞아 죽어가는 전우, 같이 고생하던 부하가 죽고 혼자 살아남았을 때는 빗발치는 적탄 앞에 철모를 벗어두고 ‘나도 죽여라!’ 하고 외치며 일어서기도 했다”

밀리 포가 180발의 포탄을 퍼부었다. “명중! 대대 10발”을 10번 반복하자 자그마치 1천800발의 포탄이 적진을 융단포격했다. 어느 때는 하루 종일 포를 쏘면 포신이 열에 의해 구부러지기도 했다. 적도 우리에게 포격을 가하기는 매한가지였다.

나는 19세의 최전방 전투장교였다. 나무가 우거진 산에서 하루만 포격전을 하고 나면 산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는가 하면 포위된 상태에서 밤새도록 싸우면 산이 시체로 덮이기도 했다. 적의 포격으로 전화기와 무전기 SCR 536도 파괴되면 남은 것은 펜티가 보이는 찢어지고 피투성이 군복과 총알에 관통된 구멍난 철모, 몇발의 총알과 몇 개 수류탄이 가슴에 걸려있을 뿐이었다.

죽먹밥이나 배달이 안되면 아무 것이나 뜯어먹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달 정도면 먹는 물도 없었고 얼굴은 흙과 불에 탄 채 때문에 눈만 반짝이는 검둥이가 되곤 했다. 적탄에 맞아 고통을 거리며 죽어가는 전우, 같이 고생하던 부하가 죽고 혼자 살아남았을 때는 빗발치는 적탄 앞에 철모를 벗어두고 “나도 죽여라!” 하고 외치며 일어서기도 했다. 달이 밝은 날은 철모가 반사하여 목표물이 될까봐 흙에다 오줌을 섞어 바르기도 했다.

▶시체들 속에서 숨죽여 = 어느 날 우리 수도사단 전체가 중공군과 인민군에게 완전 포위돼 거의 전멸상태에 이르렀다. 그 때 나

고갈 수 없었다. 며칠간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나는 피를 흘리는 전우를 어떻게 살리나 궁리했다. 나는 권총벨트를 그의 어깨에 걸치고 사력을 다해 그를 끌었다. 얼마를 가니 먼지나는 자동차길에 후퇴하는 아군차량을 정리하는 현병이 눈에 띄었다. 나와 그 소위는 현병 근처까지 겨우 다가갔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어이, 현병...” 하고 최후의 큰 소리를 내고는 혼수상태로 빠져들고 말았다.

얼마 후 정신을 차려 보니 나는 야전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내가 해낸 것은 목적의식을 갖고 사력을 다한 정신력의 극치 때문일 것이다. 야전병원에서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것은 나를 정성껏 간호해준 간호장교 홍진동(?) 소위였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여 서로 집주소를 적어 교환하고 헤어졌다.

그후 홍 소위는 어떻게 됐을까. 어딘가 살아 있을까. 죽었을까.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 중 한 명이다. 나는 다리가 잘린 것도 아니고 타박상이었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재편성되는 우리 부대로 돌아갔다. 그때 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들을 위로하러 왔다.

나는 권 하사를 그냥 두고 혼자 도망친 것이 63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권 하사는 거기서 그대로 전사한 것일까. 아니면 인민군의 도움으

동문 시 감상

喜悅(희열)

少樹 김택수(의대 57)



半白 아내의 다홍치마
날 십구세 총각으로 만들어 주고

꽃향기 품은 술술 봄바람
半白의 아내 십팔세 처녀로 만들어 주네

둘이서 끌어안고 두동실 춤을 춘다
부끄러워 서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어찌 더 좋을 수 있을소나
아...아...어찌 더 좋을 수 있을소나

*미주 동창회 우수 작품상 모집
시 부문 우수상 수상 동문

로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까?

재편성된 부대에서 나는 탄약장교를 맡게 됐는데 적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척 위험한 직책이었다. 18문의 아군 105밀리 대포가 하루에도 수천발의 포탄을 쏘아대는데 그 포탄공급을 하는 일이었다. 수십대의

으로 전시연합대학과 서울공대에 복학, 1957년 졸업 후 한국조폐공사에 들어갔다. 군 최종 계급은 포병대위였다. 고국을 위한 애국심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재무부와 한국은행과의 협력기관이었다. 전쟁 후 조폐공사에서는 조폐지, 전매청의 쉼터지, 그리고 체신부의 우표용지를 직접 만들기 위해 미국 New York의 ‘Sandy Hill Iron Works’ 기술이전을 요청해 그 회사 엔지니어들을 초청, 대전에서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모든 기계도면, 조폐지, 쉼터지, 우표용지의 제조방법 등이 모두 영문인데 당시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미국 엔지니어들과 언어소통이 어려워 기계 설치와 제조방법 등을 배울 수가 없었다. 소위 뺨으로 들어온 간부들인 계장, 과장, 공장장 그리고 담당 이사란 자들은 거의 다 병역기피자였다. 영어편지의 아래와 위도 구분 못하는 일자 무식쟁이들이었다.

조폐공사 대전공장에서 미국 엔지니어들과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은 나와 지동범이라는 친구 둘 뿐이었다. 그러니 지동범과 나는 미국 엔지니어들과 소통하면서 산더미같이 쌓인 설계도면과 조폐지, 쉼터지, 우표용지의 제조방법을 공부해가며 기능공들에게 가르쳤다.

하지만 나와 지동범에게 부여된 직위는 ‘기사’도 아닌 ‘기수보조’라는 직공에 불과했다. 그뒤 조폐지, 쉼터지, 우표용지 생산에 성공했고 미국 엔지니어들은 미국으로 돌아갔다.

나는 소위 간부라는 사람들에게 조폐공사의 잘못된 조직을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상부에서 내려온 결과는 나를 ‘병역기피자’로 몰아 파면시킨 것이었다. 집으로 날아온 편지에는 ‘의원 면직’으로 돼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 나를 제거한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거대한 부정부패와 싸울 힘이 없었다. 한국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

동문 및 동문단체 동정(일부 중앙·한국일보 인용)

안호영(외교 75) 주미대사

미공군전투사령관에 ‘보국훈장 통일장’ 수여

안호영(외교 75·사진 왼쪽) 주미대사가 지난 5월 12일 한국대사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미공군 전투사령관인 허버트 칼라일 대장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

안호영 대사는 이날 “칼라일 대장은 태평양 공군 사령관 재임 동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같은 훈장을 받

게 됐다”고 밝혔다. 칼라일 대장은 “한국 정부로부터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게 돼 대단히 큰 영광이다. 태평양 공군 사령관 재임 시절 한미 공군의 긴밀한 협조 및 완벽한 작전태세를 목격했다”며 “앞으로도 한미 동맹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우리 고국 정부가 주는 보국훈장은 우리 고국의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차임경(가정대 77) 동문
스미소니언 ‘한국의 날’ 참관

2015년 5월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Freer and Sackler Galleries, the Smithsonian’s Museums of Asian Art 에서 한국의 날(Korea Day: A Family Festival)이 열렸다.

한국 연(薦) 만들기, 한국관 탐방, 제기차기 배우기, 한국요리 체험, 한국무용 공연 및 한국영화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많은 가족들이 어린이를 동반하여 한국의 멋과 문화를 감상하고 함께 즐기는 시간이었다.

한국 연 만들기는 봄 계절의 주제로 다양한 색깔의 방패연을 한 가족이 하나씩 만들었는데, 줄을 길게 서야지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한국상설전시관에는 고려시대 상감청자(象嵌靑瓷)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사계절을 나타내는 매병(梅瓶), 흔히 볼 수 없는 양식으로 음양(陰陽)이 거꾸로 되도록 만들어진 물병, 불교 문화에서 유래한 물통, 상감장식의 연적(硯滴)과 뚜껑이 있는 용기들로 가득했다. 안내자도 있었지만, 방문자가 직접 상세한 해설을 볼 수 있도록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었다.

한국요리 체험에는 불고기, 잡채, 김밥과 김치 등의 전통적이면서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맛 볼 수 있어서, 많은 방문자가 참여하여 시식(試食)을 하였다. 처음으로 한국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이 ‘맛있다’고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말하는 것들을 수 있었다.

조리사인 장재옥씨의 책 사인회도 볼 수 있었다.

평화 한국 무용단체의 공연은 청소년들의 힘찬 복춤(윗 사진)으로 시작해서, 어린이들의 춤, 소녀들의 화려한 부채춤(아랫사진), 성숙한 여인들의 부채춤으로 이어진 후 독무(獨舞)로 절정을 이루어 큰 박수를 받았다.

Meier Auditorium 에서는 소녀모습의 한국 인공위성이 지구로 떨어지면서 한 소년과 사랑하게 되는 ‘일호와 께소’라는 제목의 만화영화가 상영되었다.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이 관람하는 것이 보였다. 이 날은 스미소니언 2015년 DC.한국영화제(Smithsonian’s 2015 Korean Film Festival DC)의 시작으로, 한국영화제는 6월 25일까지 스미소니언(Smithsonia)과 미국 영화연구



소(AFI)에서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Freer and Sackler Galleries, the Smithsonian’s Museums of Asian Art가 주관하고, Korea Foundation, Dr. Y. Yoon, Prof. K. Nehring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It is good to be a Korean today!” ***

<글·사진 = 차임경>



↑김경애 동문이 한지 바탕지에 작품을 작업 중이다. 김 동문은 10여년 전부터 한지를 이용해 손으로 바탕지를 만들고 그 위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그렸다.

했으며 3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한수웅(의대 55) 박사 신간 출간

‘오페라 작곡가들의 생애와 작품’

필라델피아에 거주 중인 한수웅(의대 55·사진) 박사가 ‘오페라 작곡가들의 생애와 작품’을 신간출판하였다.



이 신간은 opera에 대한 해설서로 760 page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모두 2부로 구성되어있는데, 1부에서는 opera 작곡가들을 연대별로 나열하여 작곡가별로 작품을 해설하고 있다. 2부는 ‘opera의 변천사’로 opera의 발전 과정을 시대별, 국가별, 지역별로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한수웅 박사의 부인인 한혜원(의대 55) 박사도 지난 2010년에 오페라 해설서로 ‘오페라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에 이은 증보판을 출간한 바 있다.



이 두 서적은 opera를 즐기는, 또 opera에 입문을 원하는 동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오랜 준비와 집필기간을 거쳐 나온 신간출판인 만큼 동문 모두가 축하해주기 바라고 있다.

‘오페라 작곡가들의 생애와 작품’ 한수웅 지음, 김진호 그림으로 서적의 가격은 4만6천원이다. 이 서적을 펴낸 곳은 (주)여백미디어 ISBN:978-89-5866-233-4(03670) ***

제12대 동창회 동창회보 서윤석(의대 62) 편집위원
‘미주 의과대 동창회장’에 선임



제12대 미주 동창회의 동창회보 서윤석(의대 62)편집위원이 미주 의과대학 동창회의 신임 회장으로 선임돼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북미주의 회원 1천2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는 미주 의과대 동창회는 그동안 서인석(의대 73) 회장이 맡아 동창회를 운영해 왔다.***

이태상(문리대 55)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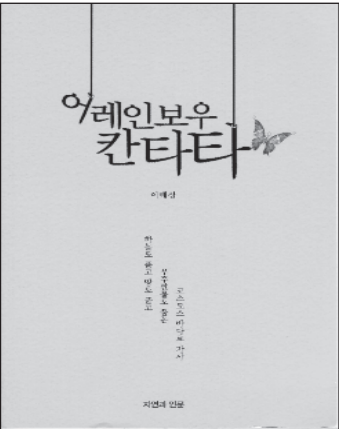
‘어레인보우 칸타타’ 출간



이태상(문리대 55) 동문이 ‘어레인보우 칸타타’를 출간했다.

‘어레인보우 칸타타’는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근원적인 키워드인 ‘마음’을 통해 자기 감정의 노예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자기 감정의 주인으로 사는 지혜를 주지시켜준다.

작가의 따뜻한 펜 끝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만드는 무지개의 노래를 타고 내면으로의 여행을 떠나게 된다. 때론 회초리 같은 문장으로 때론 물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초단편 속에 들어 있는 작가의 사상과 지혜는 무기력한 삶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단비 같은 활력소를 주며 긍정의 아이콘으로 거듭나게 해 준다. 바늘귀 같은 마음에서 우주 같



은 마음으로 혁명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우주인 코스모스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이 책은 힘을 쫓 뺐다. 그래서 단박하고 지혜롭다. 작가의 내공이 느껴진다.

작가는 “ ‘마음과 마음 사이에 무지개를 놓다’는 뜻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세상,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닌 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 이런 현실에 있어서 통설로 여겨지는 불편한 진실들을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에 비추어 과감하고 통쾌하게 풀어냈다”고 한다. ‘자연과 인문 출판. 값 1만3천원. ***

김경애(미대 83) 동문 작품 전시회

Hanji Meets California Nature

김경애(미대 83) 동문이 지난 5월 2-15일 LA의 리앤리 갤러리에서 작품 전시회를 가졌다.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3년 전 미국에 온 김 동문은 LA에서 처음 갖는 이번 개인전에서 전통 한지에 캘리포니아의 자연을 담은 회화 35점을 소개했다.

한국화를 전공한 김 작가는 캔버스 천 위에 한지층을 덧붙여 만든 ‘한지 캔버스’를 스스로 제작,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한지 캔버스’에 대한 특허도 갖고 있다.

김 동문은 “젓소 칠이 된 견고한 캔버스 위에 한지 원료를 얇게 펴고 건조한 후 2-3회 표면막 처리하여 그 위에 그림을 그리면 변색되거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

고 표면에 불특정 요철무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기존의 한지 혹은 캔버스와 다른 질감을 표현해 독특한 느낌의 작품을 창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보인 작품들은 이같은 한지 캔버스에 목탄이나 펜 드로잉과 함께 아크릴, 오일 등을 사용해 밝고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의 사막, 선인장, 자슈아 트리와 팜 트리 등을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들이다.

김 동문은 “한지 캔버스의 여백은 과감하게 생략된 공간 등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나 관념의 틀을 깨고 자유롭게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대 동양화과를 졸업한 김 동문은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의

MD 원코리아 재단 류재풍(법대 60)대표 장남 류상호 통일노래 캠페인에 100만달러 기부

한국의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추진 중인 ‘새 시대 통일의 노래’ 캠페인에 메릴랜드의 류재풍(법대 61·윗사진) 로올라대 명예교수의 아들이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 캠페인 범국민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류 명예교수 장남 마커스 류(한국명 류상호·아랫사진)씨는 최근 새 통일 노래 보급에 써달라며 100만 달러를 선뜻 기부했다. 마커스 류씨의 통 큰 기부는 아버지 류재풍 교수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마커스 류씨는 프린스턴대를 마치고 영국정부 마샬 스칼라십으로 영국 옥스퍼드대 유학을 다녀왔으며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켄지에서 컨설턴트로 일했다. 그 후 보험회사 알리바의 전략 부사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실리콘밸리에서 Guidewire라는 소프트웨어 회사 CEO로 재직 중이다. 류재풍 명예교수는 “제가 네 살 때 월남한 실향민이라 아들도 북한과 통일문제에 관심이 많고 많은 책도 읽었다. 지난 2월 한국 가는 길에 들른 LA 공항에서 서울 가는 아들을 만나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기부 제안을

했는데 선뜻 응해줬다” 고 기부 사연을 밝혔다. 류 명예교수는 로올라대에서 교수로 42년간 후진을 양성하다 은퇴했으며 현재는 One Korea Foundation 대표를 맡아 한반도 평화 통일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류 교수는 “우리 조상들은 힘이 없어 나라를 빼앗기고 분단됐지만 이제 조국은 부강한 나라가 된 만큼 북한을 통일의 길로 이끌어내야 한다. 통일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들이 즐겁게 흥얼거릴 수 있는 새 통일노래 보급 취지에 공감해 기부를 권하게 됐다” 고 말했다. 새 시대 통일의 노래 캠페인은 1947년 발표된 ‘우리의 소원’ 이후 민간 주도로는 68년만에 처음으로 통일염원 노래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유명 작곡가 김형석이 작곡, 김이나가 작사했으며 K팝 스타일로 만든다. 음악감독 박칼린은 김형석과 공동 총괄 디렉터를 맡았다. 국내 최정상 가수 33인은 한반도 통일의 열망을 담아 부른다. 이 노래는 8월 공개되며 9월 19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도 열 계획이다.



특히 8월경 위싱턴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새 통일의 노래 부르기 캠페인이 열릴 예정이다.***

파리대 사회과학대학원 한국학 연구소장)와 함께 한 방 화백은 한국 추상화 제 1세대로 ‘빛의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여고와 모교 미대 졸업 후 1961년 프랑스로 건너가 한국과 프랑스에 기반을 두고 활동 중이다. 70대 후반의 방 화백은 “8세 무렵 내가 나고 자란 서울 능동 아차산 부근 호수에 비친 밝은 빛을 본 이후 빛에 매료됐다. 이후 마음의 빛, 내면의 빛을 찾는 작업에 천착해왔다”며 “결국 예술도, 삶도 ‘마음의 소리’를 듣는 깨우침에 다르기 위한 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 화백은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는 것”임을 강조했다.***

재불화가 방혜자(미대 57) 화백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초대전

워싱턴 한국문화원(원장 최병구)에서 지난 5월 8일 서양화가 방혜자(미대 57) 화백 초대전이 개막됐다. ‘빛의 춤(Dance of Light)’을 타이틀로 5월 25일(월)까지 계속된 개인전에서 방 화백은 한지와 무직포에 흙, 광물성 천연안료 및 식물성 염료 등 다양한 재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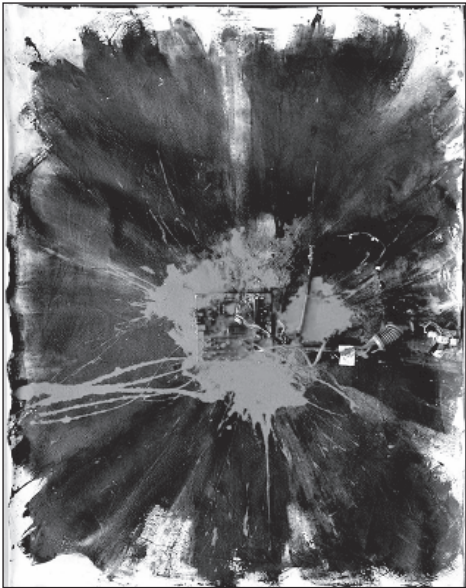


사용한 ‘빛의 춤’ ‘마음의 빛’ ‘통일의 빛’ 등 70여 점을 공개했다. 남편 알렉스 기유모스 교수(전

김봉중(미대 서양화과 84) 동문 Museum of Contemporary Art of Crete에서 개인전

김봉중(미대 서양화 84) 동문의 개인전이 그리스의 고대 유적지인 Crete의 Museum of Contemporary Art of Crete에서 4월 8일 개막해 10월 10일까지 열린다. 김봉중 동문은 이번 전시회 작품에서 사이버 중독으로 오는 현상에 대한 그의 관심을 표현했다. 인터넷 중독 장애(IAD)는 이 시대의 흔한 욕구절제를 두고 말한다. 따라서 김 작가의 인터넷 중독 장애(IAD)를 향한 관심은 집중적으로 예술성을 두고 연구함으로 생긴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인터넷으로 다소 정보도 얻고, 스트레스를 풀지만 작가의 그림을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중독되었다. 인터넷 게임, 쇼핑, 사이버섹스 등에 몰두함으로 개인과 가정에

해로운 경제적 문제, 저출산, 상호관계 문제를 가져왔다. 현재 세계엔 내재된 분권화와 더불어 가정 파괴, 그리고 인터넷이 지원하는 나날이 바뀌는 정보와 오락 등으로 IAD가 생기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그리고 다른 여러 기계들에 쉽게 닿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려한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가상의 세계로 도망치려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러 좋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김 작가의 회화는 가상의 세계



에서 나와 오프라인 세상문화에 참여하고, 체험하고, 남겨지도록 도와준다. 그의 작품은 인지행동치료처럼 우리가 공간 속에 길 잃듯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에서 편안함을 찾고, 실제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평이다.***

남가주의 나민주(음대 67) 원로 목사 가스펠 교회에서 클라리넷 독주회



40대에 대장암 수술, 2012년 재발 3분의 1 절제...3년 반만에 감격적 복귀 “나에게 주신 음악적 재능 아픈 뒤 축복임을 깨달아”

“암 수술 받은 뒤 음악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실감했다.” 클라리넷 연주자로 널리 알려진 나민주 원로목사(음대 67 성서장로교회)가 지난 5월 9일 가든그로브의 남가주 가스펠교회에서 8번째 독주회를 가졌다. 이 연주회는 그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대장암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해 마련한 독주회이기 때문이다. 40대에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던 그는 2012년 재발해 다시 대장의 3분의 2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나목사는 모교 음대 기악과를 나와 제10회 동아콩쿠르에 입상했고 제22회 조선일보 신인음악회에 출연했다. 강원대 강단에서 후진을 양성했고 고려 교향악단 클라리넷 연주자로 활동했다.

1979년 도미 후 퍼시픽 크리스천 대학원에서 교회음악과 클라리넷을 전공했다. 이후 목회학 석사, 박사 학위 취득 후 가디나의 성서장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20여 년 시무하며 연주활동을 병행했다. 벨플라워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클라리넷 수석연주자로도 활동했고 중국 문화부 초청 클라리넷 4중주단의 일원으로 베이징, 선양, 칭다오 등 음대에서 연주회를 가진 바 있다. 현재 나목사는 한인 아카데미 목관 5중주팀에서 클라리넷 주자를 맡고 있다. 또 어쿠스틱 기타, 베이스 기타 연주자와 함께 어쿠스틱 트리오도 결성, 색소폰과 클라리넷 연주를 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3차례, 미국에서 4차례 독주회를 열었다. 7번째 독주회를 2011년 11월 가졌으니 약 3년 반만에 독주회를 재개한 것이다. 나목사는 이번 독주회에서 모차르트, 요한 슈타미츠의 콘체르토 전 악장과 한국, 독일의 가곡들을 들려주었다. 피아노 반주는 나목사의 며느리인 나성애씨가 맡았다. 나목사는 언론과 통화에서 “내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목회와 음악, 두 가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아픈 뒤 절감했고 지금은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 듣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모두를 사랑하고 싶어질, 그런 연주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

클라리넷 연주자 이정환(음대 01) 동문 ‘홍콩필’ 오디션 최종심사에 올라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 입단 첫 번째 한국인 클라리네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 관악에는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활약하는 한국인이 전무한 실정이지요. 그 벽을 깨는 연주자가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클라리넷 연주자 이정환(음대 01사진)동문이 아시아 최고 수준의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trialist’에 올라 주변의 큰 관심을 모았다. trialist는 오디션 심사의 맨 마지막 단계로, 소수의 파이널리스트를 한 사람씩 불러 실제 콘서트에서 함께 연주해보는 실전심사다. 일반적으로 많은 오케스트라들이 이 단계는 생략하거나 간단히 하는데 비해, 영국 시스

템을 따르는 홍콩 필은 트라이얼 심사를 시킨 내내 진행하며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오디션을 봤고, 트라이얼리스트로 뽑혀 12월 다시 가서 또 한 달 동안 함께 연주했습니다. 오디션으로만 뽑아놓으면 실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다른 단원들과 지휘자와의 호흡을 찬찬히 맞춰보는 거지요. 무섭기로 유명한 지휘자 Jaap van Zweden의 콘서트 무대에 선 것이 좋은 사인이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 동문은 모교 음대를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했으며, USC 장학생으로 전문 연주자 과정과 석사를 마치고 현재 박사 과정 중이다. 세계적인 클라리넷 연주자며 지휘자인 예후다 길라드를 8년 동안 사사한 흔적 많은 수제자로 “누구보다 꾸준히 실력이 향상되는 연주자이며, 예쁘고 자연스러우며 매혹적인 소리의 연주자”란 평을 듣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수차례의 독주회, 국내외 많은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한국의 주요 오케스트라들과 협연자 및 객원 단원으로 활동했다. 양로병원 및 칠드런스 হাস피탈 등지에서 연주하는 봉사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

미주 동창회장 선거 출마의 변

“ ‘동창회 운영기금’ 의
육성 토대를 구축할 것”

윤상래(수의대 62)
뉴잉글랜드 동창회 전 회장

존경하는 서울대 미주 동문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예언가 George Friedman(Founder: Strafor Global Intelligence)은 2010년 발행한 ‘The Next 100 Years’ 라는 저서에서 “21세기는 미국의 세기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예언대로라면 우리는 앞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면서, 경제적 선진국인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수년 전 사랑하는 부모형제를 뒤로 하고 개인의 이상과 큰 꿈을 품고 이 거대한 나라에 이주하여, 그동안 이민 생활의 온갖 역경과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그동안에 우리는 높은 뜻과 목적을 두고 서울대 미주 동창회

를 발족하였습니다.

미주 동창회가 발족된지 4반세기를 맞은 오늘, 그동안 역대 회장님, 임원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봉사와 협력으로 어렵던 가운데서도 우리 동창회는 많은 발전을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달 동창회보의 발간으로 회원들의 동정과 소식은 물론, 모교와 우리 동창회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가오는 21세기의 쉼표를 극복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에 걸맞는 계획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제10대 송순영 회장님께서 2010년 9월에 시작하신 우리의 Brain Network 사업은 우리 동창회가 할수 있는 목적이 가장 뚜렷하고 명분이 있는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Brain Network 사업



의 주제를 확대하여 정치·경제는 물론, 급속히 발전하는 공학, 21세기 산업혁명의 선구자로 주목을 받는 생명공학·의학 등도 포함하여, 우리의 모교인 서울대와 함께 학술대회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세계 정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많은 미주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우리 모교의 세계화(Globalization)를 도울 수 있어야만 하며, 이를 통하여 제공되는 기술, 정보의 교환은 간접적이거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울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1999년 뉴욕에서 열린 평

의원회의에 처음 참석하여 매우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후 거의 매년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여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임원님들의 봉사와 헌신하시는 수고를 보아 왔습니다. 역대 회장님들께서는 거의 생업도 제쳐놓고 동분서주 하시면서 동창회 사업을 위해 심혈을 쏟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미주 동창회는 이러한 뜻을 본받아 더욱 발전하고, 더 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현재와 미래 동창회 활동을 위한 재정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우리 동창회의 영구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운영기금’ 이 설립되어야만 함을 주창합니다.

저는 미주 동창회장에 선출된다면 임기 동안 서울대 미주 동창회 운영을 위한 ‘동창회 운영기금’ 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대 미주 동문 여러분, 우리는 이 거대한 나라의 각 지역에 산재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주 전역에 소재한 모든 지역 동창회와의 유기적

인 연대와 체제개선을 통한 협력으로 뭉친다면 우리가 바라는 미주 동창회 발전은 반드시 달성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미주 동창회는 1만여 명의 세계 최고 지성인의 단체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일을 하고, 힘을 질 각으로 동창회 활동에 참여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미주 동창회는 더욱 활성화할 것이며, 우리 미주 동창회는 명실공히 ‘대 서울대인의 동창회’ 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저의 사랑하는 후배 류성창(사대 92입 하버드대 철학박사) 동문의 동창회 필요성을 기술한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맺습니다.

‘우리가 먼 이국에 와서까지 동창회에 모이는 이유는, 서울대 동창회 모임을 통해야만 우리가 이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종류의 존재실현의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즉 모교 동창들과의 친목, 공동사업, 그리고 우리들만의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중대한 한 부분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문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모든 일이 항상 뜻대로 이루어 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미주 동창회 Mentoring Program을 마치고

“미 의학연구의 방향에 대해
안목을 키운 것이 큰 성과”



김신(의대 본과 1년)

모교 의대에 재학 중인 김신(의대 본과 1년) 동문은 미주 동창회와 서울 모교가 마련한 Mentor-Mentee Program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2일까지 워싱턴에서 의학분야 실습을 진행한 바 있다. <미주 동창회보 2015년 2월호 1면 3면 참조> 이후 귀국한 김 동문은 자신의 실습 체험에 관해 글을 보내와 이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지난 5주간은 짧지만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의학도의 길을 시작하면서 늘 미국에서는 어떻게 의학연구를 하는지 궁금했는데 많은 궁금증을 풀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의학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꽤 안목을 갖게 됐습니다.

▶참으로 값진 경험 = 미국의 의학연구는 인류의 보건 환경을 크게 개선시켜왔고 소아마비 연구, 심혈관 질환 연구, 에이즈 연구, 기능유전학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의학 발전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저도 인류 보건에 기여하는 훌륭한 의학자로 성장하려면 미국 의학 연구를 경험해야

한다고 믿었던 터라 이번 경험은 참으로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경험은 여러 동문 선배님들을 뵈고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배님들께서는 제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을 마음껏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임종식 박사님, 지영미 박사님, 오인환 회장님, 신원석 선생님, 박종철 선생님, 김정식 박사님께서 베풀어주신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실질적인 체험 연구 = 미주 동창회-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처음 길잡이가 되어주신 것은 임종식 박사님이셨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제 롤모델이셨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는데 공을 세우셨습니다. 이후 NIH에서 암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암을 일으키는 원인을 연구하셨습니다. 암 연구에 꼭 필요한 암 세포 주를 배양하는 방법을 찾는데 기여하셨을 뿐 아니라, 암 진행의 변이과정을 연구하시면서 Ras gene이 암세포에서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모두 대단히 성공적인 연구 결실이었습니다. 박사님을 가까이 뵈고 지내면서 이제는 롤모델 의학자 이상으로 제가 닮고 따라야 할 인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임종식 박사님께서는 USUHS(Uniformed Services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 외과의 지영



↑이번 Mentor-Mentee Program 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김정식 교수(왼쪽 사진 왼쪽),지영미 박사, 임종식 박사, 오인환 미주 동창회장(오른쪽 사진 왼쪽부터)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미 박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영미 박사님 연구실에서 뼈이형성증과 조직 재생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Blastic wound(폭발에 의한 손상)에서 Heterotrophic ossification(골이형성증)이 발병하는 기전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연구, 일반적인 외상성 손상 이후의 재생 과정에 대한 연구와 함께 재생과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cell type, scaffolding)에 대한 연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Georgetown Univ. Lombardi Comprehensive Cancer center의 김정식 박사님은 뇌종양에 대해 연구하고 계셨습니다. 암세포에서 발견되는 STAG2 단백질의 변이가 염색체의 이수성에 기여한다는 연구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사람 세포와 다른 동물세포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동재조합(homologous recombination)이 일어나는 빈도는 같은 mammalian cell이라도 쥐 모델에서는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반면 사람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나타난다는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영미 박사님을 통해 실험실 활동 외에도 미국립보건원(NIH)의 다양한 연구실을 방문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NIE(Na-

tional Institute of Eye)를 방문해 진행 중인 황반변성(Macular Degeneration)의 줄기세포 치료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물학의 정보 허브인 NCBI를 견학해 그곳에서 진행 중인 aptamer 관련 연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개업의사로 활동하고 계신 신원석 선생님과 존스홉킨스 대학 암연구소의 박종철 선생님을 만나 뵈는 것도 큰 경험이었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각각 내과와 노인의학 병원을 운영하시는 신원석 선생님은 의사가 되기까지 겪은 극적인 체험을 들려주시고 의사의 삶에 대해 긴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환자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강조하신 말씀이 뇌리에 깊이 남았습니다.

박종철 선생님께서는 GU cancer에 대해 연구 중이셨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을 견학시켜주시고 암 연구 현황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암 연구에서 차세대 염기분석법을 통해 환자 특이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면 생물정보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미주 동창회-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을 뵈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책과 실

험으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만남을 통해 펼쳐지는 지적 편력은 그 이상으로 신선하고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산 지식은 제게 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를 질병에서 해방시키려는 의학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임종식 박사님, 지영미 박사님, 초청해주신 오인환 회장님과 본부 선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숙소 = Airbnb(www.airbnb.com)라는 중개 사이트를 통해 숙소를 구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가격대와 하숙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점은 임종식 박사님과 지영미 박사님께서 제가 미국에 도착 전 인터넷에 있는 집을 직접 방문하셔서 집이 괜찮은지 알아봐 주시고 골라주셨습니다. 제가 머문 곳은 Bethesda, Berkshire가에 있는 젊은 부부의 집이었는데 가격은 5주간 950달러였습니다. NIH와 USUHS로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었고 지하철역 접근성도 좋아 교통이 편리했습니다. 또한 집 앞에 걸어갈 수 있는 Balducci's와 Giant 마켓이 있어 장 보기도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동창회

김주진 동문 명예 박사학위 축하

필라델피아 동창회(회장 전방남·상대 73)가 김주진(법대 54) 동문의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 수여에 대해 동창회 차원의 축하 행사를 실시했다.

김주진 동문은 지난 5월 8일 필라델피아 소재 Temple University 졸업식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이다.

김주진 동문은 지난 1955년에 도미하여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고 Villanova University 에서 경제학 교수를 역임했다. 그 뒤 1968년 아남산업(주)의 미국 진출을 위하여 Amkor Electronics를 설립하고 최고 경영자의 책임을 맡아 \$1.6 billion 기업으로 일구었다.

1997년에는 Amkor Technology, Inc.로 개편한데 이어 IPO를 통해 기업공개를 하였다. 미국 본사를 2005년 펜실베이니아주의 West Chester에서 아리조나주의 Tempe로 옮겨 아시아 7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곳에 생산기지를 두었다. 이 기간 직원 2만 2천여 명에 \$3.2 billion(2014)의 매출을 올린 컴퓨터 반도체 packaging과 testing service를 주종으로 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시켰다. 주요 납품 고객은 Ali-gent, Intel, Phillips, Sony 와 Toshiba 등을 포함한다.

한편 김주진 동문의 부인인 Agnes Kim(사범대)이 창안해 1977년 펜실베이니아주의 King of Prussia에서 한 개의 kiosk로 시작한 전자제품 판매업체인 Electronics Boutiques는 2000년 중반 2천여 개의 매장을 가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같은 실적으로 2011년에는 GOLDSEA지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아시아 기업가 100명의 명단에 부부가 나란히 3위(Amkor Technology)와 14위(Electronics Boutique)에 오르기도 하였다.

2009년 이후 현재 김주진 동문은 Amkor Technology 이사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김주진 동문은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 한국어학과와 창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James Joo-Jin Kim Program in Korean

Studies를 위해 \$6 million을 기부하고 Drexel University에 재학하는 한국 학생을 위한 장학금 program을 마련하는 등 대학, 교육기관, 박물관, Philadelphia Orchestra 등에 활발한 기부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활동으로 2011년에는 Forbes지가 12개국을 표본으로 선정한 ‘48 Heroes of Philanthropy’에 선정된 바 있으며 냉철한 지성의 성공한 기업인이자 뜨거운 가슴을 가진 자랑스런 동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음은 Temple대학이 발표한 김주진 동문의 명예 경영학 박사 수여 공적사항이다.

James Joo-Jin Kim. Doctor of Business, Honoris Causa. Born in Seoul, Korea, James Joo-Jin Kim is executive chairman of Amkor Technology Inc., one of the world's leading suppliers of outsourced semiconductor packaging and test services. He founded Amkor in 1968 and has guided its growth and diversification ever since. He incorporated Amkor in 1970 and took it public in 1998. Amkor was based in West Chester, Pennsylvania, until 2005 when its corporate headquarters relocated to Arizona. Kim came to the U.S. to study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ere he earned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in economics. He taught for six years at Villanova University and in 1968 joined his father's Korea-based company, Anam Semiconductors. Kim established Amkor as the U.S. base for Anam and, from its modest start, grew it to a \$3.1 billion company. Anam also continued to experience tremendous growth. Kim became the chairman of Anam when his father retired in 1990 and served in that role until 1998, at which time he became chairman and CEO of Amkor Technology. Kim and his wife founded Electronics Boutique in 1977. Starting with



↑(윗 사진)필라델피아 동창회 동문들이 김주진 동문의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 수여식 뒤 레스토랑에서 축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아랫 사진은 김주진 동문이 Temple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는 모습이다.

just one kiosk in the King of Prussia Mall, they expanded the operations to more than 2,000 stores in several countries. In 1998, they took the company public, and in 2005 Electronics Boutique merged with GameStop.*

<글·사진 = 전방남 동창회장>



춘계 골프대회

필라델피아 동창회가 지난 5월 12일 Jeffersonville G.C.에서 춘계 골프대회를 열었다.

봄바람이 제법 부는 따뜻한 날씨속에 총 19명(남자 14명, 여자 5명)이 참가하여 즐거운 round-ing을 가졌다. 전임 회장인 한중희(공대 80) 동문이 대회준비 및 진행위원장으로 수고하였다.

이날 Champion trophy는 제갈은(문리대 59, 88타) 동문이 차지하였고, Lady champion trophy는 Mrs. 이만택(89타)이 받았다.

남자 1등은 장인호(의대 57), 2등은 2014년 추계 골프대회 챔피언이었던 류용진(상대 59), 3등은 강준철(사대 59) 동문 등이 입상했다. 여자 2등은 Mrs.



↑전방남 회장이 이날 Champion에 오른 두 분(제갈은 문리대 59, Mrs.이만택)에게 트로피를 증정하고 있다.



전희근, 3등은 Mrs. 원종민 등이 입상하였다. Longest는 Mrs. 민홍식, Closest 는 이관림(공대 67) 동문이 차지하였다.

저녁과 시상식을 Blue Bell의

아리수에서 가진 후 2015년 추계 골프대회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였다. ***

<글·사진 = 전방남 동창회장>



뉴잉글랜드 동창회

렉싱턴에서 ‘평화 콘서트’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장수인(음대 76) 회장이 대표 및 단장으로 있는 화음 보스톤 챔버와 보스톤 한인합창단이 연합하여 마련한 아름다운 5월의 멋진 ‘평화 콘서트’가 지난 5월 16일 성황리에 열렸다.

렉싱턴 MA에서 열린 이번 평화 콘서트에는 엄성준 총영사 내외를 비롯해 많은 동문들과 지역 한인 동포들이 모여 아름다운 감동을 나누었다.

제1부에서는 화음 보스톤 챔버의 모짜르트와 차이코프스키 세레나데가 연주되고, 제2부에서는 각계 각층의 보스톤 지역 한인과 8명의 성악인들이 모여 열심히 준비한 합창곡들이 챔버와 함께 연주되어 웅장함을 더했다.

화음 보스톤 챔버 단원으로는 김현정(음대 02)·최혜민(음대 02)·박예나(음대 10)·이해민(음대 08)·정현지(음대 08), 합창단의 솔리스트로는 테너 강정래(음대 79), 소프라노 이상원(음대 89)·이재형(공대 91·기획국장)등 많은 동문들이 함께 연주했다.

레퍼토리로 최상의 수준을 보여준 슈베르트 Mass와 뒤이은 한

국곡들이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차례로 연주되었다.

필자(장수인)는 인사말에서 “기쁨은 함께 나눌수록 배가되고 슬픔은 나눌 때 큰 위안과 위로를 받는다”며 아름다운 미래를 기원하는 평화콘서트의 의미를 되새겼다.

Healing Song 메들리로 준비된 한국곡들 중 무반주의 고향의 봄 합창은 모든 이들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동심에 젖게 하였고 ‘아침이슬’, ‘사랑으로’ 등의 남성 중창과 합창을 들을 때는 우리의 학창시절 추억에 젖어들었다.

특별히 세월호 1주년 추모곡인 ‘내영혼 바람되어(천개의 바람)’는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내며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다. 이 곡은 작곡가 김효근 교수가 보스톤의 평화 콘서트에 특별히 헌정하여 연주되었다.

마지막은 당연히 아리랑이 열창됐다. 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 웅장하게 연주된 아리랑을 관객들이 함께 따라 부르며 아름답고 평화로운 미래로의 염원을 나누었다. 이 음악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화음 보스톤 챔버가 주



장수인 회장 댁에서 ‘번개모임’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번개모임이 지난 4월 25일 당시 장수인 회장 자택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의 주제는 ‘드디어 봄!’으로 지난 해 있었던 ‘한여름의 SNU’ 번개모임이 아주 인기가 좋아 올해에도 새 봄을 맞아 다시 모인 것이다.

이 모임은 매번 다른 소재목으로 번개모임의 성격과 내용을 바꾸어 formal한 동창회 행사에

서는 맞볼 수 없는 친근하고 아가자기한 모임을 목적으로 선후배들 남녀노소가 어우러지는 모임이다. 이번 모임은 주로 부엌에서 모여 떡볶기도 함께 만들고 갑작스런 요리강습과 시식까지 펼쳐지며 potluck으로 자랑한 각자의 솜씨에 감탄하며 선후배간에 웃음꽃이 만발했다.

특히 이날 생신을 맞은 김은한 선배(의대 60)의 깜짝 생일 케

↑ 왼쪽부터 김은한(의대 60)·윤상래(수의대 62)·장수인(음대 76)·김춘순(사대 55) 동문, 영애(사대 71) Benson부부, 도삼주(공대 84)부부, 김인수(사대 55)·김민정(사대 88)동문, Mrs. 윤상래.

이크 cutting 까지 더해져 뉴잉글랜드에 오랜만에 찾아온 봄에 동문들과의 좋은 추억거리가 더해졌다.***

<글 = 장수인 동창회장, 사진 = 이재형(공대 91)기획국장>

최하는 한반도 시리즈 콘서트 중 3월의 ‘위대한 한민족’에 이은

5월 행사로 10월 3일 ‘아름다운 미래로’의 연주가 기획돼 있다.

<글 = 장수인 동창회장, 사진 = 이재형(공대 91)기획국장>

고 최형철(공대 74) 동문 유가족 돕기 기금 모임 캠페인

본 동창회보 2월호와 4월호에서 보도했듯이 고 최형철 동문(공대 74)의 유가족을 위해 소개지인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장수인)는 물론, 멀리 남가주 서울대 총동창회(회장 박혜옥), 그리고 남가주 서울대 공대 동창회(회장 김영도)가 나서서 성금 모금에 앞서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고 최형철 동문은 18년 전인 1997년 6월 30일 일어난 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로 부인 최혜현 여사는 목 아래부터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최혜현 여사는 두 아이(당시 3살 및 5살)를 태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 최형철 동문은 기계공학 박사로서 사고가 토요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것을 알고 그 진실을 찾기 위해 토요타와 법정투쟁

을 하다 올해 2월 8일 체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부인 최혜현 여사는 남편의 뜻을 이어 받아 법적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변호사비를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토요타 측은 이 케이스를 기각시키라 주장했고 유가족은 새로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주장하여 결국 법정은 가족의 손을 들어주어 2015년 12월 10일까지 새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 최형철 동문 유가족을 위해 동문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도와드리면 부인 최혜현 여사와 세명의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은 물론 동시에 심적으로도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사고 후 곧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동차 결함을 조사했으나 결함을 찾지 못하던 중 토요타 측에서 1달러의 합의 제의가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결함을 밝히기 위해 합의 제의를 거절하고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가진 최 동문은 직접 차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고 당시 경찰이 찍은 사고 차 사진에는 왼쪽 뒷바퀴 스트라트 로드 가 떨어져 있었고 사고 11일 후 사건을 맡기 위해 우리 측 엑스포터가 토우 게리지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스트라트 로드 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자료를 통해 에어백의 강한 힘으로 운전석 등받이가 부서져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운전석 등받이가 정상임을 발견했습니다(그 후 사고 당시 부인을 구출한 여성 경찰은 데포지션에서 운전석 시트가 부서져 있었다고 증언함으로써 최 동문의 조사가 사실임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사고 후 11일 사이 누군가

사고 차 두 군데 스트라트 로드와 운전석 등받이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두 군데는 사고 원인과 부상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부서진 사고 차에서 이 두군데가 고쳐졌다는 것은 사고차의 문제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고 최형철 동문은 직장을 쉬면서 하루에 12시간씩 작업을 하며 사고차의 사진을 재현해내고 많은 엑스포터를 만났으며 수많은 실험과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과 세 아이들(12살 5살 3살)을 돌보며 직장에 다녔습니다.

고 최 동문과 유가족에게는 2014년 12월 10일 2시에 열린 청문회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날 2시는 키모 약이 다 끝나가는 시간으로 최 동문은 지독한 약 기운에 비몽사몽하였습니다. 키모 약이 다 끝남을 알리는 머신의 사운드가 법정에서 ‘삐, 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최 동문은 온 힘을 다해 2009년

과 2005년 토요타 측 변호사 위증을 설명하며 왜 그들이 사기를 치면서까지 이 케이스를 막으려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정 케이스가 순조롭게 결론이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www.choifive.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 10일까지 새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변호사비를 위하여 동문 여러분의 금전적 지원과 심적인 응원을 바라고 있으며 또한 법적인 일을 도와주실 동문은 연락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 최 동문의 부인은 좋은 결과를 갖게 되면 부족하나마 남편의 묘교에 도네이션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전해 왔습니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Mrs. 최혜현(Haehyun Choi)
(781)861-6308. 50 Memorial Road, Apt 18-C, Somerville, MA 02145. yellowchoi@gmail.com, www.choifive.net ***

<뉴잉글랜드 동창회 일동>



남가주 동창회

Brookside G.C.에서 골프대회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박혜옥·간호대 69)가 지난 4월 19일(일) Brookside Golf Course, Pasadena에서 춘계 골프대회를 열었다.

이번 골프 대회의 형식은 개인전이 아니라 2명이 한 조가 되어 2명 중 가장 잘 쳐진 shot을 선택하여 점수 계산을 하는 다소 새로운 방식이었다. 그러니 같은 조원이 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동지인 셈이었다.

그러니 각 조마다 그렇게 좋은 점수가 나올수 있을까?

과, 보기, 과, 보기, 과, 과, 과, 이렇게 나간 조가 있는가 하면, 과, 버디, 과, 버디, 버디, 버디. 과, 정말 신이 난 게임이었다. 여기 저기서 입이 귀에 걸렸다. 날씨도 화창한데 웃음소리 또한 만발했다.

맨 처음 80여 명이 짝악 cart를 타고 나가는 광경은 참 멋있는 파워였다.

우선 예쁘장하시고 여장부이신 박혜옥(간호대 69)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인사말씀을 전했다.

“오늘 정말로 골프 치기 좋은 날입니다. 남가주 총동창회의 첫 번째 공식행사인 춘계 골프대회에 참석하셔서 성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티 스폰서를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 대회를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골프대회는 관악연대 동문들이 주관이 되어 게임 방식에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만 재미있게 진행하려고 계획한 게임이었습니다. 오늘의 골프 대회를 계획하고 진행하느라 너무나 수고한 고정범 관악연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0월 24일에 있을 추계 골프대회에도 여러분의 적극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쨍쨍한 음성의 인사에 이어 고정범 관악연대장의 행사 수칙에 대해서 경청했다.

팀마다의 특색있는 파란색 티를 단채로 입은 여성팀, 부분팀, 젊음이 넘치는 관악팀, 지역별 팀, 단과대학별 팀, 각각의 제목으로



↑ 박혜옥 동창회장이 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먹튀팀 이민기(화공 86) 동문이 우승상금 500달러를 받고 즐거워하고 있다.

팀 구성도 다양한 팀들이 의기양양했다.

연세가 좀 드신 선배님들도 대거 참가를 하셨다. 그 중 오홍조(치대 56) 전 미주 동창회장님은 golf swing이 그냥 잠깐 back swing을 “난 몰라요” 하며 수줍게 했는데, down swing시 원심력 있게 hit and throw로 했을 뿐인데 공이 장타로 날아가며 원하는 자리에 멀리 딱 가 있어 유행가 “내 나이가 어때서...”가 남의 일이 아니었다.

한 조가 된 서치원(공대 69·남가주 총동창회 전 회장)과 김경무(공대 69) 공대 동창회 전 회장은 환상의 콤비로 “나는 장타, 당신은 short game, 그러니 우린 잘맞는 콤비!”라고 하며 “give me a five”를 ‘짜’ 한다.

완전 오늘은 ‘어린이 날’이 되었다. 열심히, 재미있게 각 팀마다 잘 치고 다 잘 했지만 역시 젊음 관악 남성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골프대회의 시상은 개인별이 아니고 팀으로 구성되었다. 역시 챔피언은 이름하야 ‘먹튀팀’이 차지했다.



↑ 남가주 동창회 역대 회장 중 일부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왼쪽부터 최중혁(경영대학원 68)·방석훈(농대 55)·오홍조(치대 56)·이기준(법대 54)·김경무(공대 69)·서치원(공대 69)·김상찬(문리 66) 전 회장.

▶Champion = 먹튀팀(대부분 86학번, 이민기(공대)·이해정(공대)·차문현(공대)·박문규(경영대)·김승진(음대)·안현주(Mrs. 박문규) ▶메달리스트 = 송태준(공대)·김용상(공대).

시상이 끝나고 푸짐한 경품으로 기대한 나머지, 390번을 380번으로 잘못보고 나가니 그 또한 웃음이 되었다.

많은 경품을 도네이션한 모든 동문들께 감사하고, 또 받은 경품을 다시 기금으로 낸 동문(서치원), 그 자리에서 500달러를 도네이션하신 이기준(법대 54) 남가주 총동창회 전 회장께도 감사한 마음이다.

이날 골프대회에서 추억에 오래 남길 사진을 백정현(음대 66)음대 동창회 전 회장이 일찍부터

열심히 뛰어다니시며 찍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박혜옥 동창회장이 아내인데 내가 안 뛰면 누가 뛰랴’ 싶어 너무 보기 좋은 한쌍의 잉꼬이시다. 동문이 있기에 우린 행복할 때가 많다. ***

<글 = 백옥자(음대 71) 미주 동창회 조직국장. 사진 = 백정현(음대 66) 남가주 음대 동창회 전 회장> ***

↓ 필드의 패션모델들. 남가주 동창회 대표적인 패션니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껏 미모를 과시했다.





뉴욕 골든클럽 이준행(공대 48) 회장

한미충효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뉴욕 골든클럽 이준행(공대 48) 회장이 지난 5월 15일 뉴욕의 대동연회장에서 뉴욕지역의 한인단체인 한미충효회(회장 임현빈)로부터 제15회 ‘장한 어버이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미 충효회가 지난 2001년에 시작해 올해 15회째를 맞는 것으로 장수, 효자, 효부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이다.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시상식에서는 경로 대잔치가 이어졌다.

이준행 회장은 미주 한인 가발사업의 최초 개척자로서 성공한 기업인으로 자녀 교육에도 열정을 다하여 큰 인재육성에 노력했다. 장남은 현재 Junee Commercial Co. 사장이며, 3남 이견혁씨는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3남 이견혁씨는 10여년 전 한국이 IMF 관리체제로 나라가 큰 곤경에 처했을 때 미국 IMF국에서 근무 중이었다. 그는 한국의 경제기획원으로부터 특별초청을 받고 애국의 마음으로 고국

↑뉴욕 골든클럽 이준행 회장 부부(왼쪽에서 두번째와 세번째)가 ‘장한 어버이상’을 수상후 동문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부부 왼쪽은 박승용(의대 65) 뉴욕 동창회장, 오른쪽은 진봉일 동문. 뒷줄 왼쪽에서 세번째는 이전구 미주 동창회 전 회장.

에 나가 크게 활동해 IMF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공으로 훈장까지 받는 업적을 남겼다. 이렇듯 이 회장은 자녀들을 훌륭하게 훈육하는데 전력을 다하였으며 현재 고령임에도 한인 사회를 위해 협조 후원 활동을 계속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있어 이같은 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



Split Rock에서 춘계 골프대회

뉴욕 골든클럽(회장 이준행·공대 48)이 지난 5월 13일 뉴욕시 최고의 퍼블릭 골프장으로 잘 알려진 Split Rock 골프장에서 성황리에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집행부의 두 기둥 홍종만·손영철 회원이 참가하지 못해 걱정을 많이 했으나 노련한 손경택 회원의 자발적 수고와 회원분들의 협조, 그리고 화창한 날씨에 힘입어 일곱 섬, 즉 28명이 꼭 차게 참가해 무사히 잘 치러졌다. 원래 이 날 Pelham Bay로 예약되어 있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골프장 사정으로 훨씬 더 어려운 코스로 변경되어 전반적인 기록은 저조하였으나 좋은 성적을 낸 회원이 많았다. 특히 이준행 회장의 영원한 반려자 이세영 님이 정식 가족회원으로 입회해서 공동 1등을 하는 실력을 과시하였다. 여성회원들의 큰 언니로 자리매

김된 이세영 님 뿐만 아니라 최명숙 회원님 또한 공동 1등을 기록하여 앞으로 골든 클럽의 스포츠 활동을 크게 발전시키는 데 여성회원님들의 활약이 많이 기대된다. 오랜만에 에드워드 강 뉴욕 동창회 전 회장 역시 공동 1등에 오르기도 또한 근접상을 기록 대단한 발전을 보이었다. 왕년의 스타플레이어 이 대영 회원이 메달리스트에 올라 아직 건재함을 과시했고 오랜만에 참가하신 정해민 회원도 단독 삼등에 이름을 올렸다. 이 날 골프대회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메달리스트 = 이대영 ▶1등 = 이세영·최명숙·에드워드 강 ▶2등 = 이대영·임도혁, ▶3등 = 정해민 ▶근접상 = 에드워드 강·김영덕. *** <글 = 조달훈(사대 66)>



워싱턴 DC. 이영목 전 미주동창회장

‘제1회 팔봉 문학상’ 수상 영예

미주 동창회 제8대 회장이며 현재 고문인 워싱턴 동창회의 이영목(공대 59) 작가가 워싱턴 문인회(회장 권귀순)가 주관하는 제1회 팔봉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5월 30일 버지니아 애난데일 소재 Korea Monitor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이 문학상은 팔봉 김기진 선생

의 외동딸로 버지니아의 맥클린에 거주하는 김복희 이화여대 전 교수(성악가)가 선친의 작고 30주년을 기념해 문인회에 기부한 500달러의 기금으로 제정됐다. 이 상은 워싱턴 지역에서 매년 문학작업이 뚜렷한 미주 문인 가운데 1명을 선정해 상패와 함께 5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 상의 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 모임을 갖고 제1회 수상자로 이영목 작가를 선정했다. 동창회보 편집위원으로 워싱턴 문인회 부회장이인 서운석(의대 62) 동문의 사회로 열린 이날 시상식은 팔봉 세미나도 함께 이뤄졌는데 메릴랜드대 전 교수로 포



←이영목 작가의 시상식에는 동창회보 서운석 편집위원·이내원·한희생·공순옥·변만식 동문, 백순 주필, 장수영 전 총장, 오인환 미주 동창회장 등 워싱턴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축하해주었다. 아래 사진은 팔봉 김기진 선생의 따님 김복희 전 교수(오른쪽)가 이영목 작가에게 시상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모습. 항공대 총장을 역임한 장수영(공대 57)박사가 축사를 전했다. 이영목 작가는 수상 인사말에서 “얼마 전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는데 우리의 혈통인 많은 고려인들이 말은 러시아어로 하고 그들의 2세들은 영어로도 소통하는 것을 보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됐다. 우리 미주 코리아인 아메리칸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의 아이덴티티와 프라이드를 존속시켜주는 것이 우리 문인들의 책임임을 통감하는 뜻에서 이 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동창회보 백순(법대 58) 주필은 ‘팔봉의 문학평론’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었다. 이영목 전 회장은 워싱턴문인회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저서로 지난 2월 펴낸 여행기 ‘길에서 나를 본다’를 비롯해 ‘워싱턴의 도박꾼’ ‘워싱턴 달동네’ ‘워싱턴에서 3박4일’ 등 3권의 소설과 수필집 ‘워싱턴에서 살며 사랑하며’를 펴낸 바 있다.*** <편집주간>

록키 마운틴 동창회

‘주제별 강의를 통한 모임’ 가져

록키 마운틴 동창회(회장 송요준·의대 64·오른쪽 사진) 동창회가 지난 5월 9일(토) 오후 6시 Denver의 Perkins Restaurant에서 주제별 강의를 포함한 동문회 모임을 개최했다.

동창회는 이 모임의 타이틀을 일단 가칭 ‘주제별 강의를 통한 모임’이라 정하고 동문들의 모임을 가졌다.

이날 최용문(공대 77) 동문이 컴퓨터에 관한 강의를 해주었는데 동문들은 너무나도 충실한 내용에 모두들 아주 흡족해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컴퓨터에 대해 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원하는 동포들을 위해 비단 동문과 가족 뿐만이 아니라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컴퓨터 강의가 끝난 후에는 올해에 있을 연말 총회를 비롯해서 하계 야유회 등 여러 가지 행사와 회칙 개정 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6월 6일 산행으로 생각했던 모임은 최용문 동문이 덴버에 있는 club house를 빌려 각자의 Pot luck 으로 모임을 가질 계획을



밝혔다. 동문들의 장기 자랑, 특별한 연재 발표 등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제공됐다.

회칙에 대한 회의에서는 ‘제19조, 총동창회 및 지역 동창회 회보 및 웹사이트에 기재되는 본회에 연관된 사항은 본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기재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공표했다.

김재권(문리대 76) 동문은 앞으로 모임의 서기로도 봉사해주기로 했는데 이날 모임 후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귀가 하는데 무려



↑이날 모임에 참석해준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이희삼(문리대 68)·김재권(문리대 76·원안)·곽운태(문리대 49)·최용문(공대 77)·송요준(의대 64)·정화용(사대 61) 동문.

3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그토록 멀리서도 오로지 동창회를 위해 적극 협력해준 데 대해 고맙기 이를 데 없다. 필자(송요준)도 이날 2시간 이상 걸려서야 그릴리의 집에 귀가할 수 있었다.***

<글 = 송요준(의대 64)동창회장 사진 = 김재권(문리대 76)서기>



시카고 동창회

Willowcrest G.C.에서 골프대회

시카고 동창회(회장 김용주·공대 69)가 지난 5월 16일(토) Oak Brook 소재 Willowcrest Golf Club에서 21명의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춘계 golf outing을 개최했다.

이날 일기가 불순해 날씨가 다소 덥거렸지만 다행스럽게도 대회가 끝난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어 대회를 잘 마칠 수 있었다.

특히 이날 골프대회에서는 황치룡(문리대 65)·황정수 부부가 남자·여자 gross 1등을 차지해 많

은 인기를 모았다.

저녁 만찬을 겸한 시상식은 Westmont에 있는 New Korea Garden에서 즐거운 시간으로 마무리를 했다.

이날 golf 대회의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남성> ▶net champion = 강창만(의대 58) ▶gross champion = 황치룡(문리대 65) ▶closest pin = 최길용(문리대 57) ▶longest drive = 황치룡(문리대 65) ▶부비상 = 조대현(공대 57)



↑이날 골프대회에서 챔피언 등 상을 수상한 동문들이 수상식장에서 상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여자> ▶gross 1등 = 황정수(의대 69) ▶longest = Mrs. 구경희(Mrs.황치룡) ▶net 1등 = Mrs. 구경희 ▶Closest = 장승주(간호대 69)

시카고 동창회에서는 다음 하계 야유회를 6월 27일, 추계 golf outing 은 9월 19 일기로 했다.**

<글 = 김용주(공대 69) 회장 사진 = 강창만(의대 58)>



미국대학 동창회 시리즈

Utah Chapter of the Harvard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John Yoon
Class of 1985

John Yoon은 동창회보 동창회보 편집위원 윤경의(공대 57) 박사의 장남으로 Havard 대학 출신이다. 그는 현재 Utah Chapter of Havard Univ. Alumni Assoc.을 부인 Katherine 과 함께 맡고 있어서 미주 동창회가 추진하고 있는 미명문대 동창회와의 교류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관련해 John Yoon 이 글을 보내와 이를 전제한다.

<편집자주>

I suppose my journey to the Harvard Alumni Association began with the 1965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65. The same is true for many of my generation, either born in Korea and emigrated as small children or born in the United States to new immigrants.

By abolishing the quotas favoring European immigration, an entire generation of Koreans, many of them graduates of the prestigious program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elected to move to the United States, either to begin a new life or to continue an existing education.

My father was a member of that generation (Dr. Yoon, Kyung Eui, SNU, 1957). Prepared with an undergraduate degree and \$70, he made his way into the doctoral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Iowa. My mother and I joined him a year later.

Growing up in graduate student housing and surrounded by the children of other doctoral candidates, education was always a presence in my childhood.

My mother and I spent time together while my father was working on his dissertation and I would hear stories of the competitive environment that produced this generation of Korean émigrés.

She would tell of the examinations and the rigors of gaining acceptance to competitive high schools and then colleges.

I heard stories from her about the importance of work and education, how diligent my father had been, how this country was a great opportunity for us.

Of course, she never spoke of



herself but I learned about her own academic path through Ewha Womens University and I decided to follow the example of both my parents and make education a priority.

I entered Harvard in 1981 from a public high school in a small town in Virginia. Neither my parents nor I had any expectations but I decided to apply and to our collective surprise I was accepted early action.

There I took my first Korean class, dated my first Korean girl, met a future Noble laureate (not Korean, unfortunately) and a future head of the World Bank (a Korean but a graduate of Brown unfortunately.)

I finally learned the words to Ari Rang while singing with the

“Harvard’s motto is Veritas, very similar to Seoul National University’s Veritas lux mea. I think the lessons and values of both institutions, their histories, cultures, strong and devoted alumni networks are also things they have in common”

Harvard Glee Club. I also met the girl who would eventually become my wife and mother to our four children. Her own parents met and married while at Harvard. Her three brothers also attended Harvard. In some ways I feel like I married into a Harvard Alumni Association in miniature.

My father-in-law (Mr. John P. Kennedy) has been very active in the Harvard Alumni Association and the Harvard Alumni Association of Utah. When we moved to Utah, he was key in recruiting me and my wife to become involved in the alumni association.

My wife (Katherine Kennedy Yoon) is currently the President of the Harvard Alumni Association of Utah and serves as a Regional Director for the Harvard Alumni Association as her father has in the past. We all serve as alumni interviewers.

Although an interview is not required, Harvard encourages local clubs to interview prospective applicants and forward on the interview report



↑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Harvard대 캠퍼스. Utah에서의 Havard동창회 활동. John Yoon의 가족사진이다.

back to the admissions office in Cambridge to help the committee

creating strong ties to its graduates. Membership in the

embroidered with the Harvard seal and the words “Class of 85.” By mistake, they had ordered two for me. I tried to return it but the organizers told me to keep it since it was a mistake on their part.

What was I going to do with a second jacket? I thought about it as I walked through tree-filled Harvard Yard. I thought about my time as an undergraduate and all of the things from my parents that put me there; all the lessons, the sacrifices, the examples.

Of course, I knew what to do. I sent it to my father. I think my experience there was as much a result of the things he learned and choices he made in Korea, as it was the things I did in the US.

At Harvard, I met many Korean-American classmates who had similar experiences and parents who had also attended Seoul National University.

Harvard’s motto is Veritas, very similar to Seoul National University’s Veritas lux mea. I think the lessons and values of both institutions, their histories, their cultures, their strong and devoted alumni networks are also things they have in common.

I am happy to be a member of the Harvard Alumni Association and proud that my father is a member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get a clearer picture of the candidates. We typically get 160-180 applicants in Utah and each alumni interviewer handles 4-6 interviews a year.

Our club is also active with over 1,000 alumni from th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iving in Utah. World wide, there are 323,000 alumni; 271,000 in the United States with the remainder living in some 201 countries.

In Utah, we host a dozen events each year ranging from the annual Harvard - Yale Football Game which we watch televised at a local sports bar to nights at the Utah Symphony, the Utah Opera as well as lectures from visiting professors, politicians and community leaders.

My wife and I often travel back to Cambridge for meetings of the national alumni association or for meetings with the admissions office. It’s also an excuse to see our oldest son (Michael Kennedy-Yoon) who is Harvard class of 2017.

Harvard, like Seoul National University, does a good job in

Harvard Alumni Association is automatic upon acceptance into the College or graduate programs and there are many programs and events hosted by Harvard to maintain and reinforce these links.

Much like the loyal alumni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arvard alumni are encouraged to associate and connect to create a community of life-long learners and to pass on the values of education and hard work.

Great examples of these reconnecting events are the reunions. My sister just attended her 25th Harvard Reunion with her husband and three sons. Originally, she was not planning on going - a feeling I confess I shared a few years ago when faced with the prospect of my own 25th.

Fortunately, my wife convinced me that this was not an event to be missed and she was right. So I was able to convince my sister to do the same. She was glad she did.

At my own reunion, one of the gifts they gave to each returning classmate was a nice jacket

영화 이야기

‘Collateral’의 매력



박준창(인문대 79) CA
변호사

이 영화는 내가 오래 전부터 애기해 보고 싶은 영화였는데, 10여년 전 처음 보고 난 이후 영화를 못 구해서 오랫동안 못 써 왔다(영화는 2004년 개봉).

▶제목의 뜻 = 그런데 제목 ‘Collateral’의 뜻은 뭐가?

변호사인 내게는 아주 쉽다. 늘 쓰는 말이다. 법률 용어로 ‘융자금 상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제공하는 담보물’을 뜻한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물론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 구글 번역을 보았더니 별로 딱 맞는 말로 번역된 것이 없다.

“I am your collateral.” 택시 운전사가 살인청부업자에게 반항하며 하는 말인데, 이 대사로 보면 ‘부속물’, ‘2중대’ 정도가 맞을 것 같다. 살인 청부업자가 하룻 밤에 4명을 죽여버리는데 이 과정에서 애꿎은 택시 운전사가 살인청부업자의 부속물, 2중대가 되어 원치 않는 살인에 말려들게 되는 스토리니.

▶영화의 내용 = 영화의 스토리라인은 별로 복잡하지 않다. 동부에서 날아 온 살인 청부업자가, LAPD 형사와 FBI 수사관들에게 쫓기면서도, 다음 날 있게 될 마약두목 상대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설 4명의 증인들을 다 죽여 버리고 담당 검사마저 죽이려는 영화다.

그 과정에서 택시 운전사를 하루 일당을 주고 전속으로 고용한다. 택시 운전사는 이 살인청부업자에게서 벗어나려고 해 보지만 결국 끌려 다니며 살인에 가담하게 된다는 내용.

난 원래 탐 크루즈를 좋아해 본 적이 없었다. 그냥 인상 좋고 재수 좋게 젊어서부터 주연으로 받

탁된 배우 정도로만 알았다. 내가 좋아하는 니콜 키드만과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워했기까지 했던 배우(그저 배우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들을 좋아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시기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아무도 개의치 않고 아무런 피해자도 없으니 말이다).

▶탐 크루즈의 멋 = 그런데 이 영화에서 탐 크루즈 너무나 멋있게 나온다. 회색으로 머리에 물을 들이고, yuppy 하게 그가 죽일 사람들 인적 사항이 담긴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다닌다. 회색 양복을 입고 총을 빼어 들고 걷고, 뛰어 다니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cool 하다. 이런 외적인 면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살인청부업자답다.

“몇만 명이 르완다에서 해도 지기 전에 죽었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이후 아무도 그렇게 빨리 많은 사람들을 죽인 적이 없었지. (그렇지만)맥스, 당신 눈이나 깜짝 한거야? (Well, tens of thousands killed before sundown. Nobody's killed people that fast since Nagasaki and Hiroshima. Did you bat an eye, Max?)”

이렇듯 살인청부업자 빈센트는 냉소적이고, 엄세적이고, 인명에 대해 그저 무덤덤하다.

“수천 수백만의 별들로 이루어진 성운들, 한 번 눈 깜짝으로 하나의 점이 되지. 그게 바로 우리야. 우주에서 실종된. 경관, 당신 그리고 나...도대체 누가 알아차릴거야? (Millions of galaxies of hundreds of millions of stars, in a speck on one in a blink. That's us, lost in space. The cop, you, me... Who notices?)”

“미래라고? 언젠가 꿈이 이루어진다고? 어느 날 밤 당신은 깨어나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게 될거야. 모든 건 당신 주변에서 맴돌기만 했어(Someday? Someday my dream will come? One night you will wake up and discover it never happened. It's all turned around on you).”

▶여성 연방검사에게 사랑을 느껴 = 택시 운전사 맥스는 언젠가 리무진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택시 운전을 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

그날 저녁 어떤 매력적인 흑인 여자를 태우는데 어느 길로 가는 게 빠르냐 내기를 하다 갑자기 사랑을 느낀다.

알고 보니 이 여자는 연방 검사.

←영화 포스터. 영화를 찍은 Bliss 입구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없다

논설위원 경제 칼럼

가정에서 갖춰야 할 법적 서류



김창수(약대 64
경영대학원 68) NY
CPA·동창회보 논설위원

미국에선 모든 것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일처리와 결과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재산 상속계획을 유언장에 남긴다거나 의료 및 재정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우리가 평소에 꼭 갖추어야 할 중요한 법적 서류가 몇 가지 있다.

첫째, 한 개인이 생전에 남기고 싶은 말과 함께 자신의 재산 상속 계획을 하나의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언장이다. 즉 상속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법적 서류가 유언장인 것이다. 영어로는 ‘Will’ 이라고 한다.

유언장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생을 마감하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법적 서류다.

우리나라 말로 ‘유언장’ 하면 죽음과 직결되어 좀 꺼림직한

감정이 스며들어서, 이의 작성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죽음은 불시에 누구에게나 찾아 올 수 있는 것이므로, 나이드는 사람은 물론 젊은이들도 누구나 당장 갖추어 두어야 할 법적 서류다.

Will에는 본인의 사후에 원하는 대로 재산이 분배될 것과 누가 상속집행인(Executor)이 될 것인가, 그리고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사망할 경우 미성년자녀의 후견인(Guardian)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명시해야 한다.

Will은 한 개인의 사후에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기술해 놓고, 이를 작성한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임의변경이 불가능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류다.

따라서 자신의 재산에 관한 한 그 상속계획이 자제히 Will에 반영되어야 한다. Will은 현재의 재산상태나 상속세법, 소득세법 등에 비추어 가장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나 재정상담가와 함께 매년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둘째, 죽음에 이르는 병 중이거나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또는 의사표명을 못하는 상태에 처했을 때, 생사선택에 필요한 서류가 ‘Living Will(생사선택 유언장)’이다.

여기에는 생명보조장치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또는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지시사항이 기재되

어 있다. Will을 작성할 때 변호사가 Living Will도 함께 작성하면 된다. 작성 후 Will과 같이 보관하거나, 주치의나 변호사한테 맡겨두어도 된다.

셋째, 본인을 대신해서 법적 권한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가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다. 위임장은 정신이 온전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 작성 후에는 변호사에게 맡겨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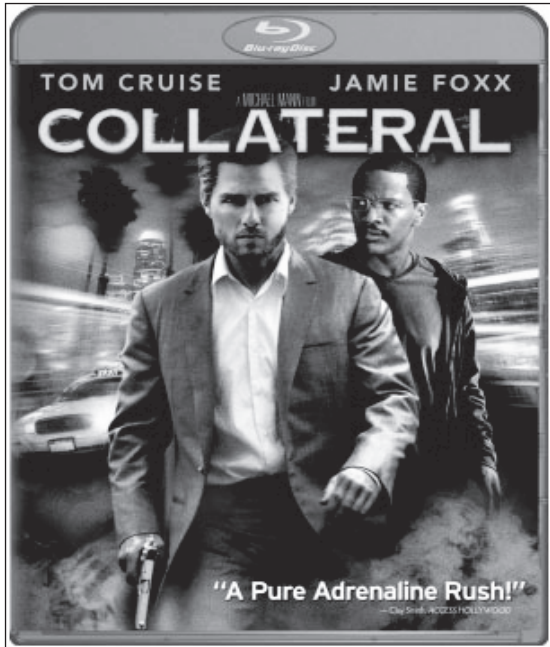
넷째, 재정과 재산(治産)에 관해 무능해졌을 때 본인을 대신해서 재정에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는 서류가 ‘재정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이다.

재정위임장을 가지고 있으면, 셰이프 테프릿 박스를 열 수 있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수표를 입금시킬 수 있고, 증여나 투자 활동을 할 수 있고, 비즈니스도 대신 운영할 수 있다.

다섯째, 육체적 정신적으로 의학적인 견해를 표명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중요한 수술이나 의료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대리인을 지명해놓는 서류가 ‘건강관리 대리위임장(Health-Care Proxy)’이다.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생명보조기 설치, 인공영양 공급, 뇌성 호흡 임퇴원, 메디케어, 장기기증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례에 관한 모든 것과 장기기증, 장지선정 등에 관한 희망사항과 지시 사항을 기술한 서류가 필요하다.

이것을 ‘장례지침서(Burial and Funeral Instructions)’라고 한다. 평소에 가족들께 위의 사항들을 말로 지시를 해도 되지만, 기록을 하거나 육성으로 녹음을 해두면 좋다.***



게 아니라고. 배경 소리 녹음에도 따로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오빠”라든가 “잘 있었어?”라든가 등의 나이트 클럽에서 주고 받을 만한 대화를 음악 소리와 섞어 녹음을 했다고.

어차피 음악 소리, 다른 대사들과 뒤섞여 막상 관객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임에도 이렇게 배경 소리까지도 신경써서 만든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물론 욕이라든지 몇 마디는 한국어 대사가 나온다.

▶살인자에게 쫓기는 두 사람 = 이렇게 증인들을 다 죽여 나가는 데 마지막 대상이 이 사건 담당 여검사다. 맥스가 이를 알게 되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함께 도망가다가 마침내는 빈센트와 대치하는 장면들이 영화의 후반부를 이룬다.

맥스와 검사가 함께 도망가면서 타게 되는, 새벽을 달리는 지하철 장면들이 인상적이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빈센트의 죽음 장면.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냉소적이다. 죽으면서 던지는 말. “어떤 녀석이 지하철에 타고는 죽어. 어느 누군가 알기라도 할 것 같아? (Guy gets on the subway and dies. Think anybody'll notice?)” 그가 앞서 한 말이다.

맥스와 여 검사가 지하철을 타면서 빈센트를 따 돌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빈센트는 살인청부업자의 감각으로 그들이 탄 지하철 기차를 가려 내어 기차 뒤에 올라탄다.

“이게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야 (This is what I do for a living).” 도망가는 맥스를 빈센트가 쫓아 갈 때마다 하는 말인데 이 장면의 대사로는 안 나오지만 한번 더 되뇌고 있을 것 같다.

▶탐 크루즈를 위한 영화, 탐 크루즈 팬을 위한 영화 = 앞서 언급한대로 이 영화는 탐 크루즈를 위한 영화이고, 탐 크루즈 팬을 위한 영화다. 나는 이 영화에서 탐 크루즈를 재발견했다. 회색 머리의, 총을 든 외모 뿐만 아니라, 엄세적인 살인청부업자 연기가 좋다.

탐 크루즈의 매력 하나만으로도 이 영화는 볼 만하다. 대사가 전반적으로 무척 어렵다. 하지만 이해 못해도 영화를 즐기기에 아무런 부족함은 없다.

마이클 맨 감독인데 밤 분위기 묘사가 훌륭하다. 그의 또 다른 성공작 Heat도 밤 장면이 많고 헬리콥터가 뜨는 등 그는 밤 분위기 묘사에 능한 것 같다(이 영화 역시 무대는 로스 엔젤레스다).

도시 한복판이지만 심야라 카요티가 한 마리 등장하는데 사악해 보이지 않고 눈빛만이 슬프다. 아마도 그저 살기 위해 다른 동물을 죽여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인가? 빈센트 또한 외로운 인간 사냥꾼일 터.

심야의 로스 엔젤레스의 다운타운과 지하철은 고적하다. 1천 700만 인구는 다 어디 가고 외로움과 텅빈만이 남아있는고? ***



관악세대/Acro광장

혈압약, 그 불편한 진실

이원영(인문대 81) CA
LA 중앙일보 편집국장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한의학 박사

저명한 정치활동가였던 리처드 최(캘리포니아 한인민주당협회 전 고문)씨가 갑자기 사망했다. 캘리포니아 강석회 전 어바인 시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았다. 두 사람은 십수년간 정치적 동반자로 식구 같은 사이다. 최씨의 비탄했던 몸이 연상돼 직감적으로 ‘고혈압’ 이 떠올랐다. 강 시장에게 메시지를 보내 ‘혹시 최씨가 혈압약을 복용해 오지 않았느냐’ 고 물었다. 혈압약을 먹어왔고, 최근엔 당뇨 때문에 고생했다는 답이 왔다.

주변에 고혈압 환자(?)들이 많다. 그들은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을 경고하는 의사의 말에 주저없이 약을 먹는다. 눈 딱 감고 믿는 것을 ‘맹신’ 이라고 한다. 의료 영역에서 맹신하다간 건강을 되레 망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2, 제3의 소견을 들어 맹신에서 벗어나야 현명해진다. 고혈압에 관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들어보자. -고혈압은 앓아야 하나. 혈전으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을 막기 위해 몸은 혈압을 높이고 있는데 혈압약을 먹으면 혈류가 떨어져 뇌경색 가능성을 높인다. 일본의 2006년 통계에 의하면 뇌졸중 중에서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은 13%에 불과하고, 혈

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거의 대부분(84%)이다."(마쓰모토 미쓰마사, ‘건강의 배신’ 중에서) -정상혈압이란 뭔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혈압은 몸이 설정해 준다. 필요한 혈압을 낮추면 혈전(피떡)으로 뇌혈관이 막힌다. 혈압약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보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에 두 배나 더 걸린다.(오구시 요이치, 도쿄의대 교수) -약을 장기복용하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음으로써 두뇌에 혈류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뇌조직이 손상될 수 있는데 이때 생기는 것이 치매다. 고혈압을 유발하는 식생활을 바꾸는 게 최선이다.(신우섭 의사, ‘의사의 반란’ 저자) -다른 부작용도 있다. 고혈압약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칼슘 길항제는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내리는 작용을 하지만, 심장의 근육을 약화시켜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어떤 혈압약도 장기복용할 경우 그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김진목, ‘의사가 된 후에 알게 된 위험한 의학, 현명한 치료’ 저자) -약이 돌연사를 예방하나. 혈압을 낮추었더니 사망률이 하락했거나,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이 감소되었음을 검증해주는 실제 데이터는 아직까지 없다.(곤도 마코토, 방사선 전문의,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저자)

“마음에도 용량이 있습니다”

한정민(농대 87) VA
워싱턴 가정상담소 상담사
미주 동창회 총무국장

옛말에 ‘참을 인(忍)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 고 했다. 순간 끊어 오르는 화를 못 참아 실수를 해본 사람이면 이 말에 공감할 것이다. 마음에 스트레스가 팍 찼을 때는 평소에는 참아지던 일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짜증이 밀려와 괜히 트집을 잡거나 말이 곱게 나가지 않게 된다. 밖에서는 애써 잘 참았는데 집에 와서 결국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에게 스트레스와 화가 다 쏟아질 때도 있다. 그러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더니, 스트레스란 녀석도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안전하다 느끼는 곳에서 가차 없이 튀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죄책감 마저 든다. 적지 않은 내담자들이 “계속 참았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참아 지지가 않아요” 라고 한다. 처음에는 충동을 피하는 최선의 길이 참는 거라 생각해서 억울하고 화가 나도 참았는데, 어느 시점 부터는 참아지지 않고 작은 건드림에도 감정이 수소폭탄처럼 폭발한다. 때로는 계속적인 체념과 포기로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경험하기도 한다. 상담사로 일하면서 ‘아! 마음에도 용량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무한대로 참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목까지 팍 차면 더 이상 답을 공간이 없으니 엉뚱한 곳에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폭발되어 나온다. 그래서 내담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 “나만의 스트레스 분출법이 있나요?” 이 질문 앞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선뜻 대답을 못한다. 참는 건 해봤는데, 어떻게 잘 뿔아내는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단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방법으로 마음의 용량을 넓히며 내공을 쌓을 수 있을까? 첫째는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 중에 스스로 자초한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것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다. 가끔 너무 많은 일과 사업을 한꺼번에 벌이고 결국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치여 지쳐 있는 이들을 만난다. 어떤 이는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오르기 위해 자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스트레스와 맞바꾼다. 혹시 내가 받는 스트레스의 일부가 내가 자초한 것이면 삶의 과감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살면서 상황이 주는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가 더 많다. 학교와 직장에서의 경쟁, 피할 수 없는 가족관계의 갈등, 다가올 시험 준비, 아픈 가족 돌보기 등은 피하기 힘든 스트레스들이다.

즉 상황 자체의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다. 이럴 때는 특히 스트레스 분출구(vent)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스트레스 정도를 잘 관찰하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퍼내며 참을 수 있는 용량을 넓히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게임이나 쇼핑 또는 비디오 보기나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한다.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좀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법으로 점차 바뀌어가길 권한다. 혼자 산책하거나 여행 가는 것, 감정을 쏟아내는 글쓰기, 운동, 좋은 사람과의 건전한 수다, 신앙생활 등도 건전한 분출구가 될 수 있다. 다만, 나의 분출구가 다른 이에게 위험하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됨을 기억하자.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퍼내며 ‘난 지금 스트레스를 밖으로 분출하고 마음의 공간을 만들고 있는 중’ 이란 인식을 하는 것이 좋다.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애쓰는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하고 있는 걸 인식하면 좀 더 잘 견디고 참을 수 있다. ‘참을 인(忍)’ 한자를 보니 칼날 ‘인(刃)’ 자 밑에 마음 ‘심(心)’ 자가 놓여 있다. 즉 ‘마음에 칼이 없혀 있다’ 는 뜻이다. 이는 마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스트레스, 화 등 해를 끼치는 감정들을 마음 위에 얹혀있는 칼로 가지치기 하듯 잘라내라는 옛 선조들의 지혜가 비춰진다. 마냥 놀려서 참는 수동적인 참음에서 스스로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참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듯 하다.***

-진정한 치료란 무엇인가. 진정한 의사는 실력있는 원예사와 같다. 갈색으로 시든 잎을 녹색으로 칠해 눈속임 한다고 식물이 살아나겠나. 진정한 의사는 식물의 뿌리를 다뤄 살리는 진정한 원예사가 되어야 한다.(알레한드로 융거, 심장전문의, ‘클린’ 저자) -현대의학이 나갈 길은. 진실한 의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일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사람들이 의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로버트 멘델존, 소아과 의사,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 저자) 이런 주장을 펴는 의사들은 무

수하게 많다. 다만 주류 의학계의 목소리에 가려 일반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조차 별로 없다. 이런 의사들의 주장을 소개하는 것은 한 가지 견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명한 자기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라는 취지에서다. 뇌졸중이 무서워 혈압약을 찾을 것인가, 뇌졸중이 무서워 혈압약을 끊을 것인가. 판단은 본인의 몫이다. 멘델존의 말이다. ‘책임을 지는 쪽은 언제나 환자다. 의사는 실패를 관 속에 묻는다’ 는 낡은 격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숙아내야 할 게 잡목 뿐인가

이종호(인문대 81) CA
LA중앙일보 논설위원

고국 다녀온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방방곡곡 사탕팔달 뺨은 도로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 요즘 서울에서 강원도 속초까지 차로 1시간 40분이면 간단다. 태산준령 곳곳을 뚫어 만든 고속도로 덕분이다. 서울서 통영, 거제, 목포 등 남해안 최남단 도시들도 4~5시간이면 이른다. 역시 수많은 터널과 교량으로 구석구석 연결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원스레 뚫린 전국 도로를 누비다 보면 확연히 달라진 것이 또 하나 눈에 띈다. 놀라우리 만큼 무성해진 나무들이다. 특히 4~5월 이맘 때의 산들은 거의 환상적이다. 이제 막 움을 틔운 연둣빛 새순들이 춤춤이 빚어내는 산야(山野)는 그야말로 한 폭의 눈부신 수채화다.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푸르렀던가. 1970년대 초반까지도 변변한 나무 하나 없는 민둥산 천지였다. 그런 산을 다시 녹화하겠다고 나선 때가 박정희 시대였다. 1960년대 산림법을 만들고 산림청을 설립하면서 강력한 산림녹화 정책을 펼쳤다. 1973년부터는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실행하며 이후 30년 동안 100억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다. 지금도 기억난다. 초등학교 때, 수시로 전교생이 인근 산에 올라가 묘목을 심고 물을 퍼다주곤 했다. 주말이면 깡통과 집게를 들고 송충이 잡으러도 다녔다. 그때 아이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가 있다. ‘산에 산에 산에는 산에 사는 메아리... 벌거벗은 붉은 산에 살 수 없어 갔다오. 산에 산에 산에다 나무를 심자... 메아리가 살게시리 나무를 심자.’ 그렇게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해 산을 가꾼 결과가 오늘의 푸른 한국이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에서 뜻밖의 기사를 보았다. ‘민둥산 걱정 끝... 나무, 너무 뽕뽕해 숙아내야’ 라는 제목의 기사다. 고려대 이우균 교수팀과 한국임업진흥원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요즘 고국 숲의 절반 이상

이 과밀화, 고령화로 나무가 더 이상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적절하게 나무를 베어내야 탄소 흡수량도 늘리고 물 저장량도 높이는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격세지감이다. 1946년 식목일이 제정된 지 69년 만에, 국가적인 산림녹화 추진 반세기만에 이제는 오히려 나무를 베어낼 걱정을 해야 할 지경이라니. 그리고 보면 이 또한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정신의 부산물이 아닌가 싶다. 솔직히 그 때는 몰랐을 것이다. 무슨 나무든 많이만 심으면 되는 줄 알았고, 빨리만 자라면 되는 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빨리 자라고 빨리 번성하는 수종(樹種) 위주로 무조건 많이만 심었다. 아카시아, 리기다소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그렇게 해서 심은 나무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아니었다. 이런 나무들은 경제성도 없고 관상용도 못된다. 사람을 숲으로 불러들이지도 못한다. 숲은 숲이되 다시 손을 대야 하는 반쪽짜리 조림사업이 된 것이다. 하긴 한국의 숲만 그럴까. 요즘 한국 사회의 수많은 곳이 그렇게 숙아내야 할 잡목들로 득실거리는 것 같다. 기독교만 봐도 그렇다. 한 때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라 고까지 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하지만 그렇게 양적 성장에 치중하다 보니 무늬만 신자인 얼치기도 덩달아 양산됐다. 아마 요즘의 기독교 위기론은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기업도 다르지 않다. 외형은 커졌으되 조금만 외풍이 불어도 취약함을 노출하고 마는 기업이 한 둘이 아니다. 정치권력에 빌붙어 연명하다 비호 세력과의 끈이 끊어지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모모(某某) 기업들이 단적인 예가 아닌가. 조림사업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한다. 심기에만 관심 두고 가꾸기엔 소홀했다간 오히려 뒷감당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게 나무심기다. 세상사 모두가 이와 다르지 않겠다. 결국 문제는 성과와 실적이 조급해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

관악세대/Acro광장

부시와 클린턴의 질긴 인연

민경훈(법대 78) CA
미주 한국일보 논설위원
미주 동창회 논설위원

지난 1990년 8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아무런 명분도 없이 쿠웨이트로 쳐들어가 모두 점령해 버렸다.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고 쿠웨이트 합병을 기정사실화 하면 감히 누가 이에 토를 달 것인가’ 하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판이었다. 아버지 부시가 이끄는 미국을 비롯한 34개국으로 이뤄진 다국적군은 1991년 2월 지상전투 개시 4일 만에 쿠웨이트를 탈환하고 사실상 이라크의 항복을 받아냈다.

미군만 54만여 명이 참가한 이 전쟁에서 미군 사망자는 고작 146명이었다. 그나마 그 중 35명은 아군끼리 오발사고로 인해 죽었으니까 이라크 군에 의해 사살된 미군은 111명에 불과했다. 아들 부시가 치른 이라크 전 미군 사망자 수가 4천 명이 넘는 것과 비교하면 첫 번째 걸프전이 얼마나 완벽한 승리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냉전 후 첫 승전 대통령이 된 아버지 부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고 1년여를 남겨둔 지난 1992년 대선은 해보나 마나인 듯 싶었다.

이 때문에 나오기만 하면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따내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던 마리오 쿠오모 뉴욕 지사 등은 아예 출마를 포기했다. 대신 별로 이름도 들 어보지 못한 울망줄망한 후보들 7명이 대선 도전장을 던졌다. 언론은 이들을 ‘7명의 난쟁이’ 로 불렀다.

그 중 한 명이 빌 클린턴이다. 그는 당시 정치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아칸소 주지사로 무명이었지만 참신함과 젊음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대중 속에만 들어가면 물을 만난 물고 기처럼 뽼뽼 나는 그의 정치적 재능이었다.

그가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만든 홍보 영상 ‘희망에서 온 남자(The Man from Hope)’ 는 지금까지도 정치 선전물 중 걸작으로 꼽힌다.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 이름이 ‘희망’ 이라는데 착안한 이 비디오는 “이 사람을 찍으면 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 는 착시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

10여년 뒤 오바마가 ‘담대한 희망’ 을 들고 나온 것은 여기서 한 수 배웠다 봐도 좋다.

거기다 클린턴은 1991년부터 나 빠지기 시작한 경제를 줄기차게 물고 늘어졌다.

“문제는 경제다, 바보야(It’ s the economy, stupid)” 는 근자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정치 슬로건이다.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다.

결과는 1992년 대선에서의 완승이었다. 한 때 90%가 넘는 지지율을 자랑하던 아버지 부시는 단임 대통령이란 불명예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백악관을 비워줘야 했다.

그러나 8년 뒤 아들 부시는 클린턴 행정부의 2인자이자 그의 후계자인 앨 고어를 꺾음으로써 어느 정도 설욕을 했다.

2016년 대선도 클린턴과 부시의 재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빌 클린턴의 아내 힐러리가 사실상 지명을 따 놓은 상태다.

공화당에서는 수많은 후보가 난립하고 있으나 역시 부시 가문의 쟁 부시가 지명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다.

쥬는 공화당 중진과 전통적 지지층, 거액 현금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아내가 토종 백 시간이고 불법체류자의 합법 체류 문제에서도 우호적이어서 공화당의 결정적 약점인 히스패닉 표를 끌어오는 데도 유리한 고지 에 서 있다.

티파티 등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있기는 하나 이들 표를 한 데 모을 기수가 공화당 내에 없다는 것이 쟁의 행운이다. 다른 후보를 압도하는 모금력도 지명을 따 내기 위한 캠페인이 길어질수록 쟁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선거도 다른 것이 비슷하다면

를 시장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구글 무인차 프로젝트 총괄 크리스 엡슨은 밀레니엄 세대인 11살짜리 아들이 5년 후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IT업계가 개발을 주도하고 있지만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경쟁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어 15년 이면 본격 상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쟁하고 달리는 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편하게 책을 읽고 있고 무인차와 무인기가 땅에서, 하늘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운송과 택배를 하는 풍경, 10년 내에 볼 수 있는 세상이다.

이 모든 것이 스마트한 테크놀로지 덕분이다. 스마트폰, 스마트 워치, 스마트 자동차에 스마트 TV, 스마트 밥솥,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정수기...

스마트 구두도 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신고 있는 구두의 색상이나 디자인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구두란다. 첨단 테크놀로지에 힘입어 일상의 참 많은 것들이 똑똑해졌다.

반면에 그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나는 계속해서 ‘덤 앤드 더 머(Dumb and Dumber)’ 가 돼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를 쓰고 ‘스마트 대세’ 를 쫓아갈 열의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다만 원하는 것은 원시인 취급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스마트하지 않아서 겪는 불편함이 일상에 너무 큰 지장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눈이 동그해지는 것은 건딜수 있는데 사는 동안 찢찢매며 너무 많은 실수를 해야 한다면, 휴~.***

결국에 가서는 돈이 많은 쪽이 이기는 게임이다.

지금으로 봐서는 힐러리가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힐러리에게도 흠집은 있다. 빌 클린턴 때부터 쌓여온 술한 스캔들에, e-mail 폐기와 제3세계 독재자들의 클린턴 재단 현금, 남편보다 훨씬 덜

어지는 캠페인 능력, 그리고 민주당 집권 12년이라는 피로감 등 약재도 많다.

전직 대통령의 아내와 부시 가 아들 겸 동생의 대결은 과연 이뤄질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승자는 누가될 것인지, 내년 선거는 꽤 재미있을 것 같다.***

건강의학 칼럼

고혈압과 뇌졸중(중풍)

차민영(의대 76) C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문의> 45세 여성으로 은행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155mmHg/100mmHg로 높지만 아무 증상이 없으며 머리도 안 아픕니다. 그래도 고혈압을 치료해야 하나요?

또 언니는 혈압이 높아 약을 먹어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에 관해 안심해도 되나요?

또어머님은 뇌졸중 환자인데 고혈압이 있습니다. 고혈압을 조절하면 재발 걱정이 없나요?

<답> 고혈압은 대부분 아무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혈압이 올라 있으면 증상이 없어도 무조건 치료해야 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얼마까지 혈압을 떨어뜨려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수축기 혈압 120mmHg, 이완기 혈압 80mmHg 이하로 떨어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수축기 혈압이 높은 것과 이완기 혈압이 높은 것 모두 뇌졸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뇌졸중에 더 잘 걸리게 됩니다. 뇌졸중 환자의 약 70%는 고혈압이 원인입니다. 고혈압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약 4-5배(혈압이 140/90만 돼도 약 1.5~2배)정도 뇌졸중에 더 잘 걸립니다.

뇌졸중에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혈압이 높은 그 자체로는 환자에게 별다른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은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높은 혈압은 지금 증세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혈관을 손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환자에게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치료하기에 시기가 늦은 것입니다.

고혈압 치료를 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혈압이 높으면 심장이 커지게(붓게)됩니다. 즉 ‘심부전상태’ 에 이르게 됩니다.

▶고혈압에 의해 신장이 손상되면 신부전 상태가 되어 몸이 붓고 숨이 차게 됩니다.

▶고혈압에 의해 뇌졸중에 걸리면 일평생을 장애인으로 지내게 됩니다.

▶고혈압은 망막도 손상시킬 수 있어 영원히 시력을 잃게 됩니다.

다음으로 언니의 경우는 고혈압을 잘 치료함으로써,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혈압을 10mmHg만 낮추어도 뇌졸중에 걸릴 위험을 42%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압이 높은사람이 혈압 강하제를 먹고 있다고 해서 뇌졸중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혈압 강하제를 먹기 시작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의 뇌혈관 손상이 있었다면 이후 혈압 강하제를 복용하더라도 이미 생긴 혈관손상을 회복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갑자기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급격히 오르는 혈압은 평소에 먹는 혈압 강하제로 완전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뇌졸중의 증상이 가볍거나 아예 없지만, 뇌혈관은 매우 심하게 손상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혈압에 의해 자신의 뇌혈관이 서서히 손상되고 있는 동안 이를 전혀 모르고 지냈던 것입니다.

고혈압을 치료하면 혈관이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손상된 혈관은 원래대로 회복이 안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 고혈압을 치료하더라도 앞으로 뇌졸중이 생길 가능성은 다른 사람에 비해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경우는 우선 고혈압이 이제껏 이 환자의 뇌혈관을 손상시켜 뇌졸중을 일으켰다면 뇌졸중에 걸린 이후 계속되는 고혈압은 더욱 혈관을 손상시켜 결국 뇌졸중이 재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는 반드시 혈압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뇌졸중을 앓은 환자들 중에는 뇌혈관이 매우 많이 손상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경동맥이나 중뇌동맥이 모두 막혀버린 경우입니다.

이때는 뇌로 가는 혈액이 항상 모자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에 걸린 사람이나, 걸린 확률이 높은 분들은 꼭 경동맥 초음파를 1년에 한 번 정도 찍어서 경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진 정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야 합니다.

필자의 내과에서는 최신 정보와 최고의 약을 가지고 고혈압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뇌졸중을 예방해 드리므로, 고혈압을 가지신 분들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행 <4>

Holocaust 박물관

이영목(공대 59) DC
미주 동창회 상임교문

홀로코스트(Holocaust) 박물관 건물 앞에 섰다. 언제인가 생각이 잘 나지는 않지만 서울에서 온 친구를 위하여 위싱턴을 안내 하던 중 ‘왔소. 갔소’ 하는 식으로, 말 그대로 잠시 들러 본 적이 있을 뿐인데 그래도 기억이 꽤나 끔찍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다가 나는 문득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 중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탐방에서 얻은 답** = 내용인즉 나치 정권의 600만 유대인 학살의 설계자요, 집행자 아이히만(Eichmann)이 뉴렘버그(Nuremberg)에서 재판받고 있던 중 수용소에서 2년 감금되었던 예하엘 디누어(Yehiel DeNur)가 그 재판에 증인으로 법정에서 서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통곡하다가 실신해서 재판이 중지되었다 한다.

20년 후 ABC 방송의 마이크 웰레스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때 왜 울고 실신을 했는가?”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괴고석에 앉은 아이히만을 보니 괴물이 아니고 그저 평범한 이웃 아저씨처럼 보였지만 그러한 평범한 인간이 자기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600만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괴물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전율하다가 그러한 세상에 사는 자기가 무서워졌다” 는 이야기였다.

무엇이 평범할 수 있는 사람을 악마로 변신시킨 것일까? 이것이 내가 박물관 탐방 중 얻어야 할 해답이었다.

▶**Holocaust** = 홀로코스트란 그리스어로 ‘전체’와 ‘태우다’의 합성어로 제사의 번제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으나 이제는 그저 집단학살의 의미로 쓰인다.

검열대를 지나 건물에 들어섰다. 건물 디자인이 모두 철재, 벽돌로 마치 내가 수용소 안에 잡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나는 4-5년 전 독일 뮌헨에 있는 다카우(Dachau) 수용소를 방문한 것이 생각났다.

다카우 수용소가 최초의 수용소

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모든 길이 작은 조약돌로 되어 있어 밤에 탈출을 하려고 해도 자갈 밟는 소리 때문에 불가능했다는 것과, 시체를 화장하는 화로, 그리고 수용소 수용인들의 거처 등 끔찍한 현상이었다.

안내 데스크에 가서 질문을 했다. “이 박물관이 미국 박물관이요, 아니요.”

그랬더니 건물 제공은 스미소니안 박물관에서 해주었지만 운영은 유대인 협회(Jewish Community)와 기부금으로 운영된다고 했다. 내가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안내 데스크에 최소한 20여명의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내 눈에는 전부 유대계 여자들로 자원 봉사자 같았다.

▶**유대인의 민족성** = 전시는 4층부터 시작되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한 명이 서 있다가 8명이 되기를 기다려 4층에서 무엇보다 보라고 안내하는 것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극성(?)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4층은 1933년 히틀러가 와이마르 공화국 대통령으로부터 총리로 취임받는 것을 시발점으로 시작된 뉴렘버그(독일식 발음은 뉘른베르크) 법령으로 유대인들의 모든 권리박탈과 차별 대우하기 위해서 다윗 별 표지를 달고 다니게 하는 것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펼쳐진 참혹한 현장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었다.

3층은 1940년부터 1945년 종전이 될 때까지 게토(ghetto)라 불리는 수용소의 실상을 비롯해서 유대인 학살의 현장을 고발하는 것과, 수북히 쌓인 신발들의 끔찍한 유품과 흔적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2층에는 저항과, 유대인들을 도운 용감한 인간애, 그리고 법정과 양심의 소리, 그리고 고인들

↑Holocaust의 생생한 역사가 기록돼 있는 박물관 현장. ‘Never Again’의 뜻이 의미심장하다.

을 추모하는 촛불 추모의 방이 있었다.

▶**원죄와 업보** = 유대인들의 비극에 잠시 눈을 감고 묵념했다. 한 편 전시물을 보는 마지막 방에서 나는 이 홀로코스트의 주목적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전 인류에 대한 메시지이지 유독 유대인들의 비극의 역사를 알리는 것만이 아닐 것인데 어찌 유독 유대인과 관련된 전시물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원죄를 짓고 태어난 인간은 유대인을 말하는가, 아니면 아프리카 흑인이나 아시아 몽고인, 북극 에스키모, 남미 잉카족 등 전 세계인들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시 말해 유럽의 당시 900만의 유대인 중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500만 명 이상의 슬라브족, 정치범, 집시, 여호와의 증인, 신도, 프리메이슨 회원, 동성애자, 장애인들이 학살당했음을 알리면서 이들에 대한 희생 또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시해야 하지 않았을까 했다는 말이다.

나는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이동 중 계속 두 개의 단어가 머리 속에서 뱅뱅돌고 있었다. ‘원죄’ 그리고 ‘업보’ 라는 단어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의하면 아담과 이브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고 이로 인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지고 태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이 원죄를 짓고 태어난 인간이란 유대인들을 말하는가? 아니면 아프리카 흑인이나 저 멀리 아시아 대륙 초원지대의 몽고인, 북극의 에스키모, 남미 잉카족 등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을 다 의미하는 것인가?

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유독 유대인들은 그리 똑똑한가? 진정 하나님이 골라낸 선민이란 말인가? 도대체 2000년 넘게 세계에 흩어져 사는 종족 중 어찌 유대인들만 그 종족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의 2000년의 너무나도 뚜렷한 존재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어 왔



↑유대인들에 대한 학대와 학살 모습이 담긴 전시실의 모습이다. 아랫 사진은 학살된 유대인들의 신발을 모아 둔 사진이다. .

고, 지금 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나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문득 중국의 사자성어가 생각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과한 것은 부족함과 다름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 유대인들은 너무 똑똑함이 지나쳐 홀로코스트에서 본 것처럼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불교에서 자주 쓰는 업보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부자도 적당히 되고, 그저 몇명 정도만 학자 또는 교수가 되고, 적당히 유대인끼리 유대관계를 유지했으면 어땠을까? 세계의 금융계를 휘어잡고, 유명 교수들 자리를 다 차지하고, 세계의 보석은 다 휘어잡고, 너무 뽕뽕 뽕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프랑스가 전쟁 배상금 삭감은 해주지 않고, 가지고 있던 식민지는 다 빼앗겨 원로 확보와 생산품 판매는 할 곳이 없었다. 인플레이션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이러한 처참한 독일인들의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너무 잘 살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우뚝 솟아나지 않았는가?

▶**이슬람 IS의 원인은** = 나는 유대인들의 아픈 역사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세우고 ‘참우리는 역울했다’라고 하는 세계를 향한 외침보다 이 너무 똑똑함과 업보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스라엘이란 꼬마 나라가 이집트라는 아랍의 간판 나라를 단 6일에 박살을 냈다. 전쟁도 좀 적당히 이긴 것이 아니라 박살을 냈다는 말이다.

이 지나침이 이슬람 교도들이 정부를 못 믿겠다면서 이슬람 형제단을 만들고,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아프간에 십자군 같은 지하드를 만들어 참전이 시작되고, 빈 라덴을 만들어내고, 오늘날 전 세계의 IS이슬람 국가라는 흉물을 만들게 한 1차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 하면 안될까?

얼마 전 미 공화당 초청으로 이스라엘 총리가 오고, 미 상하원 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미움을 사면 차기 의원선거에 낙선 운동을 펼칠까 겁이 난 상하의원들이 참석해 굶핀거렸다.

그의 연설 내용은 이란을 박살 내자고 하는 것은 아닌지? 글세! 이게 또 너무 한 것이 아닌가, 미국을 포함 전 세계를 다 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두렵다. 나는 그들이 너무 맹렬하지도 말고, 너무 똑똑하지 말고, 그저 적당했으면 한다.

영화 산업은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삼손과 데릴라, 살로메, 다윗 왕, 십계명, 벤허, 퀴바디스, 마사다 등 참으로 유대인 띄우기 영화가 많기도 많다.

그러면 한 번쯤 모하메트나 아니면 하다못해 가장 비극적인 4차 십자군 이야기나, 사자왕 리처드와 멋진 전쟁을 벌린 술탄 살라딘 정도의 영화 하나쯤 만들어주면 안될까?

또 내가 쓸데 없는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음악이나 들으려고 CD를 한 장 골랐다. 고르다 보니 독일 작곡가 와그너의 판은 없었다. 시간이 있을 때 하나 사야지 했다.

그러면서 CD 상권도 다 유대인이 잡고 있어 와그너CD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 하며 쓴 웃음이 지어졌다. ***

역사 칼럼

이주갑인상(二周甲引上)

일본 역사서의 오류



장수영(공대 57) MD
포항공대 전 총장

일본역사를 알고자 하면 ‘이주갑인상(二周甲引上)’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만나게 된다. 일주갑이 60년이니 이주갑이면 120년 인데 초대 신무천황(神武天皇)의 즉위연도를 BC 660년으로 만들어 놓고 가상의 천황의 연대를 조작해 놓다 보니 백제와 중국기년(紀年)과 맞지 않아서 일본서기(日本書紀)의 연대를 120년 올려야 한중기년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신공(神功)은 중애천황(仲哀天皇 재위 192~200)의 왕비였는데 중애가 죽은 후 천황에 즉위하지 않고 269년까지 나라를 다스린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중애가 죽자 바로 신라를 정벌하러 출발했는데 마닷속의 고기들이 다 떠올라 배를 도와 노를 쓸 필요 없이 신라에 이르러 신라왕의 항복을 받고 황후가 되고 있던 창을 신라왕궁 문에 세워놓았다.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 왕도 신라가 항복했다는 것을 듣고 신공황후에게 항복하였다’ 이것이 소위 신공의 삼한정벌인데 지금은 일본인들도 믿지 않는다. 같은 해 12월에 신공은 왕자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15대 응신천황(應神天皇)이며 신공이 죽은 후 70세인 270년에 즉위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일본서기 신공 55년 (255년) 기사에는 백제의 초고왕(肖古王)이 흉(薨)하고 56년에 백제 왕자 구수(貴須)가 즉위했다는

기록이 있다. 초고왕은 근초고왕으로 375년 봉했고 귀수왕은 근구수왕(近仇首王)이므로 120년의 차이가 난다. 응신천황대 기사에도 백제의 진사왕(辰斯王 재위 385-392)과 아신왕(阿莘王 재위 392-405)의 기사가 나오므로 응신천황의 재위는 270-313년이 아니고 390-430년이 되어야 한다. 신공이 죽은 269년부터 응신즉위 390년까지 일본열도에는 통치자가 없었던 공백기로 일본역사의 기록을 한중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다.

위지 왜인전(魏志倭人傳)에는 야마대국(邪馬臺國)의 비미호(卑彌呼 히미코)라는 여왕이 등장하는데 삼국사기에도 신라 아달라왕 20년(173년)에 왜여왕 비미호가 견사내빙(遣使 來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왜인전에서는 비미호가 247년에 죽고 종녀일여(宗女壹與)가 그뒤를 잇고 야마대국은 269년에 멸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서기에서는 비미호여왕에서 힌트를 얻어 신공황후를 창작한 것으로 보이니 일본사학자들은 비미호와 신공은 별개 인 물로 믿으나 문정창(文定昌)과 김성호(金聖昊)는 같은 비미호와 신공이 같은 인물이며 신라에서 왜국으로 간 세오녀(細烏女)가 비미호라고 주장한다.

712년에 나온 고사기(古事記)와 720년에 나온 일본서기는 모두 태조신야스마로(太朝臣安萬侶 723년 사망)가 만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는 663년 백제 부흥군이 신라에게 패망했을 때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으로 생각된다.

일본서기에는 신무가 초대천황으로 기록돼 있으나 10대 숭신천황(崇神天皇)도 어조국천황(御肇國天皇)이라 했는데 어조국이란 나라를 시작했다는 뜻이므로 일본역사에는 시조가 둘인 것으로 보인다. 응신은 신공황후와는 아무 관련없이 390년에 즉위한

공표할 수 없다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닌가. 148명은 아흔 아홉 마리 양인가.

‘어처구니’라는 말이 이런 경우에 딱 맞는 어감인지라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았다. 뜻인즉 ‘상상 밖으로 큰 물건이나 사람을 이르는 말’로 정의돼 있다. ‘없다’라는 말과 더불어 ‘어처구니없는 값’, ‘어처구니없는 거짓말’, ‘어처구니없는 뜻’이란 용례로 어이없어 어안이 병병해지는 경우에 쓰인다.

‘없다’는 어미가 붙었을 때 의미는 선명하다. 어처구니의 용도로서는 알겠는데 어원으로는 미진해서 더 탐색해 보니 몇 가지 실이 있었다.

하나는 곡식을 가는 맷돌의 손잡이를 어처구니라 하는데 맷돌의 손잡이가 빠져 나가 없어 난감한 상황을 ‘어처구니없네’라 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어처구니’란 본래 궁궐 건축물 등의 처마 위에 장식된 ‘토기’를 말하는데

우주과학 칼럼

달과 지구



최원효(공대 59) CT

누구나 젊었을 때 애인과 함께 고요한 달 밤에 date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대화는 궁뎅하고 기껏 한다는 말이 “달이 참 밝군요”, “그렇네요” 그게 다였던 일도 있겠지요.

할 말은 없고 그저 느낌만 교환할 뿐, 지나고 나면 참 시시하지요. 이럴 때 대화를 이어갈 좋은 화제를 소개합니다.

달은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시공을 통해 누구나 잘 안다고 하나, 누구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구의 직경은 12,756 km, 달의 직경은 3,476 km이니 지구가 약 4배 큼니다. 또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386,000 km로 지구 직경의 30배 가량 떨어져 있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잘 알려진 대로 150,000,000 km 입니다.

우리는 가끔 개기일식도 보고, 부분일식도 봅니다. 그래서 개기일식을 기준으로 하면 달이 태양 전부를 겨우 가렸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보는 태양과 달의 크기가 비슷하다고 하면 150,000,000 : 386,000 = x : 1. x = 약 400,

것이 되며 한반도에서 건너간 왕일 가능성이 많다.

와타나베미츠토시(渡邊光敏)는 응신이 백제의 계왕(契王 재위 344-346)이었다고 주장하며 이시와다리신이치로(石渡信一郎)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은 궁궐이나 건물 지을 때 이 ‘어처구니’를 깜박 잊고 올리지 않은 것에 어이없어 사람들이 기왓장들을 쳐다보며 ‘쫄쫄, 어처구니가 없구먼!’하고 혀를 차곤 했던 데서 비롯됐다고도 한다.

한편으로 ‘어처’란 한자어로 요철공(凹凸孔), 이를 어처라고 하는데 건축의 들어감과 나옴을 직각으로 홈을 파서 맞물린 이름새로 비틀림과 빗물을 막아주는 정밀한 맞물림인데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은 요철도 구멍도 없다는 어깃장졌다는 말이다.

궁궐건축과 장식을 탐색해보았더니 어처구니(於處軀尼)에서 유래됐고 중국 송(宋)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추녀마루에 현장법사를 비롯한 서유기 인물들이나 중국의 토신들 아니면 동물들의 토기 상을 액신과 화마를 막아주기를 기원해서 올려놓았다고 한다. 송과 당나라에서는 민간 가옥에도 올려놓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궁궐에만 허락됐다고 한다.

즉 태양의 직경은 달의 400배가 되고, 지구 직경의 약 100배가 됩니다. 한편, 태양의 부피는 달의 64,000,000 배가 됩니다.

해가 넘어갈 저녁에 해를 따라가는 달은 둥근 면이 해를 향하며, 이를 초승달이라 하고, 날이 지남에 따라 점차 해와 거리가 멀어지며 달의 모양은 둥글게 커지고 결국, 해는 지는데 보름달이 뜨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다 한 밤중에 뜨는 달은 점차 둥근 면을 반대로 하고 작아 집니다. 그러다 태양보다 먼저 가는 그믐달로 점차 사라 집니다. 북극성에서 지구를 볼 때,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달도 자전과 지구 주위의 공전 주기가 같을 뿐 아니라, 동시에 같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며, 달과 지구도 역시 태양 주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금성은 시계방향으로).

또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원판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원판에 5도 가량 기울어졌고 그 기우는 방향은 변하지 않지요. 그래서 일식은 매월 일어나지 않아요. 기원 전 BC 500년 경 이 오니아의 과학자 Thales가 다음 일식을 예언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런 천체의 mechanism을 이해해야 얻을 수 있을 답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월면 지각의 두께는 60km인 반면 반대편의 지각은 150km라 합니다. 달의 내부도 지구와 같이 무거운 철의 용융상태인데 아마도 항상 한 면만 지구를 보고 있으므로 지구 인력에 의해 magma가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 같군요. Magma 상태의 conductor가 움직이지 않고 자전도 지구와 달리 하루가 28일씩 걸리므로 달에는 자기장이 없겠지요. 그래서 태양풍을 막아주지 못해 공기도 없는 것 같아요. 또 공기가 없으니 기압도

백제의 곤지왕(昆支王)이 바로 응신천황이었고 가야의 김수로왕이 숭신천황이었다고 주장한다. 신무와 숭신은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많고 결국 한반도에서 건너간 神武, 崇神, 神功, 應神등에

왕과 왕비의 거처 지붕 귀마루에 놓였는데 올라가 있는 저팔계를 상상해 보면 어처구니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식탐으로 8가지 음식은 먹지도 말라는 이름을 얻은 자가 쇠스랑 휘두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삼장법사 일행이 어처구니인데 이게 없다는 것은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났다는 것이니 답답한 부처님 심정이 이해가 간다. 손바닥을 뒤집어서라도 찾아야겠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에서는 조종실에 반드시 2명의 조종사가 같이 있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또 항공사들은 다투어 비행기 기수의 코 위에 어처구니를 장착해 안전을 과시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엔지니어들은 어처구니에 의한 공기 저항을 계산하기에 바쁘겠다. 탑승자들도 어처구니 소지가 필수가 되겠다. 탑승시 보딩 패스와 함께 어처구니 소지를 확인하겠다. 아닌 경우에는 생명보험 지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겠다.***

0기압이 되고 따라서 마지막 한 방울의 물도 모두 수증기로 증발 되어 태양풍에 쓸려 나가 없어 집니다.

내가 달에 의자를 갖고 가서 앉아 하늘을 보니, 지구에서 본 하늘은 파란 색인데 달에서 본 하늘은 까만 색이군요. 태양도 밝고 큰 건전지 같으며(산란 효과가 없음) 동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데 하루가 지구 시간으로 28일 걸립니다. 하늘에는 밝고 파란 지구가 보이는데 그 크기는 우리가 보는 달의 직경 보다 4배, 지구의 둥근 면적은 달이 보여주는 면적보다 16배나 크며, 항상 제 자리에 서 있고 움직이지를 않으며 다만 자전만 하는군요.

지구의 밝기는 낮과 밤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군요. 낮에는 태양광선의 반사광이지만 밤에는 전기불의 직접 광선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파 망원경으로 보면 tv, radio, internet 등 각종 전파로 밤 같지 않아요.

운석에 얻어맞은 자국은 수천만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커다란 바위 돌도 낮과 밤의 기온 차이에 의한 수축 팽창으로 부서 집니다. 물론 넓이뛰기, 높이뛰기는 중력이 적으므로 지구에서보다 수 십배 쉬워 집니다.

물병을 열면 금방 끓고 증발하지요. 우주복 내에 1기압의 압력이 없으면 체내의 압력으로 눈 알이 튀어 나오고 피가 진공에 빨려 나올 겁니다. 옆에서 크게 떠들어도 안 들리고요.

이렇게 하니까 꼭 무당이 귀신 이야기 하는 것 같군요 !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샷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이 노래에서 사실을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돛대도 아니 달고, 샷대도 없이’만 사실 같습니다. ***

는 모두 ‘神’자가 포함되는데 이를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곤지왕은 개로왕(蓋鹵王 재위 455-475)의 아우로 일본서기에 의하면 460년 왜국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임신한 부인이 축자각라도(筑紫各羅島)에서 아기를 출산했는데 그 아기가 훗날 백제 무령왕(武寧王 재위 501-523)이다. 또한 곤지의 아들 모대(牟대 또는 末多)는 훗날 백제의 동성왕(東城王 재위 479-501)이 된다.

일본서기에 백제왕이 등장하는 것은 신공 55년(255년, 실체는 375년)이 처음이므로 일본사학자들은 그 이전의 삼국사기 기록을 무시해서 신라의 박혁거세, 고구려의 주몽왕, 백제의 온조왕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풍납토성의 발굴로 백제의 하남위례성의 존재가 확실해졌고 삼국사기의 초기기록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백제유민들이 일본서기를 만들면서 백제기의 기록들을 왜곡해서 고대로부터 백제가 일본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기록했다. 만세일계 황통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상의 초기천황들의 재위연도를 늘려놓고 응신천황을 신공의 아들로 만들어 놓기 위해 이주갑인상이라는 술책을 사용했던 것이다. ***

하산 길의 단상



한달선(의대 58)
한림대학교 전 총장

산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하산 길에 접어들면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편안함과 더불어 힘들여 하던 일이 덧없이 끝날 때의 아쉬움과 허전함을 함께 느끼게 된다. 오랜만에 홀로 나선 산행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족히 60대 중반은 꽤 보이는 네다섯 사람이 시끄럽다 싶을 만큼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면서 활기찬 걸음으로 뒤따라온다.

그들에게 길을 비켜주려 서 있다가 잠시 쉬기 위해 바위에 걸터앉아 숨을 돌린다. 맑은 바람이 더없이 시원하고 서두를 필요도 없어 한창 물 오른 검푸른 녹음에 멍하니 시선을 주고 있노라니, 생뚱맞은 생각이 떠오른다.

“노인이라 불릴만한 나이인데도 꽤 유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저들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을까.”

최근 지인들의 자전적 문집들을 읽으면서 너리를 땀똥 뚫은 삶에 대한 가벼운 상념 몇 토막이 스친다. 누구나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산을 오를 때처럼 힘들기도 했을 것이고, 정상에서의 성취감과 상쾌함 같은 기쁨도 느꼈을 것이며, 하산 길처럼 편안하고 허전한 시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란 산행과는 달리, 복잡다단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다. 우리네 세상살이는 예기치 못한 뜻밖의 상황에 부딪치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고, 우발적인 사소한 일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세상에는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고, 자신의 삶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 많지가 않다. 그래서 자고로 사람들은 ‘인생은 고해(苦海)’라고 하는 것이겠는데, 그만큼 ‘인생의 참다운 즐거움은 영원히 멈추지 않는 고통을 극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 있다’는 철학자 니체(Nietzsche)의 지적은 여전히 유의미한 감계(鑑戒)라 할 것이다.

잘 알고 있다시피, 삶의 괴로움은 대부분 일에서 연유하게 마련이다. 현대인에게 일이란 삶의 수단일 뿐 아니라, 삶의 핵심이기도 한 것이다.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람들을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바라지만, 일하는 것 자체를 즐기기도 한다. 그래서 일을 선택할 때는 보상 등의 조건과 함께 일의 성격과 내용도 중시한다.

파스칼(Pascal)은 “인간은 모든 직업에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 것은 방 안에 가만히 있는 것뿐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것은 일이 우리네 삶의 필수적 요소임을 강조한 지적일 뿐, 모든 사람이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적성을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불행하게도 일하는 것 자체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 사는데 필요한 보상을 얻는 수단 이상의 의미가 별로 없는 일에 어쩔 수 없이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일이 삶의 고통을 유발하는 예가 흔한 것은 바로 여기서 기인한다.

우리는 일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가게 마련이다. 출생을 비롯한 삶의 원초적 요소부터가 자신의 선택이 아니듯이, 성장과정을 거쳐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렇게 제약이 심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이나 행위가 개인은 물론 사회에도 중요하게 작용하며, 그 결과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인생은 괴로움이 가득하고, 자신이 하는 일은 별 의미가 없는 하찮은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극심한 무력감에 빠져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며, 일에 의욕을 가질 수도 없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에 따라서 얼마쯤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을 실제보다 더 훌륭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신의 지난날을 말하거나 기록할 때 자랑스러운 일은 과장해서 내세우고, 부끄러운 일은 접어두거나 축소하게 마련이다.

물론 이런 시류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거짓이 아니라면 굳이 두루두루 밝혀야 한다고 우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자신들의 잣대로는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진정한 믿음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일과 삶에 성심을 다했음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다만 공적 역할과 관련된 것이라면 사소한 허위나 순기기가 하더라도 타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역사적 진실의 왜곡으로 이어져 후세에 잘못된 교훈과 신호를 줄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것들과는 구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이 더 잘 보이고, 기억하고 싶은 것이 더 오래 머리에 남는다고 한다. 개인적 체험을 한 가지 소개하기로 한다.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부득이 중단하고 2년 만에 귀국했다가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학업을 계속하려고 같은 대학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도착할 때까지는 만학이지만 학업을

짧은 노래

박평일(농대 69)VA
미주 동창회 감사

‘한 가슴에 난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면 난 헛되지 산 것이 아니리라. 한 인생의 아픔을 달랠 수 있다면 한 고통을 위로할 수 있다면 기운을 잃은 한 마리의 개똥지빠귀를 등지에 대려다 줄 수 있다면 나는 헛되지 산 것이 아니리라’ -에밀리 디킨슨-

나이들어 갈수록 하늘을 쳐다보는 시간보다 땅을 내려다보는 시간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보다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남의 삶을 훑쳐보는 시간보다 내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간다. 그러다 보면 가끔 ‘혹시 내가 헛된 삶을 살아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에 빠져 괴로워 하기도 한다.

에밀리 디킨슨의 ‘짧은 노래’가 이토록 마음 속에 와 닿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하긴, 유대민족의 지혜와 영화의 상징으로 숭상받는 솔로몬 왕의 작품으로 알려진 성경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탄식으로 시작됐다. 그런 현인들도 인생을 마감하며 헛되게 살았다고 탄식했거늘 나같은 범인의 그런 고민을 두고 어찌 사치스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인생을 짧다. 그러나 내게 남아있는 시간은 길다”며 우쭐거렸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런 자신감도 세월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력하기만 했다. 이제는 ‘인생은 길다. 그러나 내게 남아있는 시간은 짧다’ 하고 스스로 꼬리를 내리기로 했다.

세월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상한 것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강물처럼 여유있게 흘러가는 듯 느껴지더니 나이들어 갈수록 가속력이 붙기 시작해 급류, 화살, 총알로 변해가는 것이었다. 세월이 어찌 나이를 차별하겠는가. 굳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시간의 속도는 예나 지금이나 한 치의 변함도 없을 것이다.

변하는 것은 시간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상대적인 속도다. 젊음은 나로 하여금 시간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어 뛰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용했다. 필필했던

젊음이 시름시름 늙어가며 기동력을 상실해가고 지금의 나는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 신세가 되어버린 셈이다. 그러니 시간의 속도가 나를 조롱하듯 총알처럼 날아가고 있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세월이 무심하다는 나의 푸념만 해도 그렇다. 그것은 세월의 불공평성에 대한 불평이 아니다. 66년 지기 벗인 나를 존음도 기다려 주는 의리없이 혼자 흘러가는 데 대한 섭섭함이다.

나도 누구나처럼 젊은 시절 자나 깨나 ‘성공’이라는 단어를 머리에 이고 살았다. 이왕지사 태어나 시쳇말로 ‘짧고 굵게 살아보자’는 꿈으로 뜨거웠다.

그것도 잠시 스쳐가는 젊은 날의 일장춘몽. 세상 온갖 풍파 산전수전을 다 겪고나니 그런 ‘성공’에 대한 열망도 유행가 가사처럼 추억 속의 흘러간 옛 노래가 되어버렸다.

한 때는 랄프 에머슨의 성공론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 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실한 성공이다’에 공감하며 눈 높이를 낮추어 세상에 태어난 흔적으로 겨자씨라도 하나 심어 놓고 가야겠다는 소박한 결심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아무리 작은 성공도 투철한 목표 의식과 희생정신, 빈틈없는 계획, 과감한 결단력을 필요로 한다. 나는 솔직히 그런 성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바람부는 대로 구름 흐르는 대로 자유를 즐기며 사는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공에 대한 욕구는 결국 나의 자유와 행복을 가로막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그후 삶의 관심을 ‘성공’에서 ‘행복’으로 바꾸기로 했다. 성공과 행복은 항상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것만 아니다. 오히려 각기 다른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경우가 많다. 추구하는 방향과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성공에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한다면 행복에는 일정한 목적이 없다. 굳이 목적지를 따지자면 순간 순간의 삶, 그 과정 자체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이 속도를 필요로 한다면 행복은 느긋한 여유를 필요로 한다. 성공이 안전한 항해를 위해 상세한 지도를 필요

로 한다면 행복에 필요한 것은 순간 순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적응력이다.

성공이 구축과 억제를 필요로 한다면 행복은 자유와 자율을 필요로 한다. 성공의 결산서가 남과 비교를 통해 나온다면 행복의 결산서는 비교와 관계없이 스스로 존재한다.

그렇다고 행복이 스스로 굴러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는 “천국은 침범하는 자들의 것”이라 했다. 그 침범해야 할 행복한 천국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가슴 속에 있다. 그 행복의 땅을 지키고 있는 수문장은 천국을 지키는 수문장 협상국은 베드로가 아니라 한 손에 비교의 칼, 다른 한 손에 심각성의 칼을 쥐고 있는 아랫다운 여성 수문장이다. 질투와 탐욕은 비교에서 나오고 두려움과 걱정은 심각성에서 비롯된다. 이 아름다운 수문장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는 행복의 땅에 결코 들어 설 수가 없다.

테오도 루스벨트는 일찌기 “행복의 가장 큰 적은 타인과의 비교심이다”라고 주장했다. 비교심리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행복에 50%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사토네 팔촌이 땅을 사도 배알이’를 하는 우리의 병적 비교 경쟁문화 속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남과 비교와 질투가 경쟁의 원동력이었고 생존수단이었으며 어찌 보면 삶 자체가 비교와 질투이기도 했다. 그것이 어찌 한국인들 뿐이겠는가. 중동인들의 조상 카인은 하나 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제삿상에 대한 질투심으로 돌로 처살해까지 하지 않았던가.

두번 째 행복의 적은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심각성이다. 평생 죽어가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으로 출판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인생수업’의 작가 엘리자베스 퀴블러에 의하면 죽기 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살았다”는 고백이라고 한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다. 골치아픈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 치료되고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움, 증오, 오해, 걱정은 대부분 심각성이 낳는 백해무익한 쓰레기들이다. 그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가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인 시간이다. “그 또한 지나가리라”, 그 얼마나 위대한 깨달음인가.***

날을 선택적 기억을 통해 행복하고 값진 시간이었던 것으로 포장하는 경향을 어찌 나쁘다고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사적 경험이라면, 긍정적 측면도 있는 것을.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불가피하게 마련인 노화에 따른 신체적, 사회적 무력감에다가 지난날에 대한 회한까지 겹치면 불행이 배가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도 나이와 함께 쌓인 체험과 지혜를 얼마쯤 과장한들 흠잡을 일은 못되겠다. 그러한 자부심으로 노년기를 생산적이고 보람된 삶의 일부로 만드는 노력은 본인을 위해서는 물론이요,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하산이 산행의 즐거움과 어려움

을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홀가분한 과정이듯 노년기는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를 즐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다만 이 자유를 편한 마음으로 누리려면 건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노후에도 건강과 활기를 유지하려면 젊어서부터 절제와 운동 등으로 건강을 가꾸어가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겠다.

삶의 이처럼 정말 복잡하고 오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문득 건너편 산등성이로 눈길을 돌리니 발갛게 물든 옅은 구름 사이로 주황색의 둥그런 해가 보인다. 어느새 바위의 열기가 식고, 골짜기에 그들이 조금은 질게 드리워져 있다. 하산도 끝나야 할 시간이 된 것이다.***

동창회비•광고 및 업소록비•기타 후원 동문(2014.7.1 ~ 2015.6.2)

동창회비

5월회비납부
(29명 \$ 2,175)

▶California
권영조(의대 56)
권처균(공대 51)
김기형(경영 75)
김영춘(수의 64)
박노면(사대 50)
박자경(가정 60)
위종민(공대 64)
육태식(의대 61)
▶Chicago
김미숙(음대 82)
조영희(문리 66)
▶Florida
이정필(의대 58)
▶Georgia
신동현(농대 49)
▶Hawaii
강? ()
최태식(의대 69)
▶New England
박영철(농대 64)
정선주(간호 68)
최원효(공대 59)
▶NY & NJ
김옥현(의대 59)
반영철(약대 54)
신정택(약대 52)
용하식(법대 58)
이병무(법대 58)
▶Ohio
김용현(경영 59)
▶Rocky Mt.
이석호(공대 66)
▶Wa. DC.
강준희(의대 71)
김용덕(의대 53)
남옥현(경영 84)
조순자(문리 52)
▶Wa.States
홍영옥(음대 54)

4월회비납부
(50명 \$ 3,750)

▶California
곽용길(문리 59)
김명자(보원 77)
김영희(간호 66)
김재중(치대 62)
노상규(공대 60)
박찬호(농대 63)
오양상(간호 60)
이영구(문리 60)
이웅기(상대 63)
이정희(미대 61)
정정우(수의 74)
정지선(상대 58)
채희원(약대 59)
▶Chicago
김용주(공대 69)
윤덕상(치대 63)
한재은(의대 59)
▶Wa. DC.
강도호(사회 81)
권기현(사대 53)
김 철(의대 62)
박 철(공대 57)
유홍열(자연 74)
장경태(사대 75)
장효강(공대 66)
▶Georgia
이철희(공대 67)
▶Heartland
구명순(간호66)
최원웅(의대 64)
▶Michigan
이민우(의대 61)
▶New England
유규호(음대 70)
윤영자(미대 60)
이강필(공대 64)
한승원(미대 60)

▶N.Carolina
이상구
▶Rocky Mt.
정길택(수의 54)
정화용(사대 61)
▶NY & NJ
곽상희(문리 52)
권영대(공대 69)
김병숙(보원 64)
김유순(간호 64)
조호영(문리 59)
천병수(공대 70)
▶Chio
신영찬(의대 63)
▶Philadelphia
김학륜(약대 52)
이성배(수의 59)
최정웅(공대 64)
▶Texas
김동수(의대 60)
김한섭(의대 53)
전중희(공대 56)
▶Wa.States
박찬형(의대 56)
송애라(음대 75)
이재수(공대 65)

3월회비납부
(63명 \$ 4,725)

▶Arizona
지영환(의대 59)
▶California
곽명훈(치대 73)
김규현(법대 53)
김순덕(간리 61)
김인숙(간호 70)
박종수(수의 58)
백만일(공대 64)
양광주(문리 58)
양은혁(상대 56)
이서희(법대 70)
이영일(공대 53)
이원익(문리 73)
이정열(간호 68)
이준호(상대 65)
장기창(공대 56)
장소현(미대 65)
전병련(공대 54)
정철룡(의대 55)
조만연(상대 58)
조재길(사대 61)
최 철(의대 62)
한정현(치대 55)
홍경삼(문리 61)
홍성선(약대 72)
오양상(의대 62)
▶Wa. DC
김창호(법대 56)
마계일(치대)
박명일(농대 69)
서기병(상대 55)
정계훈(문리 55)
정두현(의대 55)
▶Chicago
김용주(공대 69)
윤덕상(치대 63)
한재은(의대 59)
▶Wa. DC.
강도호(사회 81)
권기현(사대 53)
김 철(의대 62)
박 철(공대 57)
유홍열(자연 74)
장경태(사대 75)
장효강(공대 66)
▶Georgia
이철희(공대 67)
▶Heartland
구명순(간호66)
최원웅(의대 64)
▶Michigan
이민우(의대 61)
▶New England
유규호(음대 70)
윤영자(미대 60)
이강필(공대 64)
한승원(미대 60)

윤신원(의대 50)
이경태(공대 63)
이대연(약대 65)
이정자(간호 59)
이현효(공대 58)
전병삼(약대 54)
전성진(사대 54)
조남천(사대 59)
조정현(수의 58)
조종수(공대 64)
한태진(의대 58)
현건섭(공대 55)
▶New England
고일석(보원 69)
최선희(문리 69)
▶Texas
김민자(사대 58)
김영옥(가정 74)
▶Wa.States
김교선(법대 54)
김옥영(문리 52)

3월전 명단

▶Alabama
서안희(간호 63)
오신중(의대 54)
유성무(상대 66)
▶Alaska
윤재중(농대 55)
하인환(공대 56)
▶Arizona
김영철(공대 55)
박양제(약대 48)
지영환(의대 59)
최선희(자연 93)
▶California
강동순(법대 59)
강명식(의대 61)
강영호(의대 58)
강재호(상대 57)
강정훈(미대 56)
강중경(공대 48)
강천호(사대 58)
강홍제(상대 53)
게지영(문리 60)
고석규(치대 65)
고영순(음대 59)
고재천(공대 57)
권영달(문리 50)
권영덕(공대 54)
권영재(의대 57)
권오형(사대 61)
김강수(문리 59)
김건진(문리 62)
김경수(치대 58)
김경옥(미대 61)
김계윤(의대 57)
김광은(음대 56)
김교복(농대 63)
김균빈(법대 56)
김기태(의대 54)
김낙구(상대 67)
김난영(공대 53)
김동산(법대 59)
김동석(음대 64)
김동호(농대 58)
김병환(문리 67)
김병곤(공대 58)
김병연(공대 68)
김병완(공대 58)
김병호(상대 57)
김석두(농대 58)
김석홍(법대 59)
김선기(법대 59)
김수영(사대 57)
김순길(법대 54)
김순자(치대 57)
김영덕(법대 58)
김영석(상대 62)
김영희(사대 56)
김옥경(음대 69)
김완기(사대 50)
김원경(약대 59)
김원탁(공대 65)
김원호(약대 63)
김윤범(의대 54)

김의신(의대 60)
김익창(의대 48)
김일영(의대 65)
김 정(치대 59)
김정민(상대 58)
김정복(사대 55)
김정애(간호 69)
김정희(음대 56)
김종태(상대 58)
김준일(공대 62)
김진형(문리 55)
김창무(음대 53)
김태윤(법대 53)
김현철(의대 77)
김혜숙(약대 57)
김희재(사대 66)
나두섭(의대 66)
나승욱(문리 59)
남승채(공대 66)
남장우(사대 56)
노명호(공대 61)
류승일(의대 59)
문병길(문리 61)
문인일(공대 51)
민병돈(문리 57)
민영기(치대 61)
박경룡(약대 63)
박경호(사대 53)
박노면(사대 50)
박병원(의대 49)
박부강(사대 54)
박성욱(상대 58)
박원준(공대 53)
박인수(농대 64)
박임하(치대 56)
박인창(농대 65)
박재영(문리 48)
박재호(치대 54)
박정모(문리 66)
박제인(약대 60)
박종수(수의 58)
박찬호(공대 58)
박찬호(자연 81)
박취서(약대 60)
방명진(공대 73)
방정자(간호 61)
배동완(공대 65)
배병옥(음대 58)
백길영(의대 58)
백승호(치대 55)
백옥자(음대 71)
변영근(수의 52)
부영무(치대 72)
서경선(음대 60)
서동영(사대 60)
성낙호(치대 63)
손기용(의대 55)
손창순(공대 69)
손학식(공대 61)
송정자(의대 67)
신광재(공대 73)
신규식(농대 61)
신대식(상대 60)
신동국(수의 76)
신우석(치대 59)
심기련(상대 57)
심상은(상대 54)
심진숙(간호 68)
안병일(의대 63)
안병협(공대 58)
안승호(공대 71)
양명교(의대 55)
양승문(공대 65)
양은석(음대 70)
양은혁(상대 56)
양창호(상대 54)
염동혜(농대 74)
위종민(공대 64)
유두영(공대 55)
유석홍(상대 61)
유재환(상대 67)
유진형(상대 51)
유희자(음대 68)
윤경민(법대 53)
윤경자(약대 63)
윤용길(공대 55)

윤희성(치대 65)
이건일(의대 62)
이계승(공대 67)
이근원(공대 67)
이기재(문리 52)
이명선(상대 58)
이문상(공대 62)
이미정(의대 78)
이방기(농대 59)
이범식(공대 61)
이성숙(공대 56)
이성형(공대 57)
이영신(간호 77)
이영일(문리 53)
이원택(의대 65)
이익삼(사대 58)
이재권(법대 56)
이재룡(공대 71)
이재선(농대 58)
이정근(사대 60)
이정옥(공대 52)
이종묘(간호 69)
이중희(공대 53)
이재진(문리 55)
이혜영(공대 56)
이현숙(사대 62)
이흥기(공대 62)
이흥표(의대 58)
이희충(공대 68)
임동규(미대 57)
임동호(약대 55)
임문빈(상대 58)
임옥기(법대 57)
임정란(음대 76)
임창희(공대 73)
임춘수(의대 57)
임찬희(치대 59)
임희영(치대 67)
장동석(문리 66)
장 준(인문 85)
장진성(약대 66)
전명선(공대 46)
전범수(농대 71)
전상옥(사대 52)
정규남(공대 52)
정균희(의대 64)
정동구(공대 57)
정동주(가정 72)
정수만(의대 66)
정예현(상대 63)
정재훈(공대 64)
정정순(사대 56)
정진수(공대 56)
정태무(사대 44)
정현진(간호 68)
제영혜(가정 71)
조관상(의대 60)
조동준(의대 57)
조성윤(법대 46)
조정시(공대 60)
조태준(문리 59)
주정래(상대 65)
지종근(농대 56)
진성호(공대 64)
차민영(의대 76)
차재철(의대 62)
차종환(사대 54)
최경선(농대 65)
최덕순(간호 59)
최상집(치대 65)
최형순(간호 69)
최용원(공대 57)
최종권(문리 59)
탁은숙(문리 54)
탁혜숙(음대 67)
하선호(치대 81)
한민철(치대 62)
한상봉(수의 67)
한중철(치대 62)
한홍택(공대 60)
한효동(공대 58)
현순일(문리 58)
홍병익(공대 68)
홍준만(문리 58)
홍유현(음대 61)
황규혁(공대 50)
황동하(의대 65)

황성현(공대 56)
황준오(치대 70)
▶Carolina
김건일(상대)
김정희(약대 56)
마동일(의대 57)
신두식(의대 58)
이달호(사대 46)
이범세(의대 56)
한광수(의대 59)
홍 훈(자연)
▶Chicago
강수상(의대 48)
강영국(수의 67)
강화영(문리 50)
고병철(법대 55)
구경희(의대 59)
김갑중(의대 57)
김갑조(간호 51)
김계균(공대 60)
김규호(의대 58)
김동희(공대 66)
김병윤(문리 65)
김사직(상대 59)
김연화(음대 68)
김 영(문리 66)
김일훈(의대 51)
김재관(의대 62)
림영신(의대 54)
민영기(공대 65)
박영규(농대 57)
박용순(의대 53)
배영섭(의대 54)
서상현(의대 65)
소진문(치대 58)
송재현(의대 46)
송진용(농대 53)
신석균(문리 54)
신태수(의대 88)
안은식(문리 55)
오상현(의대 65)
유대중(공대 50)
이덕수(문리 58)
이상오(문리 61)
이소희(의대 61)
이소희(간호 68)
이승자(사대 60)
이승훈(공대 66)
이시영(상대 46)
이영철(공대 60)
이용락(공대 48)
이윤모(농대 57)
이정일(농대 57)
이종일(의대 71)
이태영()
임근식(문리 56)
임현재(의대 59)
장세국(의대 57)
장시경(약대 58)
장윤일(공대 60)
장 홍(문리 61)
전경철(공대 55)
전현일(농대 62)
정승훈(공대 60)
정영숙(사대 59)
제환수(사대 61)
조봉완(법대 53)
조형원(약대 50)
천양곡(의대 63)
최대한(의대 53)
최혜숙(의대 53)
최희수(문리 67)
한상봉(수의 67)
한의일(공대 62)
한홍택(공대 60)
함성택(문리 55)
홍 건(의대 64)
홍병익(공대 68)

▶Florida
김재석(의대 66)
김택희(문리 55)
나수섭(의대 50)
박창익(농대 64)
송용덕(의대 57)
신쌍재(수의 59)
안창현(의대 55)
전영자(미대 58)

정진묵(의대 50)
한기빈(공대 52)
한성수(의대 54)
황현상(의대 55)
홍순호(수의 74)
▶Georgia
강창석(의대 73)
김순옥(의대 54)
김영서(상대 54)
김용건(문리 48)
김태형(의대 57)
방창모(문리 49)
백낙영(상대 61)
손중수(의대 50)
신동현(농대 49)
안승덕(상대 51)
오경호(수의 60)
이영진(공대 76)
임수암(공대 62)
임한웅(공대 60)
정광호(공대 60)
정량수(의대 60)
정일화(상대 55)
최재학(사대 56)
최종진(의대 63)

▶Hawaii
김승태(의대 57)
김용수(농대 75)
김용진(공대 50)
김창원(상대 49)
유재호(문리 59)
장광수(사대 50)
최경윤(사대 51)
▶Heartland
김경숙(가정 70)
김명자(문리 62)
김재원(사대 68)
도태영(사회 93)
백산옥(문리 51)
이상강(의대 70)
정민재(농대 70)
차봉희(의대 51)
최은관(사대 64)

▶Las Vegas
김영중(치대 66)
김택수(의대 57)
이 관(공대 55)
박정우(의대 54)
최영식(법대 59)
최창식(의대 61)
홍수웅(의대 59)
▶Michigan
고광국(공대 54)
김국화(공대 56)
김용호(약대 69)
김우신(의대 60)
김재석(의대 61)
김정화(음대 55)
김희주(의대 62)
남성희(의대 58)
문경웅(의대 61)
박용화(의대 52)
박준환(의대 55)
서영일(의대 62)
신동학(문리 55)
유효명(의대 58)
이상설(의대 52)
이상일(의대 54)
이성길(의대 65)
임병훈(의대 54)
조문희(공대 6)
김한중(공대 64)
차대양(공대 55)
채무원(의대 59)

최병두(의대 52)
하계현(공대 64)
▶Mimesota
권학주(치대 59)
김영남(사대 53)
남세현(공대 67)
박정선(농대 60)
변우진(인문 81)
성육진(치대 87)
송창원(문리 53)
왕규현(의대 56)
이창재(문리 56)
▶New England
김만옥(약대 56)
김명자(문리 62)
김문소(수의 61)
김선혁(약대 59)
김신형(의대 51)
김은태(의대 48)
김제호(상대 56)
노인규(의대 52)
윤상래(수의 62)
윤원길(의대 59)
이금하(문리 69)
정정옥(의대 60)
주창준(의대 56)

▶NY & NJ
강충무(사대 60)
계동휘(치대 67)
고순정(간호 69)
곽노섭(문리 49)
곽상준(약대 55)
곽상희(문리 52)
곽선섭(공대 61)
권문용(미대 61)
권영국(상대 60)
권용구(상대 61)
금동용(문리 58)
김경애(간호 54)
김광현(미대 57)
김광호(의대 66)
김규화(상대 63)
김기훈(상대 52)
김동진(약대 56)
김명철(공대 60)
김문경(약대 61)
김병권(문리 63)
김병석(의대 53)
김병술(약대 52)
김봉련()
김석식(의대 58)
김석자(음대 61)
김수일(약대 62)
김순자(약대 59)
김영봉(의대 83)
김영애(사대 56)
김영일(약대 58)
김영철(의대 55)
김완주(의대 54)
김용술(상대 56)
김용연(문리 63)
김유순(간호 64)
김자익(의대 69)
김재경(농대 53)
김정순(법대 58)
김정환(문리 60)
김정희(간호 69)
김중현(법대 57)
김창수(약대 64)
김태양(사대 61)
김학자(간호 59)
김한중(의대 56)
김해암(의대 53)
김현중(공대 63)

미주 동창회 대도약을 위한 후원		
▶조형원(약대 50)	500	
▶최지원(의대 55)	500	
▶이희덕(농대 58)	500	
▶문광재(의대 68)	500	
▶백옥자(음대 71)	500	
▶위종민(공대 64)	500	
▶김길평(상대 62)	501	
▶이충호(의대 63)	501	
▶방은호(약대 43)	600	
▶신창민(법대 60)	1,000	
▶곽노섭(수학 53)	1,000	
▶정재훈(공대 64)	1,000	
▶조순자(문리 53)	1,000	
▶한재은(의대 59)	1,000	
▶최 철(의대 62)	1,000	
▶권철수(의대 68)	1,000	
▶박종수(수의 58)	1,000	
▶백순옥(사대 48)	1,000	
▶이명선(상대 58)	1,125	
▶이준행(공대 48)	2,000	
▶차재철(의대 62)	3,000	
▶강신호(의대 51)	3,000	
▶이상강(의대 70)	5,000	
▶고광현(공대 57)	5,000	
▶권기현(사대 53)	5,000	
▶손재옥(가정 77)	10,000	
▶이병준(상대 55)	10,000	
Total \$ 57,727		

김현희(간호 59)
김훈일(공대 60)
노용면(의대 49)
라준국(공대 47)
라찬국(의대 57)
민발식(의대 60)
민준기(공대 59)
박건이(공대 60)
박경원(미대 65)
박성일(상대 58)
박수안(의대 59)
박순영(법대 56)
박승화(간호 52)
박영태(상대 63)
박은규(약대 72)
박중섭(사대 74)
박진우(상대 77)
박현성(약대 60)
방준재(의대 63)
배명애(간호 47)
배성규(약대 61)
백낙환(약대 56)
변건웅(공대 65)
변호련(간호 63)
서병선(음대 65)
선종철(의대 57)
성기로(약대 59)
손경택(농대 57)
손광호(의대 59)
송병문(공대 62)
송영순(사대 60)
신한경()
심영석(공대 76)
안태홍(상대 65)
양명자(사대 63)
양순우(법대 67)
엄종열(미대 61)
우관혜(음대 63)
우상영(상대 55)
유재용(공대 58)
원인순(문리 71)
유재섭(공대 65)
유태상(문리 58)
유영호(의대 52)
윤봉균(사대 54)
윤영섭(의대 57)
윤인숙(간호 63)
윤현남(공대 64)
이강홍(상대 60)
이경태(공대 63)
이국진(사대 57)
이능석(의대 57)
이대린(농대 67)
이만석(공대 58)
이문자(간호 66)
이상복(의대 56)
이성수(공대 56)
이시진(문리 54)
이정은(의대 56)
이운순(의대 52)
이유찬(의대 58)
이은미(음대 77)
이재진(의대 59)
이재원(법대 60)
이전구(농대 60)
이정은(의대 58)
이중환(법대 51)
이준행(공대 48)
이중춘(공대 56)
이중호(의대 63)
이태성(음대 65)
임공세(의대 63)
장태옥(음대 57)
<29면에 계속>

회비 3회 이상 납부		
▶California 강희창(공대 57) 김경옥(미대 61) 김동호(농대 58) 안병일(의대 63) 이소희(의대 61) 임화식(치대 59) 조만연(상대 58) 최용완(공대 57)	▶Chicago 조봉완(법대 53) ▶Michigan 이영모(의대 53) 최병두(의대 52) ▶NY & NJ 김문경(약대 61) 김석식(의대 58) 문석면(의대 52)	박순영(법대 56) 이강홍(상대 60) 이성구(약대 56) ▶Ohio 김동광(공대 62) 김용현(경영 59) ▶Rocky Mt. 송유준(의대 64) ▶Texas 신철영(문리 64) ▶Utah 김인기(문리 58) 김인기(문리 58) ▶Wa. DC 권철수(의대 68) 이문항(공대 46) 장수영(공대 57) 홍용식(공대 51) (*제12대 동창회 의 2년간 회비를 3 회 이상 낸 동문 들의 명단임)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703) 462-9083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kangdon@att.net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300,L A,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욱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사대 73)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530-3630
12912B 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공대 85)
213-739-5700, 714-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장 준(인문대 85)
818-772-2811 213-481-0100
junchangcpa@hotmail.com
19520 Nordhoff St. #16 Northridge, CA 91324
1100 Wilshire Blvd. Suite 2904 LA, CA 90017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엔지니어링 컨설팅/ 건축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Santa Ana CA 92705

의료/ 약국/ 치과병원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213-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I Young Kim MD(의대 65)
Diana Kim MD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치과병원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69) 213-385-1233
3540 Wilshire Bl. LA CA 90010
michaelyoonbae@gmail.com

황준오 D.D.S.
황준오(치대 73) 408-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우주개발/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714-952-2240
10874 Hope St.P0 Box6034 Cyoress CA 90630
jc@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1672 Tuxford St.Sun Valley CA 91352
Tel.818-768-5494 Fax.818-768-5040
e-mail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9-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APLC
한태호 변호사
T.(213) 639-2900 F.(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클리닉/교외

Teamspirit Investment & Dev.
Jennie Lee(간호대 69)Realtor
714-396-0624 949-251-040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lee@gmail.com jennielee.mytsr.com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B) 714-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리테일러/보석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627-0547
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 원(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비영리법인 애양 극지에너지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Ocean, Arctic, Energy
www.isope.org: jschung@isope.org

재정/ 보험/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간호대 72)
213-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공대 76)
404-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NV 네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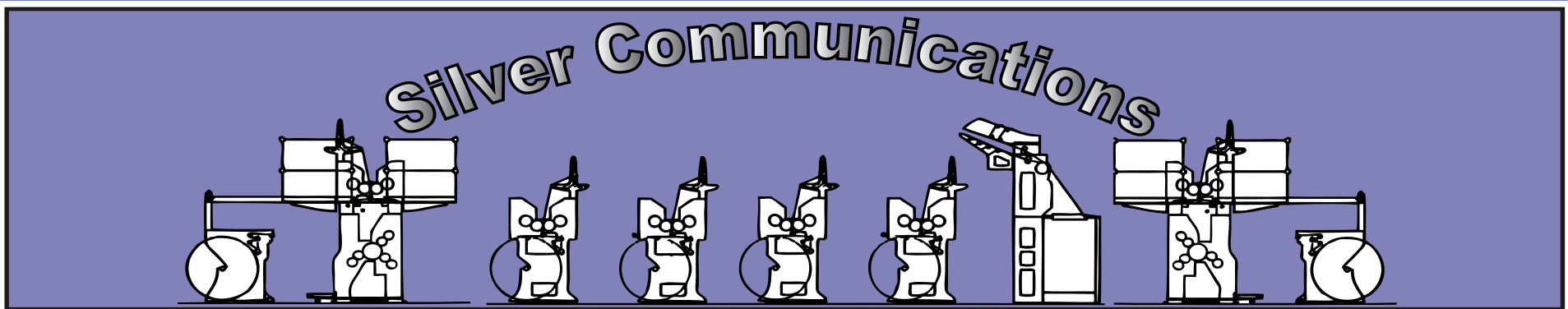
Best Care Dental
김영중(치대 66)
702-384-2828 702-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89113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농대 78)
612-418-5393
P.O.7416 Beaverton OR.97007

TX 텍사스

C&C Industries INC.
진기주(상대 60)
713-466-1644
10350 Clay Rd., Ste.250 Houston TX 77041
kc@candcvalve.com www.candcvalve.com



Commercial Publication Printers and
Proud Printer of SNUAA News
703-471-7339
www.silver-com.com
silver@silver-com.com

미주 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2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이용락(공) · 오홍조(치) · 이영목(공) · 이진구(농) · 송순영(문)

명예회장 : 김은종(상)

제12대 회장 : 오인환(문)

차기 회장 : 손재욱(가정)
동창회 후원회 부회장 : 김인순(가정)
Brain Network담당 부회장 : 이채진(문)
미 주류사회 담당 부회장 : 공순옥(간)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 권기현(사대)

상임고문 : 박윤수(문) · 이영목(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정평희(공) 총무국장 : 한정민(농)
조직국장 : 백옥자(음) 재무국장 : 유홍열(자연)
광고국장 : 함은선(음) 사업국장 : 김정식(농)
섭외국장 : 이우진(농) 기금모금위원장 : 권철수(의)
IT개발위원장 : 손재욱(가정)

회보 임원

발행인 : 오인환(문)
주필 : 백순(법)
편집위원장 : 장경태(사)
편집주관 : 이기준
편집위원 : 윤경의(공) · 서윤석(의) · 이윤주(상) · 이해덕(상)
정평희(공) · 김정식(농) · 진학송(약) · 함은선(음)
이나래(경) · 각 지역 동창회 편집간사
Homepage Webmaster : 김원영(미대 82)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 김일훈(의) · 고병철(법) · 조동준(의) · 이채진(문)
최용원(공) · 정홍택(상) · 윤상래(수의) · 김창수(약)
차민영(의) · 이석구(문) · 김용현(경) · 유재풍(법)
장석정(법) · 하용출(사) · 민경훈(법) · 이원영(정)

회칙위원회

위원장 = 한재은(의)
위원 = 서중민(공) · 이민언(법) · 윤상래(수의)
김지영(사) · 신응남(농) · 함은선(음)

인선위원회

김은종(위원장, 직전회장) · 오인환(현 회장) · 손재욱(차기 회장) · 이승자(Ch) · 김창수(NY) · 김무웅(WA) · 이영재(TX)

감사 : 박평일(농) · 주기목(수의)

*사진·취재·편집·레이아웃 디자인 = 이기준 편집주관
snuaausalkj@gmail.com. snuaausa12@gmail.com
*인쇄= Silver Communications
102-A Executive Dr., Sterling, VA 20166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남가주	회장	박혜옥(간호대 69) 818-606-6503 jennypaek2@gmail.com	회계년도 Feb-Feb
	차기회장		
북가주	회장	박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부회장		
뉴욕	회장	곽승용(의대 65) 347-506-0478 syngkwak@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회장	장수인(음대 76) 978-821-9434 sooihnee@comcast.net	Jul-Jun
	차기회장	이의인(공대 68) 781-862-5270 euiinlee@verizon.net	
달라스	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룩키마운틴스	회장	송요준(의대 64) 970-396-0616 yojunsong45@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haeseokch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회장	김주성(농대 83) 858-213-5666 briankim00@yahoo.com	Jan-Dec
	부회장		
시카고	회장	김용주(공대 69) 630-235-9387 kimyongjoo@msn.com	Jan-Dec
	부회장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회장	윤제중(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백대현(상대 77) 503-587-0447 daehyunbaek@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 614-378-2918 wonsong3140@aol.com	
	차기회장		
워싱턴 DC	회장	장경태(사대 75) 703-901-3770 jangkent@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이원섭(농대 77) 206-954-1871(C) wonlee@qbmtrading.com	Jan-Dec
	수석총무	임현민(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회장	정경완(자연대 83) 801-897-4060 Kyungwan@mathradar.com	
	부회장		
조지아	회장	강창석(의대 73) 314-363-8396 kangs5@gmail.com	Jan-Dec
	부회장		
중부 텍사스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부회장	이주희(음대 89) 512-663-0931 Juhee.williamson@gmail.com	
필라델피아	회장	전방남(상대 73) 610-220-3461 jeonbana@gmail.com.	Jan-Dec
	부회장	유영진(경영 85) 215-307-0001 yxy23yoo@gmail.com	
플로리다	회장	윤기향(공대 69) 516-213-8228 dcho0806@bellsouth.net	
캐로라이나	회장	이상구(자연대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차기회장		
테네시	회장	박재현(자연대 81) 865-696-9066 jae.park99@gmail.com	Jan-Dec
	부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865-671-3602 sbaek2@utk.edu	
하와이	회장	성낙길(해양 77) 217-508-8711 nsung@hawaii.edu	
	차기회장	전수진(식공 89)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wanjunhada@gmail.com	
	차기회장		
휴스턴	회장	최인섭(공대 75) inchoi@msn.com	Jan-Dec
	부회장	구자동(상대 77) 713-206-1942 jykey2003@yahoo.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Dish Pizza Salads Soups Sushi

USDA ORGANIC

Sear's Gift
Roasted Seaweed Snacks
Sear's Gift
SUSHI NORI

대표 이승훈(상대 74)

Jayone 562-633-7400
facebook.com/JayoneFoods
twitter.com/JayoneFoods
youtube.com/user/Koreanfoodmart

Paul Chung, P.E.
President

정평희(공대 71)
미주 동창회 사무총장

GEOTECH ENGINEERS, INC.
11890-U Old Baltimore Pike, Beltsville, MD 20705
Tel.301.937.9227 / Fax.301.937.9189
Website : www.geotechengineersinc.com
E-mail : paulchung@geotechengineersinc.com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해정(82년, 문리대) www.duo.co.kr

좋은사람 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 듀오

- 소비자가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규모와 믿음,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듀오만의 매칭 프로그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 배려와 커뮤니케이션: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본국 회원검색: 본국 회원과의 만남을 원할 경우, 2만 6천명이 넘는 회원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문의 LA 213-383-0077 / NY 201-242-0505

재미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하는 한스여행사!

저희 한스관광의 목적은 질 높은 내용으로 더 알차면서 여유있는 여행 패키지를 여러분께 선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스 관광에서 단독으로 진행 되는 모든 맞춤 여행 패키지들은 여행 첫 날부터 끝나는날까지 직접 한스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가고 호텔과 식사 모두가 upgrade 된 고품격 패키지입니다. 한스관광이 각 패키지 투어마다 엄선하여 제공해 드리는 편안한 잠자리, 여유있는 일정, 그리고 현지 최고 가이드 안내로 평생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Holiday in Croatia

'꽃보다 누나'의 그 곳!
크로아티아의 휴일 7박8일
- 9월 23일-30일 \$3495
- 일정: 크로아티아(아드리아 해안의 진주 드브로브니, 16개 신비로운 호수와 92개 폭포로 이루어진 국립공원 플리트비체, 로마의 역사가 그대로 살아있는 스플리트)-슬로베니아(호수마을 블레드)-오스트리아(비엔나)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 할만큼 중세의 고풍스런 건물들과 눈물리는 곳마다 문화유산으로 가득한 크로아티아는 지중해성 기후와 알프스의 만년설이 푸른 하늘과 에메랄드빛 호수 아래로 반영되는 고성들과 어울려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화음을 듣는 듯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휴일의 여유와 낭만을 만끽하세요!

HANS TRAVEL 2015 TOUR SCHEDULE

- * 6월8일 - 6월15일: Last Frontier 알래스카 딜릭스 인랜드 투어 7박8일
- * 6월29일 - 7월5일: 독립기념일 특선-밴쿠버 캐나다 록키 6박7일
- * 7월23일 - 7월29일: 알래스카 랜드투어 6박7일
- * 7월27일 - 8월9일: Russia/Northern Europe 13박14일 - 1차 출발
- * 8월10일 - 8월23일: Russia/Northern Europe 13박14일 - 2차 출발
- * 9월2일 - 9월13일: Western Europe 11박 12일 - 2차 출발
- * 9월7일 - 9월13일: '로마의 휴일' 이태리 6박7일
- * 9월13일 - 9월22일: Bohemian Eastern Europe 9박10일
- * 9월21일 - 10월4일: Spain, Portugal, Morocco 13박14일
- * 9월22일 - 10월6일: 북경 만리장성과 고국 전국일주 & 제주도 14박15일
- * 9월23일 - 9월30일: '꽃보다 누나'의 그 곳 크로아티아의 휴일 7박8일
- * 9월26일 - 10월6일: 고국 전국 맛여행 & 제주도 3박4일
- * 10월13일 - 10월25일: 환상의섬 사설리 + 이태리 하이лай트 딜릭스 12박13일
- * 원하시는 날짜와 일정에 맞춰 맞춤 패키지 만들어 드립니다(10분 이상)

한스관광 HANS TRAVEL
Toll Free: 800-963-4267 / T. 703-658-1717, 301-770-1717, 410-480-9898
Fax. 703-658-3110,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Suite 102, Annandale, VA 22003

재미 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 했던 여행지들

1차 2007년(중)에 크루즈 여행 2차 2008년 이집트와 나일 크루즈 3차 2009년 네덜란드 여행 4차 2010년 러시아, 발틱 여행 5차 2011년 페루 브라질 여행 6차 2012년 발칸반도 97국 여행 7차 2013년 아프리카 사파리 투어 8차 2014년 메네루스 3국 투어

“성장하는 기업”

25년간 세계 정상의 뷰티브랜드로 성장한 KISS
여러분과 함께 자녀세대의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ISS®



김광호 (62) 신규천 (73) 한규상 (84) 김영훈 (93)

KISS®

KISS PRODUCTS, INC.,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ISSusa.com